

2015 달라지는 FTA 환경과 우리기업 대응전략



□ 프로그램

시간	발표주제	연사(장점)
〈1부 프로그램 : 한-베트남, 한-영연방 3개국 FTA 이해와 활용전략〉		
09:30~09:40	· 개회사	정보통신지원본부장
09:40~09:50	· 축사(우리나라의 FTA 추진동향 및 정책 포함)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09:50~10:20	· 한-베트남 FTA 주요내용 및 활용전략	하노이 무역관장
10:20~10:50	· 한-호주 FTA 주요내용 및 활용전략	시드니 무역관장
10:50~11:20	· 한-캐나다 FTA 주요내용 및 활용전략	토론토 무역관장
11:20~11:50	· 한-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및 활용전략	오uckland 무역관장
11:50~12:10	· Q&A	
12:10~13:10	· 점심(도시락 제공)	—
〈2부 프로그램 : 한중 FTA 이해와 활용전략〉		
13:10~13:30	· 환 영 사 · 축 사	정보통신지원본부장 주한중국대사관 공사
13:30~14:40	· (세션1)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 한중 FTA 핵심내용 소개	산업부 동아시아 FTA 추진단 김재준 과장
	— 한중 FTA와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	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 연구위원
14:30~16:30	· (세션2) 열리는 시장, 커지는 시장(업종별 전망)	—
	— 농산품 분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선임연구위원
	— 공산품 분야	KOTRA 정환우 조사담당관
	— 서비스시장	법무법인 태평양 오기형 변호사
	— Q&A 및 패널토론	MBC 방현주 문화컨텐츠팀장 동신유압(주) 최집렬이사 대상(주) 심용태 팀장
16:30~16:40	· Coffee Break	
16:40~18:00	· (세션3) 우리기업, 무엇을 준비하나?	—
	— 한중 FTA 비관세장벽 체크포인트	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 한중 FTA 관세분야(원산지증명, 통관) 이해	관세법인 신한 최대규 관세사
	— KOTRA 한중 FTA 활용 지원사업 안내	KOTRA 중국사업단 장상해 차장
	— 종합 Q&A(2부 프로그램 참석자 전원)	—

목 차

■ 1부 프로그램 : 한-베트남, 한-영연방 3개국 FTA 이해와 활용전략	1
한-베트남 FTA 주요내용 및 활용전략	3
▶ 하노이 무역관장	
한-호주 FTA 주요내용 및 활용전략	27
▶ 시드니 무역관장	
한-캐나다 FTA 주요내용 및 활용전략	41
▶ 토론토 무역관장	
한-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및 활용전략	55
▶ 오클랜드 무역관장	
■ 2부 프로그램 : 한중 FTA 이해와 활용전략	69
• (세션1)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한중 FTA 핵심내용 소개	71
▶ 산업부 동아시아 FTA 추진단 김재준 과장	
한중 FTA와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	81
▶ 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 연구위원	
• (세션2) 열리는 시장, 커지는 시장(업종별 전망)	
농산물 분야	9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선임연구위원	
공산물 분야	105
▶ KOTRA 정환우 조사담당관	
서비스 시장	123
▶ 법무법인 태평양 오기형 변호사	
• (세션3) 우리기업, 무엇을 준비하나?	
한중 FTA 비관세장벽 체크포인트	129
▶ 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한중 FTA 관세분야 (원산지증명, 통관) 이해	149
▶ 관세법인 신한 최대규 관세사	
KOTRA 한중 FTA 활용 지원사업 안내	163
▶ KOTRA 중국사업단 장상해 차장	

PROGRAM

1

**한-베트남, 한-영연방 3개국
FTA 이해와 활용전략**

한-베트남 FTA 주요내용 및 활용전략

하노이 무역관장

하노이 무역관

kotra

Global Business Platform

한-베트남 FTA 주요내용 및 활용 전략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1. 베트남 개관 및 경제현황

2. 베트남 시장 개요

3. 한국-베트남 FTA는 진행형

4. 활용 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베트남의 국가개황



국명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기후	북부 아열대성, 남부 열대몬순
면적	약 331,698 Km² (한반도의 약 1.5배)
인구	9,049 만명 (2014년 4월, 베 통계청)
구역	5개 중앙직할시, 58개성
민족	비엣족(89%), 기타 53개 민족
종교	불교(12%), 카톨릭(7.3%)
기타	한국대비 -2시간, U\$1 = 21,250동

베트남 경제의 특성

- ▶ 연평균 5~7% 이상의 성장과 지정학적 위치로 'Post China' 부상
 - 세계 금융위기 이전까지 7% 이상의 빠른 경제성장 ('13년 5.4%)
 - 아세안(6억명), 중국(13억명), 인도(12억명)를 연결하는 경제 요충지
 - '95년 ASEAN FTA, '07년 WTO 가입/UN 비상임이사국 지정, '07년 일-베 EPA

- ▶ 외국자본 유입 및 사회인프라 구축이 경제성장을 견인
 - GDP의 12~18% 규모의 신규 FDI 유치, 7~8% 규모의 ODA 공여
 - 신 내각('11.8월 출범)은 사회인프라 구축을 핵심 경제목표로 추진
 - * '15년까지 국가도로망에 238억불 투입, 플랜트 및 자원개발에 ODA 규모 확대

- ▶ 중산층의 급속한 증가 및 현대식 소비패턴의 확산 (30%의 지하경제)
 - 식품, 핸드폰, 가전제품, 자동차 수요 증가 (중산층 : 월급여 300~600불 내외)
 - 대형유통망, 글로벌 프랜차이즈 진출 가속화로 소비패턴 고급화

베트남의 주요 거시경제 지표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전망
GDP(US\$억)	1,060	1,335	1,558	1,712	1,940
1인당 GDP(US\$)	1,334	1,543	1,755	1,868	2,096
경제성장률(%)	6.4	6.2	5.2	5.4	5.98
산업생산증가율(%)	14.0	6.8	4.8	5.9	7.6
물가상승율(%)	11.8	18.1	9.2	6.6	4.0
실업률(%)	2.8	2.9	2.5	2.2	2.1
환율(對 달러화)	19,100	20,663	20,830	21,036	21,250
수출(억불)	715	969	1,146	1,321.3	1,500
수입(억불)	835	1,067	1,138	1,321.2	1,480
외환보유고(억불)	154	192	244	308	-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세관, World Bank, Global Insight, Bloomberg 등]

3

kotra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

단위 : 백만불						
순위	품목별	2011	2012	2013	증가율(%)	2014.3Q
1	휴대전화	6,885	12,717	21,517	69.1	17,263
2	섬유 · 의류	14,043	15,093	17,891	18.6	15,519
3	전자기기 · 컴퓨터	4,670	7,838	10,677	36.2	7,491
4	신발	6,549	7,262	8,366	15.2	7,441
5	원유	7,241	8,229	7,236	-12.1	5,806
6	수산물	6,112	6,093	6,734	10.5	5,746
7	기계 · 장비부품	4,160	5,537	6,033	9.0	5,329
8	목제품	3,955	4,666	5,496	17.8	4,453
9	수송기기 및 부품	2,387	4,580	4,938	7.8	4,161
10	쌀	3,657	3,673	2,986	-18.7	2,282
2014년 신규 Top 10 진입 품목				커피		2,882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 ▶ 주요 수출품목 : 휴대전화, 섬유/의류, 전자기기, 신발, 원유, 수산물 등
- ▶ FDI 기업 수출기여도 : '11 (49%) → '12 (56%) → '13(62%) → '14.3Q(61%)

4

kotra

베트남의 주요 수입품목

단위 : 백만불

순위	품목	2011	2012	2013	증가율(%)	2014.3Q
1	컴퓨터·전자부품	7,974	13,111	17,684	34.9	13,516
2	식물	6,730	7,040	8,405	19.4	6,876
3	휴대전화 부품	2,593	4,967	8,041	61.9	6,066
4	정유	9,978	8,958	6,980	-22.1	6,317
5	철강	6,433	5,981	6,654	11.3	5,446
6	플라스틱	4,760	4,804	5,710	18.9	4,664
7	면직의류부자재	2,948	3,159	3,750	18.7	3,464
8	화학류	2,696	2,780	2,968	6.8	2,436
9	비철금속	2,697	2,631	2,925	11.1	2,494
10	화학제품	2,395	2,448	2,765	13.0	2,365
2014년 신규 Top 10 진입 품목				기계·각종 공구		16,171
				가축사료·사료원료		2,530

(자료원 : 베트남통계청)

- ▶ 주요 수입품목 : 전기전자부품, 식물, 휴대폰부품, 정유, 플라스틱 등
- ▶ FDI 기업 수입기여도 : '11(45%) → '12(53%) → '13(56%) → '14.3Q(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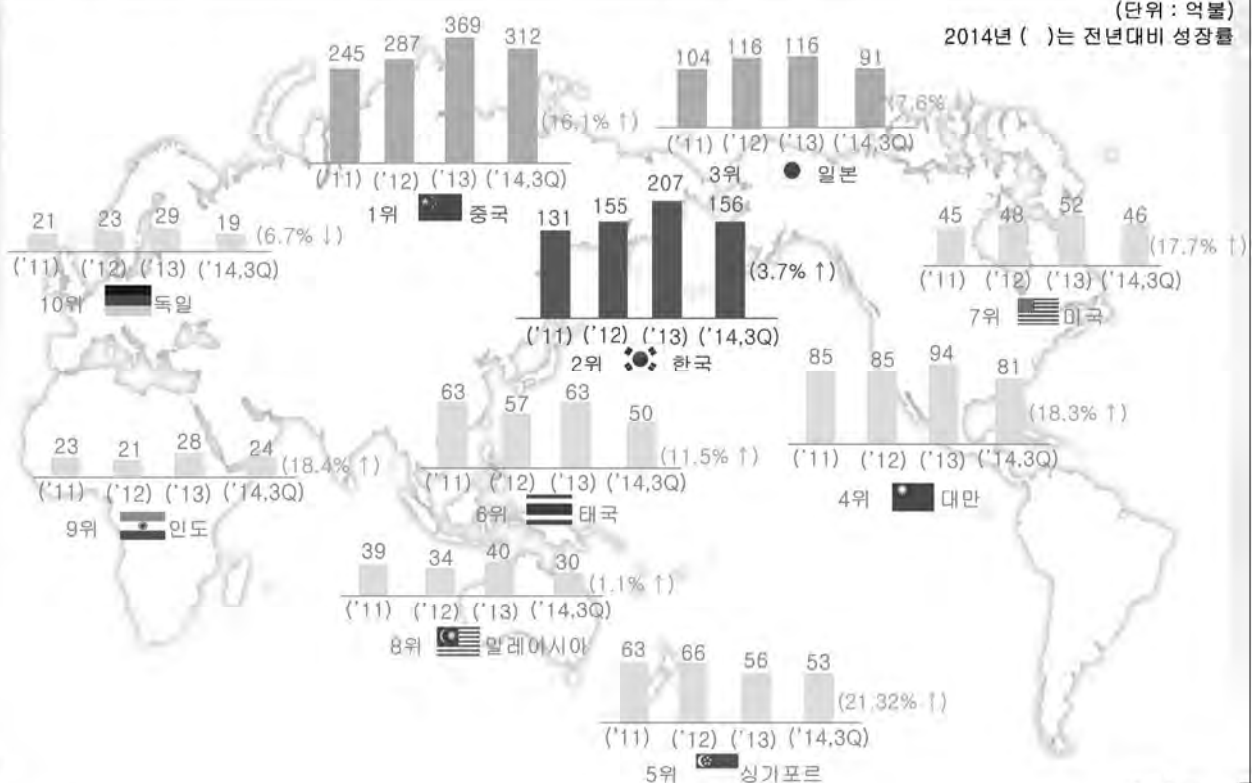
5

kotra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베트남의 국가별 수입

(단위 : 억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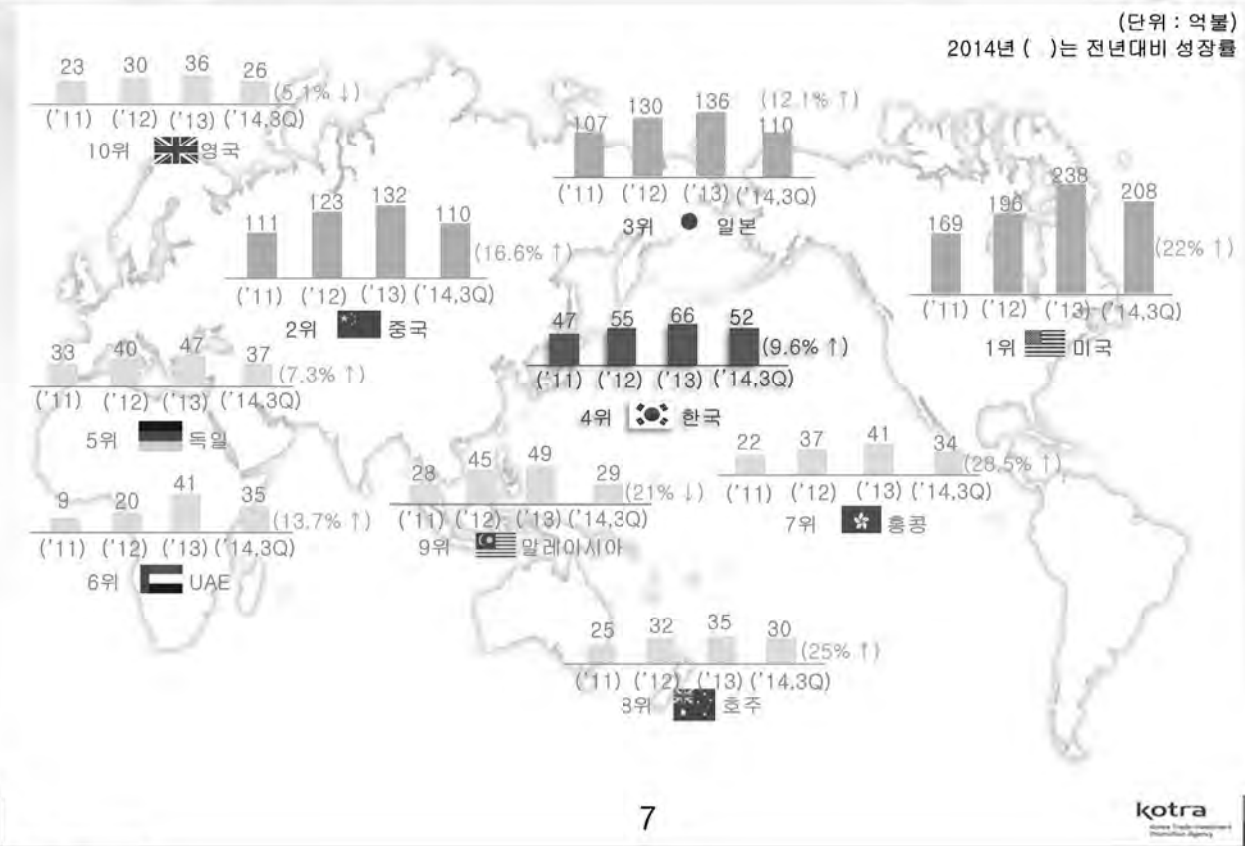
2014년 ()는 전년대비 성장률



6

kotra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베트남의 국가별 수출



한-베 경제협력

2013년 베트남은 한국의 6대 수출시장, 16대 수입시장, 9대 교역 대상국



(자료원: 무역협회, 단위: 백만달러)

우리나라는 총 3,983건, 334억불을 베트남에 투자 60.6%는 제조업

순위	분야	프로젝트 수	투자 승인 금액 (백만불)	비중
1	제조업	2,421	20,260	60.6%
2	부동산 경영업	80	6,979	20.8%
3	건설업	546	2,391	7.1%
4	예술, 레저	24	918	2.7%
5	운송, 물류	60	917	2.7%
6	식당, 요식업	89	630	1.8%
7	도, 소매 및 수리업	180	391	1.1%
8	의료, 사회봉사	22	219	0.6%
9	전문 기술서비스	262	175	0.5%
10	광업	2	112	0.3%
	합계	3,827	33,429	

(자료원: 베트남투자유치청)

11 1988.1.1 ~ 2014.3분기 총 누적투자

8

kotra

한국의 품목별 對 베트남 수출

단위 : 백만불

순위	품목	2013	2014.3Q (1~9월)	
			금액	(%)
1	컴퓨터, 전자기기 및 부품	5,099	3,633	27.60%
2	기계, 장비	2,824	2,226	13.76%
3	섬유류	1,698	1,330	19.34%
4	전화기, 휴대전화 및 부품	2,201	1,270	20.93%
5	플라스틱	1,173	869	18.63%
6	철강	1,130	805	14.78%
7	직물, 가죽, 신발용 원부자재	726	585	16.88%
8	비철금속	623	578	23.17%
9	플라스틱 제품	536	566	24.87%
10	석유제품	649	522	8.26%

출처: 베 통계청

kotra

한국의 품목별 對 베트남 수입

단위 : 백만불

순위	품목	2013	2014.3Q (1~9월)	
			금액	(%)
1	섬유, 의류	1,638	1,541	9.90%
2	수산물	509	467	8.10%
3	목제품	328	359	8.00%
4	전자기기, 컴퓨터 및 부품	325	264	3.50%
5	전화기, 휴대전화 및 부품	217	248	1.43%
6	신발	231	229	3.07%
7	기계, 장비, 부품	227	225	4.22%
8	기타 수송기기 및 부품	512	168	4.03%
9	원사	223	144	7.64%
10	원유	724	123	2.11%

출처: 베 통계청

kotra

Contents

1. 베트남 개관 및 경제현황

2. 베트남 시장 개요

3. 한국-베트남 FTA는 진행형

4. 활용 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2014 베트남 경제 10대 뉴스

경제성장을 목표 상회
물가는 13년만에 최저



- ◆ 베트남 정부의 2014년 초 목표 5.8%, 이미 1~9월 5.62%에 달해 연간 목표달성 무난 전망
- ◆ 2014년 인플레이션은 유가 하락 및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인해 지난 2003년 이후 최저치인 4% 미만으로 전망

행정개혁은 일정 진행
개혁속도는 지지부진



- ◆ 총리 지시 하 행정개혁위원회 운영, 3,000개의 행정절차가 폐지 또는 간소화
- ◆ 하지만, WB의 조사결과 베트남의 사업환경은 189개국 중 79위 차지 (전년대비 6위 하락)

산업생산력 회복
수출은 지속 성장



- ◆ 산업생산지수 : 1~11월 7.5% (2013년 동기 5.6%)
- ◆ 정부 세수확보 : 1~11월 올해 예산의 97.1% 달성
- ◆ 신규설립/휴면기업 정상운영 등록수 : 68,200 건
- ◆ 수출액 : 1,500억달러를 상회 예상(전년대비 15% 성장)

2014 베트남 경제 10대 뉴스

공공부채 빠르게 증가



- ◆ 공공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 공공부채 비율 상한선인 GDP 65% 경계선에 다다를 것이라는 분석 제기
- ◆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10억불의 정부채권 발행, 하지만 대부분이 부채상환 연장에 사용

공기업 지분매각은 기대 이하



- ◆ 2014년 연초부터 공기업 부실화 해결을 위해 지분매각 및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미
- ◆ 다만, Vietnam Airline, Vocarimex, Vinatex 등의 대형 국영기업 지분이 성공적으로 매각
- 2015년 400여 개의 국영기업들이 지분매각 예정

부동산 시장은 미지수



- ◆ 저소득층 대상 주택시장, 일반 주택시장이 큰 회복세
- ◆ 대도시의 부동산 거래물량 급증, 재고물량은 급감

민간자본 M&A 시장 성장세



- ◆ 2014년 대형 M&A 거래가 다수 이루어짐.
- (유통) 태국 BJC 그룹, Metro Vietnam 인수
- (부동산) 일본 Creed Group, Nam Bay Bay 인수
- (제과) 미국 Mondelez International, Kinh Do 인수 등

12

kotra

2014 베트남 경제 10대 뉴스

베트남 금융업계는 여전히 침체국면



- ◆ 전체 금융업계의 신용도는 2013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신용도 회복 속도가 지지부진
- ◆ 정부의 금융계 통폐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부실채권 비율 증가, 이는 중소기업들의 자금 운용 및 경쟁력 제고에 막대한 영향

증권시장은 큰 폭 성장세



- ◆ 2010년 이후 최초로 VN-Index 지수가 600 돌파하여, 시장유동성이 크게 성장
- ◆ 글로벌 거시경제 안정화와 베트남 경제의 잠재성에 대한 신뢰 제고로 외국인 간접투자 큰 폭 증가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 ◆ 법인세 및 금리 하락, 신용조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와 민간기업을 위한 시장 자유화 제고, 인프라 개선, 기업 경영환경 개선
- ◆ 국제 신용기관 베트남 신용등급 상향 조정
- Moody's 국가 신뢰지수 : B2 → B1 (7월)
- Fitch 장기 외화 매매 및 자국 통화 매매 발행체 디폴트 신용 등급 (IDR) : BB → B+ (11월)

13

kotra

분야별 주요 특성

● 소비재 시장

- [소득] 최저임금 70불(12)→145불(15)
- [젊은인구] 40대 미만이 인구의 70%
- [여성] 대부분 맞벌이, 여성 소득 주도
- [커뮤니티] 베트남의 판매, 구전효과

● 산업재 및 부품소재

- [첨단제품 생산공장] 삼성전자, LG전자, MS 노키아 전자제품 공장 증가
- [부품소재 산업] 글로벌 기업 베트남 기업 으로부터 부품소재 조달율 5% 미만
- [생산설비 산업] 생산설비, 산업용 로봇, 상용차, 공구 등의 자체생산을 매우 저조

● 건설플랜트 등 조달시장

- [정부의지] 경기부양을 위한 기간시설 투자 매우 적극적
- [대형국책사업] 석유화학공단, 메콩강 개발 등의 대형사업 추진 중
- [조달시장] 142억불(12)→203억불(14)

● 서비스 시장

- [물류] 2020년까지 7350km 도로 확장
- [오프라인 유통] 프랜차이즈, 대형매장 증가
- [온라인유통] 매출 연간 30% 증가
- [통신] 4G 서비스 시장 본격 시작

Contents

1. 베트남 개관 및 경제현황

2. 베트남 시장 개요

3. 한국-베트남 FTA 는 진행형

4. 활용 전략

한-베 FTA 의의

▶ 수출·투자 선순환을 통한 상생형 FTA

- 베트남은 우리기업의 밸류체인에 있어 핵심적인 조립·가공단지 역할 수행국
 - 현지투자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수출 비중 다대
- 합성수지, 편직물, 아연도강판, 자동차 부품 등 주요 소재부품의 관세 철폐
 - 우리기업의 중간재 수출증가, 베트남의 FDI유치 확대 및 대외 수출 증가 효과 다대

▶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親중소기업 FTA

-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품목 다수 개방 [섬유, 자동차 부품 등]
- 원산지 절차 및 증명서 발급요건 완화로 중소기업 수출활용률 제고 도모
 - 중소기업 FTA 수출 활용률 [14.8] : 미국 69.3%, EU 77.8%, 아세안 33%

한-베 FTA 구성

서문 및 총 17개 챕터(부속서 포함)로 구성

상품관련

- ① 상품 ② 원산지(PSR포함) ③ 통관 및 무역 원활화
④ 무역규제 ⑤ SPS [위생·검역] ⑥ TBT[기술장벽]

서비스·투자

- ⑦ 서비스(금융·통신, 자연인의 이동 부속서 포함)
⑧ 투자

규범·협력

- ⑨ 지재권 ⑩ 경쟁 ⑪ 투명성 ⑫ 전자상거래*
⑬ 경제협력

총칙

- ⑭ 최초규정 및 정의 ⑮ 예외
⑯ 분쟁해결 ⑰ 제도 및 최종 조항

· 베트남 최초로 양자 FTA에서 별도 챕터로 채택

한-베 FTA 분야별 주요 내용

● 상품

- ▶ '12년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 94.7%, 베트남 92.2% 자유화 수준 합의
 - 베트남은 현재 86.2% 양허, 한국은 91.7% 양허(수입액 기준)
- ▶ 베-일 EPA 발효[09]로 인한 한국기업의 가격 경쟁력 불리 해소
 - 일본보다 2.1%p 높은 수준의 자유화
 - 타이어, 면직물 · 편직물, 철도 차량부품 등
- ▶ 농수산물 시장의 민감성 고려, 다양한 예외적 수단 확보
 - 양허제외 : 쌀, 고추, 양파 등
 - 10년철폐 : 열대과일(구아바, 망고 등), 마늘(건조/냉동), 생강(건조/기타) 등
 - TRQ : 새우 등

한-베 FTA 분야별 주요 내용

● 원산지

● [원산지 규정] 한-아세안 FTA 대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개선

농수산물	신선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 생산기준(WO)을 유지하되, 가공 농수산물 중 우리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기준 [세번변경 기준 혹은 부가가치 기준]·백일의 비율 제고 [예 : 가당연유, 유당 등]
섬유 · 의류	대부분 한-아세안 FTA 기준과 동일하게 합의하였으며, 기타 섬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축성 합의 [예 : 커튼, 모포 등]
기계, 전기 · 전자	우리의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한-아세안 FTA상 기준보다 더 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 기준(40%)으로 합의 [예 : 세탁기, 냉장고 등]
자동차	완성차는 한-아세안 FTA기준과 같이 부가가치기준(RVC45%)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다수 추가하여 업계 편의 제고 [예:기어박스, 차축 등]

- [역외가공지역] 개성공단 생산 100개 품목 신규 선정
- [사전심사] 수출자, 생산자도 품목분류/관세평가/원산지 사전 심사 신청
- [원산지증명] 600달러 이하 물품 원산지 증명 면제(· 한-아세안 FTA 200달러 이하)

한-베 FTA 분야별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지식재산권

▶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영구화 명시적 합의

- 전자인증서명,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종이 없는 무역 등 비강행 규정 반영
- 양국간 전자상거래 촉진 기반 구축

▶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서 WTO 지재권 협정 이상의 보호확보 및 권리침해 구제장치 마련

- [저작권] 권리자(저자,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배타적 복제권 보장 및 보상청구권 부여
- [상표권] 유명상표는 등록 전에도 보호, 상표 출원과정 공개, 제품포장의 형상도 상표로 보호
- [특허권] 특허공지 예외 요건 완화로 거절된 출원의 구제 용이

상품 양허 협상 결과 요약

구분	한국				베트남			
	품목수(개)		2012 대비 수입액(불)		품목수(개)		2012 대비 수입액(불)	
전제	12,232		5,717,642,288		9,558		15,508,115,790	
한-아세안 FTA	11,168	91.3%	5,244,641,856	91.7%	8,256	86.4%	13,374,086,145	86.2%
무관세	4	0.0%	0		65	0.7%	179,932,363	1.2%
즉시철폐	87	0.7%	72,329,754	1.3%	-		-	
3년 철폐	216	1.8%	12,930,981	0.2%	14	0.1%	267,503,326	1.7%
5년 철폐	134	1.1%	43,140,259	0.8%	47	0.5%	19,069,941	0.1%
7년 철폐	7	0.1%	2,997,948	0.1%	30	0.3%	34,011,231	0.2%
10년 철폐	48	0.4%	40,195,248	0.7%	106	1.1%	405,553,016	2.6%
15년 철폐	3	0.0%	242,052	0.0%	3	0.0%	11,173,386	0.1%
소계	495	4.0%	171,836,242	3.0%	200	2.1%	737,310,900	4.8%
총합계	11,667	95.4%	5,416,478,098	94.7%	8,521	89.2%	14,291,329,408	92.2%

· 한-아세안 FTA상 일반품목(normal track)의 경우, 우리측은 관세철폐가 완료되었고, 베측은 품목수 기준 '15년에 90%, '16년 95%까지 관세철폐되어, '18년에 무관세 적용 예정

· 한-베 양측은 예외없이 모두 선형철폐 : 매년 일정비율(1/N)씩 감소

상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한국 양허		양허단계 (8종류)	베트남 양허	
주요품목	품목수 (506)		품목수 (265)	주요품목
실뱀장어, 치어, 종패용 등	4	즉시 철폐 (무관세)	65	화물자동차, 펌프, 철근, 공기조절기, 기타정밀화학원료, 기타철강금속제품, 냉연강판, 복합비료, 봉강, 사료, 아연도강판, 열연강판, 의약품, 원유 등
면사, 모사, 남성바지/셔츠, 방모사, 방모직물, 브라우스, 생지, 섬유판, 양말, 신사복, 순면사, 언더셔츠, 여성정장, 잠옷, 장갑, 코트 및 자켓, 파티클보드, 합판 등	87	즉시 철폐 (유관세)	-	-
가자미, 갯장어, 건전지, 건조어란, 경유, 곡류가공품, 기타고무제품, 기타농산가공품, 석유제품, 시멘트, 난류, 납치, 발효유, 방어, 자전거, 자전거부품, 제트유, 피조개, 헤어린스, 필름 등	216	3년 철폐	14	기타영사기, 나일론직물, 부직포, 순면직물, 재생단섬유직물, 편직물, 폴리에스터 단섬유직물, 혼방면직물
가오리(냉동), 간장, 조제 감자, 고구마, 과일주스, 기타과실, 잼, 두부, 향미용조제품, 조제소라, 조제오징어, 기타소서류, 정밀화학원료, 기타주류, 기타조개, 섬유, 복어, 먹장어, 당면, 쌀과자, 생선묵, 선박용 부품, 성게, 쌀가루, 에틸렌초산비닐, 위스키, 인삼음료, 저밀도에틸렌, 조제문어, 피조개, 캐슈넛, 파티클보드 등	134	5년 철폐	47	음극선관모니터, VCR, 계전기, 골판지원지, 기타생활용품, 기타식탁용구, 기타유리제품, 기타직물, 유아용조제식료품, 무선통신기기부품, 믹서, 변압기, 순면직물, 스위치, 신발부분품, 자동차부품, 전동기, 전선, 전신기기, 카스테레오, 컴포넌트, 편직물, 합성수지, 항공기부품, 혼방면직물 등

21

kotra

상품 양허 단계별 주요 품목

한국 양허		양허단계 (8종류)	베트남 양허	
주요품목	품목수 (506)		품목수 (265)	주요품목
기타전선, 통신용전선, 합판	7	7년 철폐	30	가열난방기(철강제 조리기구), 커피탕기, 비금속제 경첩, 보온밥통, 변압기, 볼트/너트, 선재, 원동기, 의약품, 자전거부품, 전동기,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열대과일(구아바/망고/망고스틴/바나나/파인애플 등), 기타 과일주스, 기타 동, 난초/국화 등 화훼, 마늘(건조/냉동), 생강(건조/기타), 섬유판, 베어링, 기타어류(냉동), 기타개(냉동), 기타해조류, 호도(탈각/선선 건조), 전갱이, 틸라피아 등	48	10년 철폐	106	화장품(스킨로션/파우더 등), 가열난방기, 가형주파증폭기, 건축용목제품, 계전기, 스위치, 모터, 기타고무제품, 전기밥솥, 냉장고, 라디오, 동조가공품, 복합비료, 세탁기, 순면직물, 승용차(3,000cc 초과), 안전유리, 아연도강판, 에어컨, 원동기, 자동차부품, 전선, 전자레인지, 식기세척기, 축전지, 칼라TV, 크라프트지, 타이어, 펌프, 토스터기, 필름,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합성수지,
고구마전분, 천연꿀, 팔(종자용외)	3	15년 철폐	3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새우(냉동/가공)	7	TRQ	-	-

22

kotra

베트남의 기 체결 FTA

No	구분	주요 일정	주요 내용
1	아세안 10개국 자유무역협정 (AFTA)	1993. 01. 01 자유무역지대 창설 합의 2010. 05. 17 ASEAN 물품 무역협정 (ATIGA) 발효	· ASEAN 10개국에서 생산된 여러 물품의 관세가 대폭 인하됨
2	호주·뉴질랜드· 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ANZ-FTA)	2009. 02. 27 자유무역지대 창설 합의 2010~ 2012 협정국 참여	· 약 90%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 뉴질랜드, 호주가 주장하는 소·양고기 우유·유제품 등에 대한 관세를 2016년까지 폐지 · 대부분의 농수산물에 대한 EHP(조기수확 프로그램) 적용
3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AC-FTA)	2005. 01. 01 아세안 상품협정 발효 2007. 07 서비스협정 발효 2010. 02. 15 투자협정 발효	·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단계적 관세 철폐 · 일반 품목: 약 90%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2015년까지 0% · 민감품목: 교통, 석유, 철강, 건설자재, 전자기기, 종이, 섬유/의류 - 민감품목에 관한 관세는 2015년까지 20%로 인하, 2020년까지 0~5%로 인하 · 초민감 품목 관세는 2018년까지 50% 인하
4	한-아세안 자유무역 협정 (KA-FTA)	2006. 06. 01 상품무역협정 발효 2009. 05. 01 서비스무역협정 발효 2009. 09. 01 투자무역협정 발효	· 총 8,909개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 협상 - 2016년까지 단계적 관세 철폐 및 일부 품목은 2018년까지 철폐 · 민감품목: 2,137개 2017년까지 20%, 2021년까지 5%로 인하 · 초민감 품목: 1,282개 품목, 5개 그룹으로 분류 단계적 철폐

23

kotra

베트남의 기 체결 FTA

No	구분	주요 일정	주요 내용
5	ASEAN-일본 포괄적 경제연계협정 (AJCEP)	2008. 12. 01 경제 연휴협정 서명 2010.07.01 상품무역협정 발효	· 베트남의 對일본 의류·신발 수출시 중국에 비해 관세 혜택을 받을 것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의류에는 10%의 관세 부과, 중국에서 수입하는 의류에는 15~20%의 관세 부과)
6	ASEAN-인도 자유무역협정 (AIFTA)	2003 경제협력 기본협정 체결 2010. 01. 01 상품무역협정 발효 서비스·투자무역협 정 협상	· 섬유, 신발, 목재 및 목재가공품, 수산물, 석탄, 고무, 철강에 대한 베트남 관세 특혜
7	베트남-칠레 자유무역협정 (VCFTA)	2011. 11. 11 상품무역협정 체결 2014. 01. 01 상품무역협정 발효	· 베트남산 섬유, 해산물, 커피, 차, 컴퓨터 및 부속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3~15년에 걸쳐 인하·폐지
8	베트남-일본 자유무역협정 (VJFTA)	2008. 09 자유무역창설 합의 2009. 10. 01 무역협정 발효 합의	· 대부분의 품목에서 관세 인하 혜택이 있을 것임. 특히 의류, 신발, 컴퓨터, 가전기기 제품에 관한 제품의 관세 인하

24

kotra

베트남의 협상 중 FTA

No	구분	주요 일정	베트남측에 유리한 관세	협정국측에 유리한 관세
1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	2010.11.13, 베트남 협정 참가 2015.06, 체결 전망	· 안포워드 규정 적용에 따라 관세 30~50%에서 0% 철폐 · 미국, 캐나다, 페루, 일본에 대한 농산물(쌀 등) 관세 인하 · 철강 제품 등	· 축산물 · 약품, 지적재산권,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 국영기업, 민간기업, 외국기업 간의 공평성 확보 - 서비스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제외
2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 (ASEAN+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 (RCEP)	2012.11.20 16개국 협상 시작 2015년 말 협상 타결 예상	· 표준화된 원산지 규정을 제시, 원산지 양허 관세 수혜율이 높아질 전망 · 섬유 · 의류 제품	· 서비스 · 투자 분야 · 단순 상품무역 자유화를 넘어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3	베트남-러시아 관세동맹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VCU-FTA)	2013.03.28, 협상시작 2014.12.15, 협상타결 2015년 초, 체결 전망	· 농산물, 해산물, 의류, 신발, 원목 제품	· 축산물 · 기기 · 장비 · 교통수단

25

kotra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베트남의 협상 중 FTA

No	구분	주요 일정	베트남측에 유리한 관세	협정국측에 유리한 관세
4	베트남-유럽 자유무역 연합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E-FTA)	2012.5, 협상 시작 2014.11, 10차 협상 2015년 초, 체결 전망	· 의류, 신발 · 농수산물, 식료품	· 공산품, 기계, 약품, 수산물, 에너지 · 산업 보조설비
5	베트남-유럽 자유무역 협정 (EV-FTA)	2012.10, 협상 시작 2014.10, 10차 협상 2015년 초, 체결 전망	· 섬유 및 신발 · 농산물, 수산물, 식료품	· 첨단 · 전자기기, 첨단산업기기 · 자동차 산업 · 와인, 약품, 가공식품

26

kotra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Contents

1. 베트남 개관 및 경제현황

2. 베트남 시장 개요

3. 한국-베트남 FTA는 진행형

4. 활용 전략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주요 양허 품목별 진출 방안

● 고급 / 소형 가전 現 수입관세율 : 20~35%

● 시장특성

- 일본, 유럽 등 글로벌브랜드 생산기지이며, 아세안과 중국 제품이 높은 점유
- 한국산(20~35%), 아세안(0%), 중국(10%) 순으로, 한국제품 관세 불이익
- 한국 브랜드 제품은 베트남 현지 생산 제품 대부분, 대베트남 수출규모 미약

● 최근동향

- LG, 삼성 등 현지 조립생산 브랜드 중심 한국 브랜드 이미지 확고화
- 현지 중상류층 소비자 중심, 고급사양의 냉장고, 세탁기, TV 등 관심 증대
- 기존 아세안산 수입 완제품(Hitachi, Electrolux 등 0~5% 관세특혜 수혜 중
- 최근 한국산 전기밥솥, 전기다리미, 믹서기 등 수입 증가 추세

● 진출방안

- 고급 가전제품의 관세 철폐, 인하시 기존 아세안 국가 제품과 경쟁력 갖춰
- 현대식 유통채널 증가, 일본/유럽과 경쟁 위한 A/S 등 차별화 마케팅 전략
- 한국제품의 안정적인 품질은 중국/아세안 제품보다 우수하다 평가됨

주요 양허 품목별 진출 방안

● 화장품(스킨케어) 現 수입관세율 : 10~20%

● 시장특성

- 화장품에 대한 상세 제품정보 부재, 중국산 위조, 저품질 화장품 유통 빈번
- 평균연령 30대 초반 젊은 인구구조, 뷰티/패션 시장 연 20% 이상 증가율
- 한국제품은 고급제품 분류되나 미국, 유럽, 일본산 제품에 대한 충성도 높음

● 최근동향

- 중국, 아세안 등 경쟁국 대비 높은 관세물구, 한국제품 시장점유율 1위
- 한국산 화장품의 對 베트남 수출은 '11~13년 연평균 17% 성장세
- 태국산 스킨케어 제품은 특혜관세 수혜, 급속히 시장점유 확보중

● 진출방안

- 수입관세 철폐로 프리미엄 제품 주요 공급처인 일본, 미국, 유럽과 경쟁가능
- 관세철폐로 인한 현지 수입업체, 딜러의 제품 선택 폭 확대, 기회 부여
- 한류를 통한 마케팅 강화로 현지 젊은이들의 뷰티 트렌드 선도 지위 확보

주요 양허 품목별 진출 방안

● 유아용 조제식품(분유) 現 수입관세율 : 10%

● 시장특성

- 매년 100만명 이상 신생아 탄생, 소득 증가에 따른 보육에 대한 관심 증대
-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덴마크 등 다수의 제품 경쟁체제
- 한국산 제품 유럽산, 미국산 제품에 비해 브랜드 인지도 떨어져(2~3% 점유)

● 최근동향

- 아세안 국가 원산지 제품은 저관세 (5%)에 힘입어 시장확대 추세
- 2013년 베트남 유아용 식품 성장률은 16%를 달성하는 등 구매력 확대 추세
- 2013년 한국산 제품의 베트남 수출규모는 600만달러에 불과, 수출국 중 8위

● 진출방안

-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저조 불구, 한류 효과로 인한 제품인지도 제고가 가능
- 현재 아세안 원산지 제품대비 20% 높은 가격 형성, 관세 철폐시 경쟁력 제고
- 유럽 및 한국제품 신뢰도 높은 젊은층 대상 중저가 상품 마케팅 바람직

주요 양허 품목별 진출 방안

● 상용차 (트럭) 現 수입관세율 : 10%~68%(5~45톤)

● 시장특성

- 인프라 미비로 인한 각종 신규 건설프로젝트로 인해 상용차 수요 증가추세
- 중국산 차량 품질이 떨어지거나 낮은 가격으로 일반 사업체에서 여전히 선택
- 한국 상용차는 우수한 품질로 인해 현지 인지도 상당히 높은 편

● 최근동향

- 2013년 상용차 수입액 6억달러 규모, 1위 중국(35.8%점유), 2위 한국(25.6%)
- 버스의 경우 한국은 최대 수출국, 5.6백만달러 수출로 전체시장 51% 점유
- 2014년 베트남 정부의 트럭 적재량 규제로 인해 트럭 수요 급증 추세

● 진출방안

- 한국산 관세 철폐시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독보적 지위 구축 가능
- 현대기아 이외 중소 한국 제조사 베트남 기업과의 파트너십 진출 가능성 증대
- 일부 베트남 수입상, 기존 중국에서 한국 제조사로 수입선 교체 움직임

주요 양허 품목별 진출 방안

● 타이어 (버스 및 화물차용) 現 수입관세율 : 10~25%

● 시장특성

- 중고 타이어 사용이 빈번하나, 정부 규제강화로 신규 타이어 시장 확대
- 화물차 및 버스 차량 증가로 인해 국내 수입타이어 수요 또한 동반 증가
- 태국, 중국, 인도로부터의 수입타이어 비율이 약 90% 이상 차지

● 최근동향

- 2013년 수입타이어 수입규모는 2억 달러 규모, 승용차 타이어 시장의 2배
- 태국 수입타이어(미쉐린, 브리지스톤)는 낮은 관세율(5%)로 시장 선점
- 우리나라의 2013년 對 베트남 수출은 3.2백만 달러로 제5위 수입대상국

● 진출방안

- 한국산 타이어 인지도 확대추세, 현대기아 완성차 수입증가로 교체수요 기대
- 관세 철폐시 태국, 중국 제품과 경쟁가능, 시장의 상당부분 진입 가능성 높음
- 버스 및 상용차 완성제품과 공동 시장 진출 시 상당히 유망

주요 양허 품목별 진출 방안

● 자동차부품 (기어박스) 現 수입관세율 : 10%

● 시장특성

- 베트남 내 조립 생산을 위해 해외로부터 기어박스를 CKD부품으로 수입
- 완성차 제조용은 현지 글로벌 브랜드들이 자국 생산품 현지 수출구조
- 현지 차량 생산대수가 아직 제한적이어서 베트남 자체 생산이 어려움

● 최근동향

- 중국산의 베트남 수출이 크게 증가, 한국산은 2012년부터 감소추세
- 한국산의 베트남 수출 점유율은 2% 머물러, 현지 생산공장 유무가 수출 영향
- 브레이크와 기타 부품류 수입은 외투기업 본사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

● 진출방안

- 자동차 조립제조사 이외 트럭용 A/S 마켓용 수요 확대 가능성 높음(현지합작)
- CKD 핵심부품으로 현지 조립제조사 공급, 관세 인하로 인한 생산비 절감효과
- 현지 상용차 부분 완성차 공장 및 일부 외국계 제조법인 납품 가능

베트남 주요 반응

● 베트남 주요 언론 반응

● Vietnam Economy News

베트남과 한국 간의 통상교역의 상호 보안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 VTV(제1국영방송)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좋은 품질의 원부자재를 쉽게 공급받게 될 계기...

● Vietnam Investment News

한-베 FTA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글로벌 가치사슬에 참여시킬 것이고, 베트남으로의 신규 FDI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 베트남 주요 바이어 반응

● Nguyen Kim (전자 수입유통)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되는 완제품의 경우 4~5%의 관세혜택,
한-베 FTA로 관세철폐 시 이들 제품과의 가격경쟁에 큰 도움될 것으로 판단...

● GIA Nguyen Cosmetics (화장품 수입유통)

태국, 싱가포르화장품은 무관세, 한국화장품은 평균 24% 관세, FTA 빅찬스...

● Phuc Thien (자동차 부품 수입유통)

태국에서 수입되는 타이어(미쉐린, 브리지스톤)가 5%대 낮은 관세로 높은 시장점유,
Made-in-Korea의 높은 품질력으로 충분히 경쟁 가능...

한국 양허품목 수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 사업 강화

베트남엑스포 2015 한국관

- ◆ 일시/장소 : 2015.4.15~18(4일간)/하노이 장보전시장
- ◆ 연혁 : 1990년 최초 개최, '15년 기준 25회째 개최 예정
- ◆ 규모 : 20,000 s/m, 750부스(해외기업 350부스내외)
- ◆ 참가국수 :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등 20 여개국 참가
- * '14년에 한국관 61개사, 개별 9개사 (총 70개사)

[한국일류상품전] Korea-Vietnam FTA Show 2015

- ◆ 일시/장소 : 2015.11월 / Lotte Center Hanoi(잠정)
- ◆ 연혁 : '14년 K-V pre-FTA Show in Hanoi 최초 개최
- ◆ 규모 : 1,000 s/m, 50부스 내외
- ◆ 주요품목 : 생활가전,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 수혜품목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

- ◆ 목적 : 물류비 절감 및 납기 단축을 통해 시장진출 확대
- ◆ 시기 : 2015년 2월중 개소
- ◆ 지역 : 하이퐁 또는 하노이 부근
- ◆ 효과 : FTA로 관세인하 및 물류/배송비 경쟁력 강화 기대
한편, 베트남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확대도 기대
- * 하노이무역관은 현지 유력 대기업인 VIN 그룹의
온라인 쇼핑몰에 한국상품 입점을 추진중

34

kotra

증가하는 투자진출 기업을 위한 입체적 지원 확대

더불어 함께, Good Korea Initiative

- ◆ 베트남 사회와 동화하는 투자진출 기업 이미지 제고
- ◆ 기업연계 CSR, 한류스타 CSR 등 우리기업, 정부, KOTRA가 공동으로 CSR 활동 강화

소비재, 부품소재 내수시장 공략 강화

- ◆ (소비재) 베트남 유통망 활용 진출기업 마케팅 지원
- ◆ (부품소재) 베트남 진출 다국적 기업을 위한 부품소재 아웃소싱 역건본시

확대국면 투자진출 투자 종합 지원

- ◆ (통합상담회) 토지임대비, 인력고용 등을 고려한
베트남 10여개 각 지방성 투자환경 비교 설명회
- * 베 총리(경제부총리), 10개 지방성 성장 등 고위급 참여
- ◆ (Korea Desk) 베트남 정부, 지방성에 한국 투자기업
지원 전담창구 개설 : [14] 2개 → [14] 4개 → [15] 8개

FTA 경험 사업 작수

- ◆ (개발경험공유) 면직/편직물, 완성차/부품 등의 시장
확대, 섬유집적단지, 자동차부품전용공단 등에 대한
개발경험 공유(CSV)

35

kotra

감사합니다.



한-호주 FTA 주요내용 및 활용전략

시드니 무역관장

한-호주 FTA 주요 내용 및 활용전략

2015.1

KOTRA 시드니 무역관

CONTENTS

- 1 국가 개요
- 2 한-호주 FTA
- 3 호주 시장
- 4 FTA 시대, 호주시장 진출전략

1

국가 개요



1. 국가 개요

- 면적 : 미국 및 유럽과 비슷(세계 6위), 한반도 35배 남한 80배
- 인구 : 2,300만명
- 산업 : 서비스 79%, 광업 11%, 제조업 8%, 농림수산업 2%
- GDP : US\$ 1조 4,800억(세계 12위, 한국은 13위)
- 1인당 명목 : US\$ 6만 3천, (세계 5위, 한국은 29위)
- 수출 : US\$2,529억(세계 21위), 수입 : US\$2,327억(세계 19위)
* 한국 7위, 9위
- 동부 해안지대에 인구.경제력 집중
- NSW(시드니), 빅토리아(멜버른),
퀸즐랜드(브리즈베인) 3개주가
인구 77% GDP 72% 차지



1. 국가 개요(계속)

■ 한국-호주 교역 현황

-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국, 6위 수입국:

수출: 중국, 일본, 한국, 미국, 싱가포르, 인도 순

수입: 중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순

- 호주는 한국의 12위수출국, 6위 수입국

- 한국은 對호주 만성적 무역수지 적자 시현

수출(US\$억) : 93('12)→96('13)→87('14.1-10)

수입(US\$억) : 230('12)→208('13)→174('14.1-10)

- 1차 상품 수입, 공산품 수출 구조 때문

수입의 85%가 철광, 유연탄 등 에너지와 광물

2

2

한-호주 FTA

2. 한-호주 FTA

- 2014.4일 서명, 12.2일 비준, 12.12일 발효
 . 14.12.12일 1차 관세인하, 2015.1.1일 2차 관세 인하
- 호주는 5년, 한국은 10년 이내 수입관세 철폐
 . 품목수 기준 : 호주 100%, 한국 94.3%
 . 수입액 기준 : 호주 100%, 한국 94.6% *호주 평균관세율 5%

	한국 관세 폐지		호주 관세 폐지	
	품목수	비중	품목수	비중
즉시	8,940	75.2	5625	90.8
3년	1,019	8.6	115	1.9
5년	564	4.7	414	6.7
7년/8년	...	...	...	...
10년	11,201	94.3	6,186	100

3

2. 한-호주 FTA(계속)

- 호주의 관세 폐지일정별 주요 공산품

즉시	자동차(가솔린 중소형, 디젤화물..), 타이어, TV, 냉 장고, 합성고무, 열연강판, 직물, 가죽, 문구, 섬유사, 카스테레오...	5,625개
3년	자동차(디젤 중대형, 가솔린 대형...), 자동차 부품(기 어박스, 차체부품...), 고무벨트, 밸브...	115개
5년	도금강판, 필름, 판지, 의류, 양발, 신발, 축전지, 안전 유리, 새시, 석면제품, 계측기, 베어링...	414개
8년	양탄자, 의류(남성바지, 신사복, 양상블...)...	3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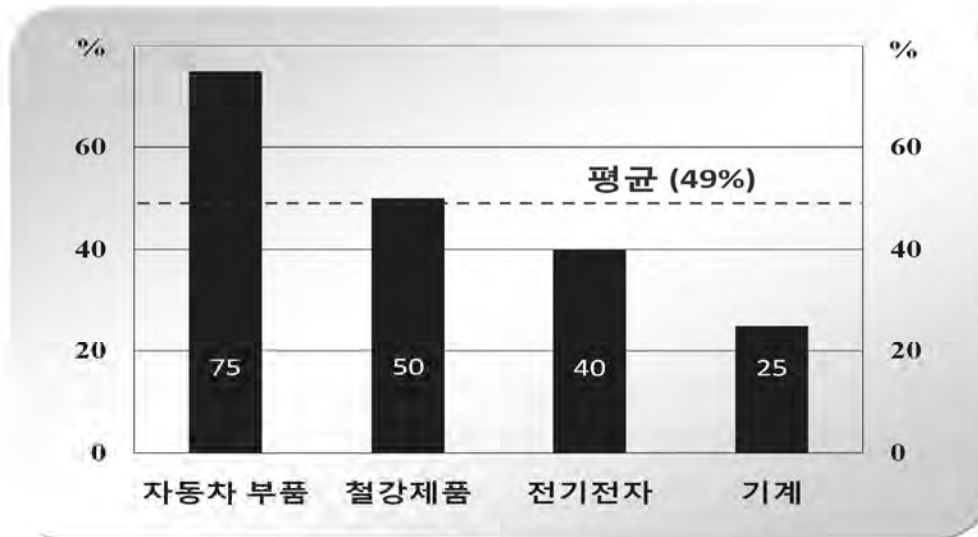
- 모든 농수산물 발효즉시 관세 폐지 : 김, 참치...
- 정부조달 시장 개방 : 일정금액 이상 직접 참여 가능
- 대호주 투자 사전 심사.승인기준액 상향 : 10억 호주달러

4

2. 한-호주 FTA(계속)

▪ KAFTA에 대한 호주의 반응

- . 14년중 한.중.일과 FTA 타결→아시아기업에 대한 관심 ↑
- . 바이어 절반이 대한 수입물량 확대 의사



5

2. 한-호주 FTA(계속)

. 산업별 단체의 한-호 FTA 의견

 에너지 관련제품*	한국 제품 수입 늘어날 것이나 호주내 생산이 미미해 국내산업의 큰 거부감 없음
 섬유, 의류	한국·일본보다는 중국과의 FTA 우려
 일반 소비재	한·중·일 FTA 모두 우려
 LED, 조명기기	국내생산 미미. 중국산 비중이 높는데 전환 가능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 폐쇄와 겹쳐 한국산 수입 급증에 우려
 엘리베이터 산업	인증, 통관절차 간소화 기대

* 태양광, 스마트미터, 에너지 절감 제품

6

3

호주 시장



3. 호주 시장

① 시장 특징

- 광업: 호주의 투자와 수출 주도산업
 - 민간투자의 17% 차지 → 건설, 인프라 등 연계 투자. 수요 활발
 - 광물이 호주 상품 수출의 83% 차지 → 경제구조가 안정적

주요 광물

석탄	매장 4위, 생산 4위, 수출 1위
철광석	매장 4위, 생산 3위, 수출 1위
천연가스	매장 9위, 수출 5위
우라늄, 니켈, 아연	매장 1위
금, 망간	매장 3위

3. 호주 시장(계속)

- 제조업 취약, 높은 인건비 →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
 . 12년말부터 제조업 잇단 구조조정 : 포드, GM홀덴, 도요타(자동차)
 Bluescope(철강), Kimberly Clark(휴지 및 위생용품), BP(석유화학),
 Alcoa(제련) 등
- 수입에서 아시아 3국 비중 지속 증가 : 1/3 수준
- 광대한 면적 및 미흡한 인프라로 유통·물류업체 영향력 큼
- 아시아계 시장 존재로 초기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
 . NSW 인구중 해외출생자 비중 : 30%

⇒ **급락 위험성이 적은 기회의 시장**

8

3. 호주 시장(계속)

② 최근 경제동향

- 국제 광물가격 하락으로 12년 이후 성장 둔화되었다가 14년부터 다시 회복
- 민간소비는 호조 지속, 소비재 시장은 견고한 성장 유지
 . 대형 의류잡화, 화장품, 주방용품, DIY 매장 확대세
- 경기침체 사전 방지위해 13년부터 중소 인프라 국책사업 계속 발표
 . 공항 확장, 도심관통도로, 통신인프라 개선 프로젝트



⇒ **중간재 일시 위축 불구 소비재는 지속 성장**

9

4

FTA 시대, 호주시장 진출전략



4. FTA 시대, 호주시장 진출전략

① FTA 활용 유망품목

통신

정부의 국가 광대역 광통신망 구축 프로젝트(NBN) 및 이에 대한 민간통신사 통신망업데이트 프로젝트 진행으로 12년이후 수요 지속 증가중

전선, 광섬유 케이블, 광통신 부품	- 교체 수요 시기 도래 - 중국산 50%이상, 다국적기업들 현지생산중 - 호주스펙 준수, 물류 대응, CommunicAsia 참가
결제시스템 등 솔루션	교통수단 현대화(교통카드 도입), 금융 및 유통업 운영, 정부·교육기관 근대화 등으로 수요 증가
통신기기 액세서리	- 수요 지속 증가속 온라인 판매도 본격화 시작 - 중국산 품질 안정성 문제로 수리 부담 늘어나 한국산 관심 바이어 증가

4. FTA 시대, 호주시장 진출전략(계속)

전기·전자 가격경쟁이 매우 치열, FTA 효과 기대 가능

가전제품	· 가격 경쟁력 치열, 일본·유럽·한국산 경쟁중 · 브랜드 불문, 원산지 경우 중국산 점유율 높음
소형 납축전지	· 산업용 위주에서 탈피, 소비재용 수요(보안장치, 완구..)가 늘어 다양한 사양 보유 한국기업 유리 · 소수 소매상 시장 장악, 안전라벨과 포장 중요
공기청정기 및 필터류	· 건설프로젝트 대부분 공기청정기 필터 의무화로, 수요가 꾸준, 한국산 60% 이상 차지
조명기구 (일반, LED)	· 중국산 시장의 2/3, 미국 유지, 유럽 감소세 · 한국산은 가정이 아닌 산업용이 주시장
보안장비	· 시장 지속 확대중이나 경쟁은 격심, 특히 중국
태양광 제품	· 주택용은 중국산 약 90%, 유럽과 미국이 나머지 시장에서 경쟁중

11

4. FTA 시대, 호주시장 진출전략(계속)

건축자재 건설경기 회복세로 관련 자재수요 동반 상승

- 건설업, 식품 가공 산업(패키징)의 알루미늄 자재 수요 증가
 - 호주산 강세나 생산규모 감소, 해외소싱 확대중. 일본은 선점효과
- 원가절감 위해 산업용 금속제품(못, 너트)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
 - 볼트, 너트는 수입이 50% 이상이며 수입 비중 급증세
 - 중국산 가격이 워낙 저렴, 일본·대만산과 경쟁 고려
- 위생관심으로 기존의 카펫 바닥재 수요 감소, PVC 바닥재 수요 증가
 - 가격경쟁 치열해 관세인하 효과 있을 것
 - 한국산은 비가정용(학교, 병원, 상점 등)에 진출 두드러져
 - 불연(fire prevention), 미끄럼방지, 자외선차단 기능 부각 중요
- 가스오일 프로젝트 진행 등으로 가스 및 오일용 파이프 수요 증가,
 - 호주내 생산 전면중단으로 8년전부터 본격적 수입 시장
 - 초기 저렴한 중국산 인기, 이후 저품질로 수입 증가세 둔화

12

4. FTA 시대, 호주시장 진출전략(계속)

기계	여러 산업 공장폐쇄/감축으로 신규 수요 위축 광산과 인프라 관련 수요만 완만하게 유지
중장비, 펌프	. 현지 생산 거의 없고 수입. 일본 및 미국산 강세
자동차 부품	. 완성차 연간 100만대 시장으로 국내산 비중 1/3 . 국내 3사 공장 폐쇄로 정품시장 진출은 급격 위축 . 한국차 판매증가로 A/S 시장 수요 증가
석유·화학	석유화학 공장이 4개 있으나 설비 노후화 및 추가 투자가 없어 수입 증가세
폴리스티렌	. 단열재, 포장재, 네온사인용 수요 급증, 아시아산 증가세 . Expanded Polystyrene Australia 품질기준 사전 준수
계면활성제	. 시장지배브랜드 없음. 중국산은 PB 시장 공략 . 산업용으로 진출 여지가 크며 가정용은 유통체인 공략

13

4. FTA 시대, 호주시장 진출전략(계속)

식품, 생활소비재 한류에 따른 인지도 상승, 아시아시장 확대
로 수요 증가 예상

이미 시장에 소개된 중국, 태국음식을 뒤이을 새로운 식품 찾는중
. 대형 슈퍼마켓 체인 공략이 절대적(Coles, Woolworths...)

건강 의식 제고로 천연재료 소재의 음료 시장 확장중
. 음료시장 70% 이상을 호주와 뉴질랜드 브랜드 차지
. 대형 슈퍼마켓 체인 공략이 절대적(Coles, Woolworths...)

아시아계 젊은층 중심으로 한국 화장품 인지도 상승
. 시장 자체는 3% 성장세 전망, 온라인 채널도 자리 잡는 중

주방용품의 호주 본류시장 진입이 아직 어려움

14

4. FTA 시대, 호주시장 진출전략(계속)

② FTA 활용 유의사항

- 원산지관련 규정 준수
 - 원산지 기준 : 세번변경기준(6, 4단위)과 부가가치 40% 기준 혼용 → 협정문상의 품목별 기준 숙지
 - 원산지 증명서 2년 보관 : 산업부, 관세청, 지자체의 FTA 활용지원센터 적극 활용해 관세사 지원받기
- 아시아 3국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
 - 호주는 중국 및 일본과도 금년에 FTA 타결, 곧 발효 가능
→ 이들과의 경쟁여건은 변화 없음. 발효전 선점 필요
 - * 호-일 FTA(14.7월), 호-중 FTA(14.11월)
- 호주에서 주의가 필요한 품목
 - 제조업용 소재와 중간재: 제조공장 잇단 철수로 신규 수요 급감
 - 농수산식품 : 살아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

15

(참고) 2015년 호주 주재 KOTRA 무역관의 마케팅 사업

- 대양주 무역사절단 9회(경기도, 대구, 광주, 부천 등)
- 호주 대형유통망 활용 상담회 : 한국, 하반기
- 호주 플랜트 발주.수주기업 포럼 : 호주, 하반기
- 기타 활용할만한 현지 마케팅 기회
 - Dental EXPO(4월, 의료), Cebit 2015(5월, ICT), Reed Gift Fairs(9월, 가정.생활용품), Australian International Sourcing Fair(11월, 패션잡화), Australian Utility Week(11월, 전력기기) 등

16



한-캐나다 FTA 주요내용 및 활용전략

토론토 무역관장



한국-캐나다 FTA 주요내용 및 우리기업 활용방안

kotra

토론토 무역관

2015.1.7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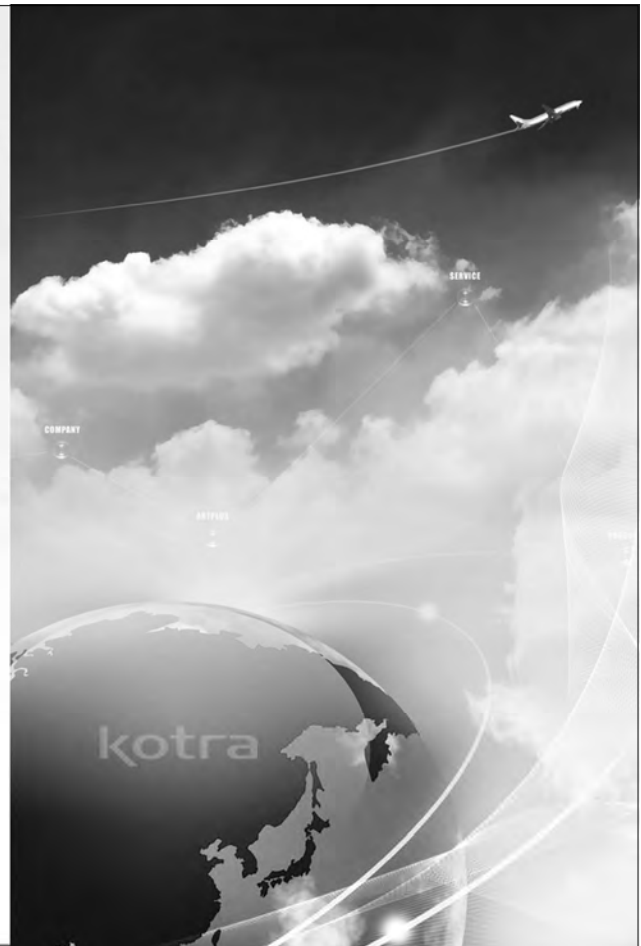
1/ 캐나다 시장동향

2 한-캐나다 FTA 주요내용

3/ 활용전략 및 사업안내

1

캐나다 시장동향



1. 캐나다 시장동향

kotra

Korea Trade Commission
Promotion Agency

❖ 지역협정(NAFTA, FTA, CETA) 확대에 따라서, 완전경쟁시장에 근접

- NAFTA(미국, 멕시코) 및 FTA(칠레 등 11개국) 국가로부터 수입비중 63.5%
- 한국, EU 등 최근(2014) 타결 국가 포함 시, 수입비중 76.3%
- 협상 중인 일본, 동남아(TPP), 중국(FTAAP) 포함 시, 사실상 자유무역 시장형성

캐나다의 수입국 현황 (단위 : US\$ 백만)

국가명	수입금액(14상반기)	비중(%)	특기
NAFTA(미국, 멕시코)	137,950	60.6	FTA 발효·체결 수입비중 = 76.3%
FTA 발효(11개국)	6,536	2.9	
FTA 체결(한국, EU)	29,090	12.8	
FTAAP (중국 등)	24,443	10.7	FTAAP 긍정적
일 본	5,994	2.6	개별·TPP
인 도	1,373	0.6	개별협상
소 계	205,386	90.3	
총 계	227,455	100.0	

1. 캐나다 시장동향



❖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선진국형 산업구조

- 부동산, 도·소매, 금융업, 숙박·요식 등 서비스업 비중증가
- 자동차, 항공우주, 생명과학 등 기술·자본 집약형 제조업, 미국과 연계(SC) 발달
- 전력, 의료, 교육 등 정부부문 GDP비중이 높은 특징

캐나다의 산업구조 (단위 : US\$ 백만, %)

구 분	GDP	비중
광산업	130,218	8.1
에너지	39,341	2.5
건설업	116,685	7.2
제조업	168,437	10.5
소계(1, 2차 산업)	484,056	30.2
도매업	87,852	5.5
소매업	85,805	5.4
금융업	107,823	6.7
부동산업	200,288	12.5
숙박업 및 요식업	33,161	2.1
소계(3차 산업)	1,115,589	69.8
총 계	1,598,734	100.0

1. 캐나다 시장동향



❖ 소비재(Competition), 산업재(Cluster), 공공재(Environment) 특징

- 소비재 : (수입)무한경쟁, 전자상거래본격 → 부가서비스, 온라인 마케팅, 틈새공략
- 생산재 : 온타리오(자동차), 퀘벡(항공), 앨버타(에너지) → 지역별 거점확보 전략
- 공공재 : 현지기업(미국 포함) 경쟁우위 지속 → 벤더협력, A/S Reference 확보

캐나다 시장구분 및 주요특징

구 분	소비재	산업재	공공재
시장구조	✓ 높은 수입 의존도 ✓ 가격·품질 무한경쟁 ✓ 시장제약 (36백만명)	✓ 클러스터 시장구조 ✓ 북미 Supply Chain ✓ 누가 서비스 중시	✓ 현지(캐나다), 미국주도 ✓ 이원화(연방vs지방) ✓ 보수적(관행중시)
최근동향	✓ 시장(Segment)세분화 ✓ 온·오프 크로스오버 ✓ 유통체인 대형·계열화	✓ 해외 Sourcing 다변화 ✓ 중·장기 협력관계중시 ✓ 지역별 유통체계상이	✓ 연방정부 시장개방 ✓ 친환경·고효율 선호 ✓ 의료·IT 융·복합 수요
공략방안	✓ 식품·건강 등 틈새공략 ✓ SNS 등 온라인 마케팅 ✓ 유통업계 네트워크	✓ 파트너링 관계구축 ✓ 물류특화 전략마련 ✓ 지역별 거점확보	✓ 현지벤더 협력강화 ✓ 기술·후속(A/S)지원 ✓ 실적(Reference)마케팅

1. 캐나다 시장동향



❖ 우리나라 수출품목 제한적 상황, 교역구조 고도화 필요

- 자동,차(부품), 전자(정보통신), 철강, 화학 등 수출품목 제한적
- NAFTA(미국, 멕시코), 중국, EU 등과 주요품목 수출경합
→ SC협력, 공동R&D, 서비스교역 등, 높은 수준 교역관계 형성 적절

우리나라 대 캐나다 수출품목 경쟁동향



2

한-캐나다 FTA 주요내용



Korea and Canada's FTA Network



2. 한-캐나다 FTA 주요내용

kotra

Korea Trade Commission
Promotion Agency

❖ 기대효과 : 북미시장 경쟁력 확보, 미래전략산업 Partnership 강화

- 미국에 이어서 캐나다와 FTA 발효, 세계최대 북미시장 진출경쟁력 확보
- 상호보완적 산업·교역 구조, 미래 성장동력 산업분야 Partnership 구축

산업
구조

【한 국】



【캐나다】



- 한국 : 중화학, 부품소재, 전기전자 수출의존구조
- 캐나다 : 에너지자원, 항공우주 등 기간산업집중

FTA
발효

교역
구조

대캐나다 수출	2012년	2013년	대캐나다수입	2012년	2013년
승용차	2,167	2,227	유연탄	1,889	1,587
무선전화기	163	662	펄프	331	291
자동차부품	229	236	알루미늄괴	200	217
섬유기계	172	119	칼륨비료	215	203
타이어	108	99	동광	195	184
냉장고	55	70	원목	148	153
합성수지	72	67	가축육류	148	91
집적회로반도체	36	60	운반하역기계	67	76
밸브	64	56	건설중장비	37	72
아연도강판	60	55	곡류	82	71

- 북미(미국·캐나다) 관세철폐
 - 아시아 국가로서 최초로 양국과 FTA발효, 선점효과 기대
 - 공산품 수출확대, 자원수급안정 등 복합효과
- 항공우주, 에너지 산업협력
 - R&D, 제품개발, 투자협력 등 중·장기 협력기반 마련
 - 중화학, IT 등 수출특화구조를 유지함과 동시에, 부품소재분야 산업 내(SC) 무역비중 확대 가능

2. 한-캐나다 FTA 주요내용



❖ 캐나다 상품양허 : 10년 이내, 교역품목 대부분에 대한 관세철폐

- 품목 수 93.2%, 수입액 95.9%에 대해 3년 내 관세철폐
- 품목 수 97.5%, 수입액 98.7%에 대해 10년 내 관세철폐

- 승용차 관세(6.1%), 3년 내 철폐
- 자동차부품(6%), 타이어(7%), 냉장고·세탁기(6~8%) 등 가전 즉시/3년/5년 철폐
- 섬유·의류 분야(평균관세율 5.9%, 최고 18%) 대부분 3년 내 철폐



캐나다 단계별 양허내용

단계	품목수	주요품목
즉시	6,380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TV, 진공청소기, 라면, 간장, 표면활성제, 윤활제 등
3년	1,401	승용차, 타이어, 면직물(의류), 냉장고, 화물차, 냉방기, 수산가공품 등
5년	359	신발, 모자, 배터리(축전지), 전구(조명), 시계, 문구(필기구), 철도차량 등

2. 한-캐나다 FTA 주요내용



❖ 자동차·부품 : 가격인하, 수요증가 등 긍정적 효과기대

- (승용차) NAFTA(미국·멕시코), 일본, 독일 등 경쟁국 대비 가격경쟁력 회복
- (부 품) 캐나다 부품업체, 한국 중소기업 SC협력수요 지속증가

캐나다 자동차 산업·시장

완성차, 연간 210만대 생산, 180만대 판매
Magna 등 세계 10대 모듈·부품 회사 집중

캐나다 신차판매 (14.1~9월)

구 분	판매량	증감률	점유율
포드	227,098 대	0.9 %	15.9 %
크라이슬러	223,700 대	8.5 %	15.7 %
GM	189,287 대	5.2 %	13.3 %
도요타	142,606 대	3.3 %	10.0 %
혼다	114,998 대	6.8 %	8.1 %
현대	109,385 대	-0.2 %	7.7 %
닛산	81,640 대	31.4 %	5.7 %
기아	56,185 대	-4.1 %	3.9 %

• Big-3 등을 정점으로, 1~2차 부품업체 SC 형성

- 완성차 원가절감 부담이 부품업체에 전가됨에 따라, 한국 등지로 소싱·협력 확대추세
- 파워트레인, 브레이크, 서스펜션 등 기존 한국산 주력부품에 대한 가격인하(관세철폐) 효과집중

[캐 자동차부품협회(APMA) 회장('14.10월 세미나)]

- 한국 부품업체 OEM역량과 아·태 시장 접근 측면에서, 캐나다 부품업체의 협력수요 지속증가 전망

2. 한-캐나다 FTA 주요내용



❖ 섬유·의류 : 관세효과(최대 18%)에 따른 수출확대유망

- (섬 유) 산업용 특수 원사·원단 등 수출유망
- (의 류) 양말, 스카프, 린넨, 커튼 등 가격효과 기대품목

캐나다 섬유·의류 산업구조

- 소비의류 완제품 수입·소비 시장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저가제품, 멕시코, 미국 중·고가품 수입 이원화
- 제조기반은 미약하며 캐나다 Goose, 노비스 등 일부 프리미엄 브랜드 생산
- 의류, 신발, 모자 등 완제품 연간수입 170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섬유는 산업용 위주 32억 달러 수준

캐나다 섬유·의류 양허계획

품 목	HS Code	관세율(%)	수출액(US\$ 천)	
			'13	'14(1~9)
면사	5204~07	0~8	1,393	801
인조스테이플(단섬유)	5511~14	0~8	642	491
편물의류	6101~10	0~18	8,118	2,335
양말·스타킹	6115	16~18	10,348	8,657
스카프	6214	0~18	157	60
린넨	6302	7.5~18	1,087	836
커튼	6303	17~18	402	217

- 관세 효과가 높은 품목위주, 신규거래선 발굴 등 시장공략
- 품질·브랜드 관리를 통한, 경쟁국(중국, 동남아) 대비 차별화 전략 필요

2. 한-캐나다 FTA 주요내용



❖ 식료품·생활용품 : 가격·품질 경쟁력 외, 소비구조 등 진출여건 개선

- (식료품) 소스, 스낵, 건강·기능성 식·음료 등 수출확대 유망
- (생활품) 화장품, 레저용품, 의료보조기구 등 신규진출 기대

건강(Wellness)

- 인구고령화(65세 이상 15.3%)
- 다이어트, 건강증진 제품수요증가

이민(Mosaic)

- 이민자 20% (아시아계 45%)
- 한국 식품, 화장품 등 시장확대

융합(Crossover)

- 소매·유통업계 대형화 및 계열화
- 지역별, 채널별 경계 희석 현상



【 FTA활용 캐나다 유통망 진출세미나(14.9월) 】

- 증가하는 아시아계 소비자 대상, 식품 수출확대 유망
- 고령화 등 건강관련 제품수요 증가에 따른, 관련시장 성장세 지속
- 캐나다 소매유통업계 Omni-channel 현상 본격화

2. 한-캐나다 FTA 주요내용



FTA 관세효과 유망품목

HS코드	품목명	2014년 (1~10월)		기준세율(%)	캐나다 수입규모	경쟁국가(캐나다 수입대상국)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8703	승용차	1,805,394	-3.4	6.1	28,069,748	미국, 멕시코, 독일, 일본
8708	자동차부품	205,394	12.5	0~6	20,347,446	미국, 멕시코, 일본, 중국
4011	타이어	76,712	-9.3	7	3,108,064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8418	냉장고	70,291	18.0	8	1,379,962	미국, 멕시코, 중국, 터키
6004	편물(니트원단)	17,006	-7.2	0~8	68,480	중국, 대만, 미국, 이태리
7610	알루미늄 구조물	16,867	30.6	6.5	321,690	미국, 중국, 멕시코, 네덜란드
3918	플라스틱 바닥재	12,999	98.8	6.5	338,636	중국, 미국, 프랑스, 스웨덴
1902	면류(라면 포함)	10,664	9.4	0~11	396,048	미국, 이태리, 중국, 태국
8402	(수관식)보일러	10,616	4,268.0	2~4	100,606	미국, 이태리, 체코, 중국
3304	화장품	8,124	78.4	6.5	1,232,756	미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6101~10	의류(편물)	2,335		0~18	3,421,856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6115	양말(스타킹)	7,904	-3.0	16~18	220,390	중국, 미국, 멕시코, 파키스탄
5407	합성필라멘트사(장섬유)	6,449	14.9	0~8	190,080	미국, 중국, 인도, 대만
9405	조명(LED)	5,087	10.6	7	1,456,052	중국, 미국, 멕시코, 독일
2103	소스류 및 조미료	4,104	11.2	3~11	671,764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2202	음료(기능성 등)	3,996	3.5	11	833,544	미국, 스위스, 이태리, 태국
8516	전열기기	3,844	7.1	0~9	1,218,184	중국, 미국, 멕시코, 태국
9003	안경 및 고글	3,392	-10.4	2.5	194,760	중국, 이태리, 프랑스, 일본
6302	린넨	836		7.5~18	478,814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2. 한-캐나다 FTA 주요내용



❖ 주력제품의 생산공정과 원자재조달 등 산업특성을 반영한, 원산지 기준

- 세이프가드 도입, 반덤핑·상계관세 사전통보 및 협의의무
- 서비스무역 및 투자규범, 한-미 FTA 유사수준 상호보장

□ 원산지 규정

- (완성차) 부가가치 적용기준완화 : 집적법 35%, 공제법 45%, 순원가법 35% 등
- (섬유·의류) 세번변경, 염색·날염 공정 인정 등, 한-미 FTA에 비해 완화된 원산지 기준에 합의
- (전자·기계) 4 또는 6 단위 세번 변경기준을 도입,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반영토록 제품에 따라 선택적 부가가치 기준 적용
- (개성공단)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립을 통해, 원산지증측 기준 등을 논의기로 합의

□ 무역 구제

- (세이프가드)
 - * 수입산업에 심각한 피해발생 시, 양자세이프가드 도입
 - * 쇠고기, 돼지고기, 곡물 등에 별도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 (반덤핑 및 상계관세)
 - * 국내법에 따른 최소부과(Lesser Duty) 규정도입,
 - * 조사개시 전, 사전통보 및 협의 의무, 약속제도 활성화

□ 서비스 및 투자

- (투자규범)
 - *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가(기업)-국가 간 분쟁 해결절차(ISD) 등 규정마련
- (서비스시장)
 - * FTA 최대수준 시장개방 : NAFTA 이후 체결한 타 FTA 최고대우 부여

2. 한-캐나다 FTA 주요내용



❖ WTO 정부조달협정(GPA)보다 높은 수준 조달시장 개방

캐나다 연방정부조달 양허내용

구 분	한-캐나다 FTA	개정(14.4월) GPA
상 품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	13만 SDR (약 20만 캐나다 달러) 이상
서비스	10만 캐나다 달러 이상	13만 SDR(약 20만 캐나다 달러) 이상
건 설	500만 SDR이상	500만 SDR이상

캐나다 정부조달시장 규모 및 특징

- 연간 160억 캐나다 달러규모, 세계최대 조달시장
- 물품(46%), 서비스(47%), 건설(7%) 등으로 구성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의 25천 캐나다 달러 이상 물품조달과 2백만 캐나다 달러 이상 건설 조달은 연방정부(PWGSC)를 통해서 진행
- 통합사이트(buyandsell.gc.ca) 구축, 조달정보 및 입찰절차를 Digital화 하여, 이용자 편의증대

유망 품목

- 냉난방 공조기, 보안장비, 사무용품(집기) 등 유망
- 캐나다 전역의 연방정부 청사 등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입찰규모가 FTA하한선을 크게 상회하는 고액

진출 전략

- 정보수집과 입찰참여를 위해 캐나다 현지파트너 활용
- 언어(영어/불어), 납기준수, 기술지원(A/S등) 등 필수요건 충족을 위한 사전준비 필수

2. 한-캐나다 FTA 주요내용



❖ 위생조치(SPS), 기술장벽(TBT), 지적재산권(IP) 등, 별도위원회 설치함의

□ 위생조치(SPS)

-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SPS)'이 부여하는 회원국 권리·의무에 기초
- SPS 주요사안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SOS 위원회 설치

□ 기술장벽(TBT)

- WTO '무역관련 기술장벽 협정 (TBT)'이 부여하는 권리·의무에 기초하여, 양국 협력강화에 주력
- 자동차, 의료기기, 의약품, 통신, 전기·전자 등 주요분야 표준관련 위원회 개최

□ 지적재산권(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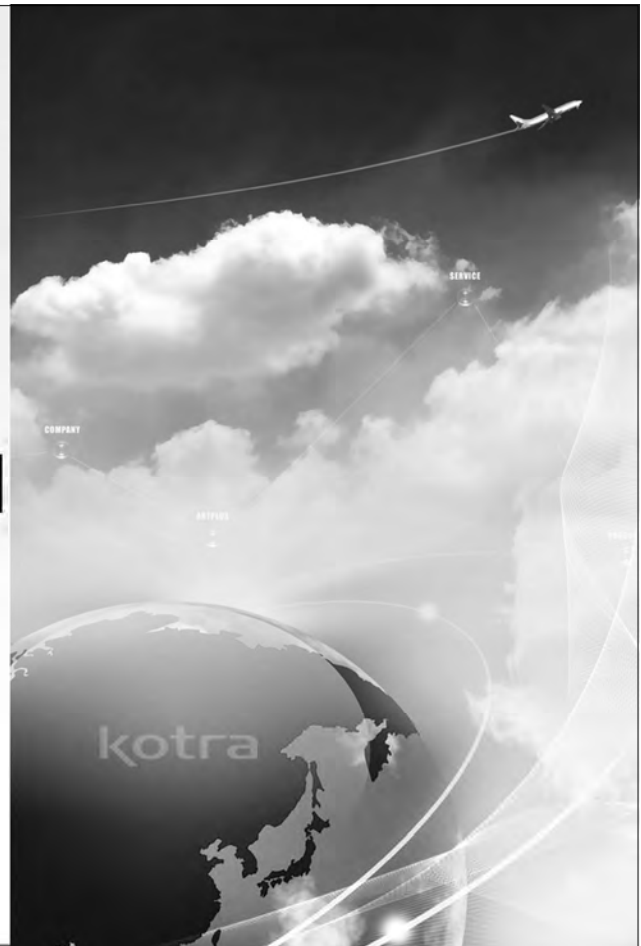
-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TRIPs)'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등 IP보호 강화
- 캐나다는 우리관심품목(고려홍삼 등 4개)을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기로 합의

【 FTA 발효 시, 공정거래법 및 지적재산권 주요쟁점 】

- 관련규정 : 한-캐나다 FTA 제15장(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 제16장(지적재산권)
- 주요내용 : WTO 규정을 기초로, 양국의 국내법령 간 조화를 이루도록 협력노력을 규정
- 주요쟁점 :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제59조는 '저작권', '특허법' 등에 의한 권리(지재권) 행사에 대해서 동 법을 적용치 않음을 규정한 반면,
캐나다 공정거래법(Competition Act) 제32조는 지재권의 정당한 행사의 경우에도, 경쟁을 제한·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제재(지재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

3

활용전략 및 사업안내



3. 활용전략 및 사업안내

kotra
Korea Trade Commission
Promotion Agency

❖ 수혜품목 고부가-마케팅, 미래산업 Partnership, 네트워킹 전략설정

전략 방향	세부 내용
FTA 수혜품목 캐나다 시장선점	◆ 관세인하 등 가격경쟁력 강화품목 캐나다 시장선점 ◆ 수출유망품목 캐나다 현장중심 마케팅 활동 ◆ 중·장기 시장확보를 위한 물류·유통 인프라 보완
미래·창조산업 Partnership 구축	◆ 항공·우주, Digital-Contents, 생명과학 등 Partnering 형성 ◆ R&D, 제품개발, 생산관리 등 공급망 Mapping & Matching ◆ 제3국 공동진출, 인력 교류 등 협력관계 다변화 및 고도화
규범준수 및 네트워킹 강화	◆ FTA, TPP 등 캐나다 통상규범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원산지규정, 공정거래법 등 세부규범 숙지 및 준수 ◆ '기업협의체', '산업별단체' 등 네트워킹 활성화

3. 활용전략 및 사업안내

kotra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 2015년 FTA 전략사업 추진 Roadmap

성과목표	- 수출성과 대폭(100% 이상)확대 - 신규 Partnership-구축 산업발굴, 중소기업 비관세 경쟁력 확보		
추진방식	* 온·오프 유통채인진출 * 대표전시회(GIC)연계 * Event(봄 조성) 마케팅	* Supply Chain 협력 * 양방향 수요-Matching * 중·장기 Partnership	* 지리적, 문화적 Risk 해소 및 경쟁력 확보 * 특화(부가) 물류지원
사업계획	대형유통망 진출로드쇼 (2분기) 소매유통 구매상담회 (3분기)	항공로드쇼(2분기) Autopart-Plaza(3분기) D-Contents Fair(3분기) 전력기자재로드쇼(4분기)	공동물류센터 산업별 부가서비스 범위확대 법령·규범 자문서비스 진출기업 협의체구성
대상분야	가공식품, 생활소비재	항공우주, 자동차부품, 전력기자재, 문화상품	물류, 규범 인프라, 협력 네트워킹
사업구분	유망품목 Marketing	전략산업 Partnership	진출기반 Networking

kotra
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감사합니다.

한-뉴질랜드 FTA 주요내용 및 활용전략

오uckland 무역관장



한국 - 뉴질랜드 FTA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



KIA ORA
WELCOME TO NEW ZEALAND

2015. 1. 7.

오클랜드 무역관

kotra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 1 뉴질랜드 개황
- 2 한국-뉴질랜드 FTA 체결개요
- 3 한국-뉴질랜드 FTA 현지 반응
- 4 한국-뉴질랜드 교류 현황
- 5 우리기업 활용방안 - 상품, 투자진출, 정부조달
- 6 2015 무역관 Action Plan

영화 속 뉴질랜드



반지의 제왕
(2001~2003)

- 촬영지
남알프스
마운트 쿡
- 배경/장면
왕국의 수도



나니아 연대기
(2005~2010)

- 촬영지
캔스타운
- 배경/장면
겨울마녀의 숲



아바타
(2009)

- 촬영지
레드우드 숲
- 배경/장면
나비족 행성



킹콩
(2005)

- 촬영지
불링턴
- 배경/장면
해공성 침공



길미호
(2003)

- 촬영지
파나키
- 배경/장면
실현목파장면



올드보이
(2003)

- 촬영지
마운트 코리이
포드
- 배경/장면
연립 장면
눈내리는 겨울숲

www.newzealand.com



국명	뉴질랜드 (New Zealand)
위치	대양주 남단 - 애안선 : 태즈먼 해, 남태평양 (15,811km)
면적	적랑기준 : 270,534 km ² (인반도의 1.2배 남한의 2.7배) (북섬 11.6만 km ² , 남섬 15.1만 km ²)
기후	온난해양성 기후 (1월 평균 16.5℃, 7월 평균 8℃)
주요도시	오클랜드 (153만), 웰링턴 (45만, 수도), 크라이스트처치(37만), 해밀턴 (15만)
인구	455만명 (2014년 12월 기준) - 북섬에 각 76% 거주
언어	영어(공용어), 마오리어(원주민어)
인종구성	유럽계(70%), 마오리 (14%), 아시아인(11%), 폴리네시아인(7%) 및 기타(3%)
종교	기독교(약 51%) 등 여러 종교 간재
건국일	1840.2.6 (영국 총독과 마오리 대표관 Waitangi 조약 체결)
정부형태	의원내각제 (3년마다 총선 실시)
국가원수	영국 여왕인 Elizabeth 2세
총리	John Key (국민당 당수, 2014.9월 취임, 3연임)
입법부	의회, 단원제(Parliament), 총 의석수 121석
정당	국민당 (National, 여당, 60석), 노동당 (Labour, 야당, 32석), Green (14석), NZ First (11석), Maor (2석), Act (1석), United Future (1석)

한-뉴 FTA 체결개요 - 협상 경과

- ☐ 09년 1월 : 한.뉴질랜드 FTA 공영회 개최
- ☐ 09년 6월 : 제1차 협상 개최 (이후 10년 5월까지 총 4차례 공식 협상 개최)
 - * 4차 협상 후 양측 입장차이로 협상 중단
- ☐ 13년 7월 : 뉴질랜드 총리 방한 계기 한.뉴질랜드 정상회담 개최 (FTA의 협상 재개 모색)
- ☐ 13년 12월 : 한.뉴질랜드 양국 통상장관회담 (FTA 공식 협상 재개 합의)
- ☐ 14년 2월 : 제5차 공식 협상 개시 (이후 총 4회 협상 실시)
- ☐ 14.11.15 : 한.뉴질랜드 FTA 타결 선언 (오주 G20 정상회의 양국 정상 발표)
- ☐ 14. 12.22 : 한.뉴 FTA 협정 가서명 (15년 상반기 정식 서명 추진)



● 상품양어

- (뉴질랜드) 92% 즉시, 7년내 100% 관세 철폐
- (한국) 48% 즉시, 7년내 76%, 15년내 96% 관세철폐

< 상품양어 협상결과 요약 >

양어단계	뉴질랜드 → 한국				한국 → 뉴질랜드			
	세번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세번수	비중	수입액(천불)	비중
즉시철폐	9,092	76.5%	568,606	48.3%	6,220	85.7%	850,163	92.0%
무관세	1,932	16.3%	459,555	39.1%	4,207	58.0%	698,395	75.6%
유관세	7,160	60.3%	109,051	9.3%	2,013	27.7%	151,768	16.4%
3년철폐	960	8.1%	141,362	12.0%	488	6.7%	41,138	4.5%
5년철폐	394	3.3%	17,222	1.5%	275	3.8%	10,685	1.2%
6년철폐	1	0.0%	53,982	4.6%	-	-	-	-
7년철폐	348	2.9%	113,407	9.6%	273	3.8%	22,106	2.4%
7년 이내	10,795	90.9%	894,579	76.0%	7,256	100.0%	924,092	100.0%

< 양어 단계별 주요 상품양어 품목 >

뉴질랜드 → 한국		양어단계	한국 → 뉴질랜드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원목, 펄프, 나프타, 양모, 알루미늄/동 스크랩	1,932	즉시철폐 (무관세)	4,207	응용차, 컬러TV, 무선전화기, 원유
알루미늄과, 양가죽, 소가죽, 포도주, 의약품, 지약, 양탄자, 식염, 천연염	7,160	즉시철폐 (유관세)	2,013	타이어 (승용, 화물) 세탁기, 축전지, 절강관, 아연도강판, 동조기공품, 밸브
매단올, 알루미늄과, 버터, 외장품, 계계목, 용접(통조림 등)	960	3년 철폐	488	화물차, 중장비, 냉장고, 가부품, 플라스틱제품, 절강선/절강관, 냉연강판, 편직물 의류
코코아조제품, 소시지, 초코렛, 완두, 밸브, 바닷가재, 어육, 수산가공품, 조개, 오징어	394	5년 철폐	275	중우판, 봉강, 선재, 도금강판, 연선 및 와이어, 기타섬유제품, 기타신발
커피	1	6년 철폐	-	-
카세인산염, 맥주, 말기, 과일쥬스, 커피, 물, 햄양어, 글뱅어, 어류(민어, 다랑어, 대구, 등)	347	7년 철폐	273	변압기, 모사, 편직물, 편직제/직물제 의류, 섬유판, 압판
쌀, 쌀보라, 꿀, 닭고기, 돼지고기, 유당, 녹차, 단감, 고추, 인삼, 마늘(신선, 냉장, 건조), 사과, 배, 포도, 감귤, 오징어(냉동), 전복, 명태(냉동)	199	양어제외	-	-
	11,881	총합계	7,288	

⑨ 서비스 · 투자

-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도입
- 뉴질랜드의 투자 사전 심사제 기준 금액 상향 조정
 - * 뉴질랜드는 대부분 기존 FTA에서 기준액을 NZ\$20m 이나 한-뉴 FTA에서는 NZ\$50m 로 상향

⑩ 인력 이동

- 워킹홀리데이 쿼터 확대 (1.8천명 -> 3천명), 고용제한 조건 완화
 - * 워를 고용제한 3개월->영구고용만 금지
- 한국인 일시고용 입국 비자 연 200명 쿼터 확보
 - * 대상 직업 및 전문직종 : 한국어, 태권도 강사, 가이드, 한의사, 멀티미디어 디자인, 생명공학, 산림 과학자, 식품 과학자, 수의사, S/W 엔지니어 등
- 농축수산물 교육 및 훈련 비자 연 50명 쿼터 확보

⑪ 정부조달

- WTO 정부조달협정(GPA) 수준으로 정부조달시장 개방하여 GPA 혜택 조기 향유
- BOT(Build-Operate-Transfer)를 한국에 개방
 - * 뉴질랜드는 GPA에 BOT 불포함

⑫ 농림수산물 협력

- 농어촌 청소년 연 최대 150명에게 뉴질랜드 어학연수기회 제공
- 수의과학, 수산, 산림 분야에서 뉴질랜드 대학원 과정 한국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 농림수산물 전문가 연구 및 훈련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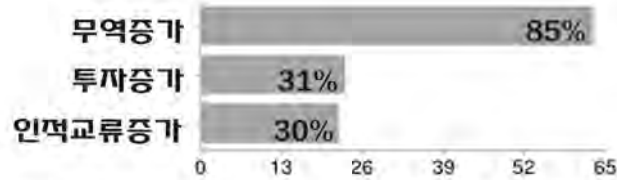
⑬ 시청각 공동제작

- 양국 간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FTA 협정 부속서로 포함
 - * 영화제작 및 후반 제작시 재정지원, 국제배급 지원, 세제 혜택 등

FTA 타결로 양국간 무역 교류 증가 예상

- 설문 응답자의 85%가 양국간 교역이 증가할 것이라는 답변

FTA가 양국간에 미치는 영향



- 조사 대상 기업의 42%가 한국에서의 수입을 늘리거나 공급선 전환 계획이 있음을 답변
- 답변 기업의 53%가 한국제품의 인지도 상승이 이유.
- FTA가 관세 뉴질랜드내 한국제품의 인지도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

한국으로의 공급선 전환이나 수입확대 계획



공급선 전환 및 수입확대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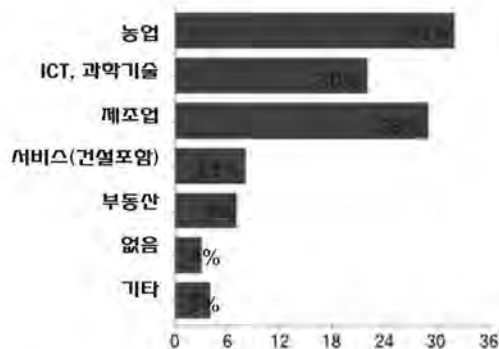


FTA 타결로 양국간 농업과 제조업, ICT 과학기술 분야 투자 증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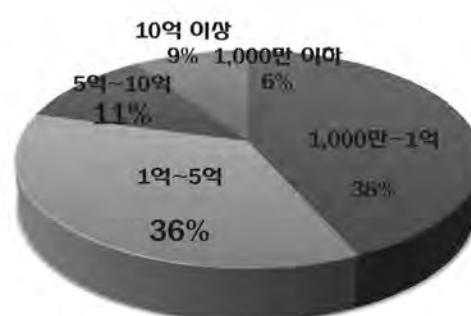
- 설문 응답자의 43% 농업분야의 양국간 투자교류 증가 답변. 제조업, ICT 과학기술 뒤이어
- 예상 투자금액은 응답자의 56%가 1억 달러 이상으로 답변하여 FTA 이후 양국간의 투자 금액이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4년 3분기 현재 양국간 투자누적금액 5.7억 달러

FTA 이후 양국간 투자 증가 분야



FTA 이후 양국간 투자 예상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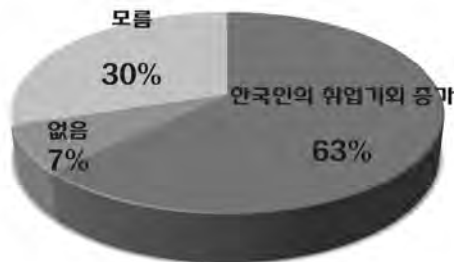


한-뉴 FTA 현지 반응 - 바이어 설문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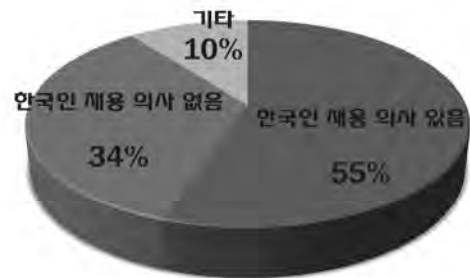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FTA 타결로 인적교류 증가. 한국인의 뉴질랜드 취업기회 늘어날 전망.
 - 설문 응답자의 63% 뉴질랜드에서의 한국인의 취업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조사대상 기업의 55%가 FTA 이후 한국인을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FTA의 영향으로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군은 ICT, 숙련 기술직, 무역관련 등.

FTA 이후 뉴질랜드에서의 한국인 취업 증가 전망



조사대상기업의 한국인 채용계획



한-뉴 FTA 현지 반응 - 바이어 설문결과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 뉴질랜드 최대 건설사 Fletcher
 - 한뉴 FTA로 인한 한국산 제품의 관세절제는 매우 영향력이 클 것



- 뉴질랜드 대형 포장재 수입유통업체 Snell Packaging & Safety
 - 한뉴 FTA로 수입중인 한국산 제품 관세가 철폐되어 매우 기대가 큼
 - 주요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대체할 계획도 있음



- 뉴질랜드 4대 호텔제인 VR Hotel Group
 - 워킹홀리데이 고용제한 철폐로 한국 청년 채용기회 늘어날 것
 - 2015년부터 한국직원 추가 채용 계획



- 뉴질랜드 최대 게임제작사 NinjaKiwi Ltd
 - 한국 게임제작사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 한국의 우수한 개발인력이 있다면 채용을 적극 고려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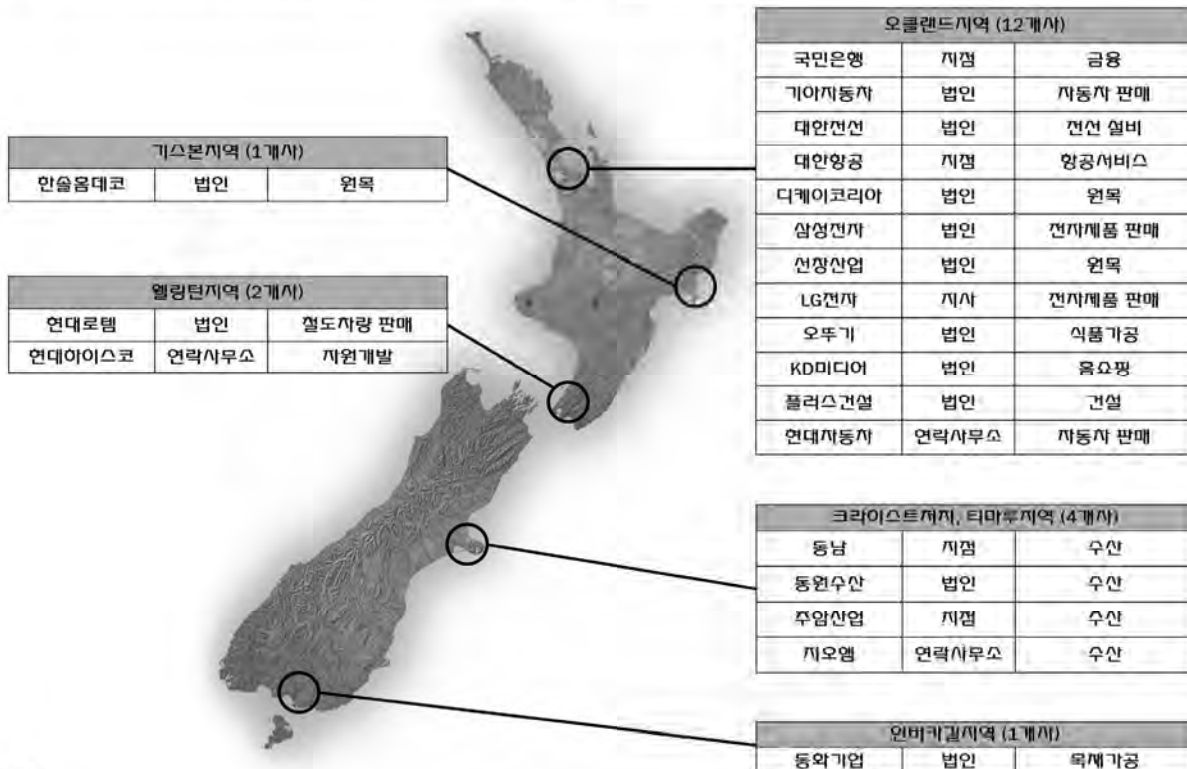
FTA 체결을 통해 양국간 교류 활성화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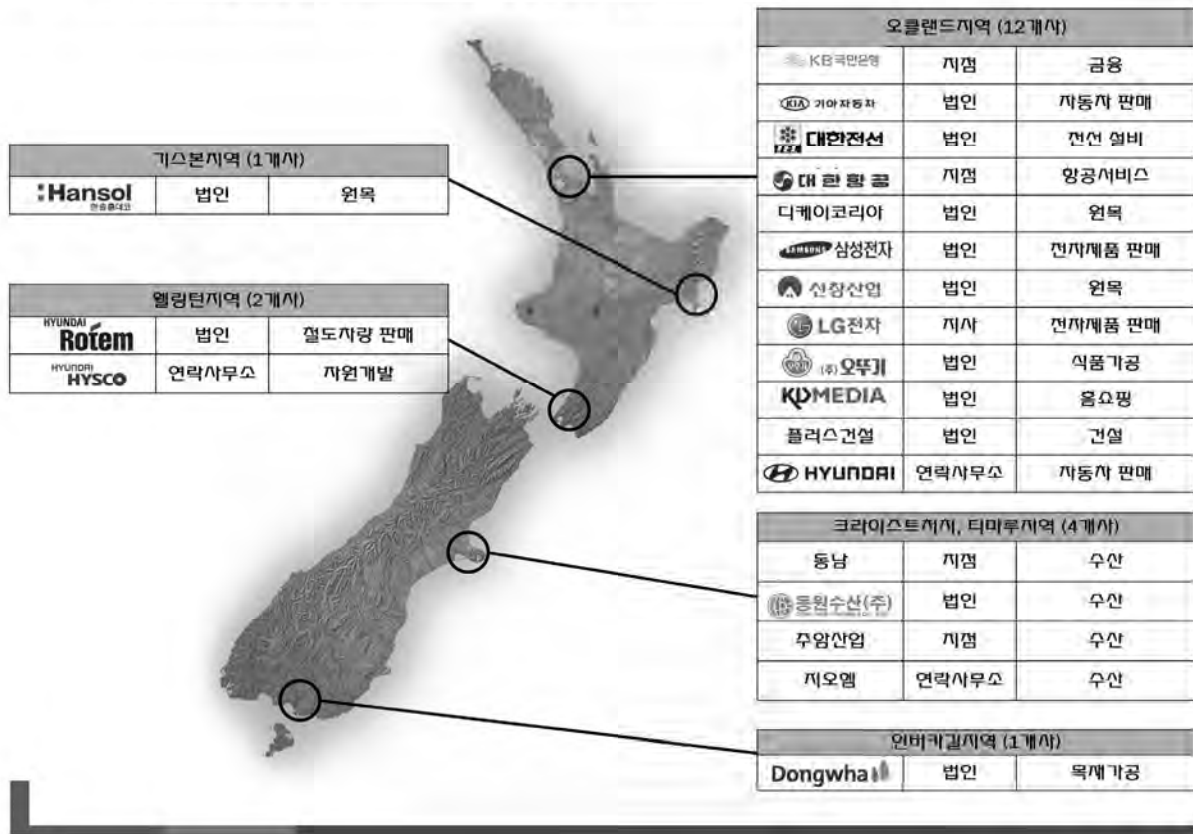
〈 物 (교역), 金 (투자), 人 (인적 교류) 현황 (2014년 10월기준) 〉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구 분		Out-Bound (한-→ 뉴질랜드)	In-Bound (뉴질랜드 → 한국)
物	교역 (한-뉴)	13.5억달러 (33.6%) 40위 대상국 위발유, 승용차, 경유, 건설중장비, 합성수지	11.7억달러 (10.9%) 41위 대상국 원목, 석유화학제품, 낙농품, 육류, 알루미늄
	교역 (뉴질랜드)	319억달러 (12.4%) 중, 호, 미, 일, 한(5위) 낙농, 육류, 목재, 과일, 에너지 등	317억달러 (9.6%) 중, 호, 미, 일 ... 한(7위) 에너지, 기계, 자동차, 전기제품, 항공기 등
	교역 (한국전체)	4,250억달러 (수출) (2.8%)	3,961억달러 (수입) (3.6%)
金	투자(한-뉴) * 누적치	5억달러 553건 (평균 90만불) 도소매, 숙박, 요식업 등 이민형 투자	0.7억달러 92건 서비스업, 제조업
	투자(한국전체)	233억달러 (투자진출)	148억달러 (외자유치)
人	인적교류 (교민)	38,880명 (5.2%) 호, 중, 미, 영, 일, 독, 한 (7위) 3만명 중(17만), 인(14만), 필(4만)	22,735명 (6.7%) 중, 일, 미, 대, 용.. 뉴(23위) N.A
	여행객(한국전체)	1,193만명 (해외여행객) (6.0%)	1,068만명 (방한 여행객) (15.4%)

뉴질랜드 투자진출 한국기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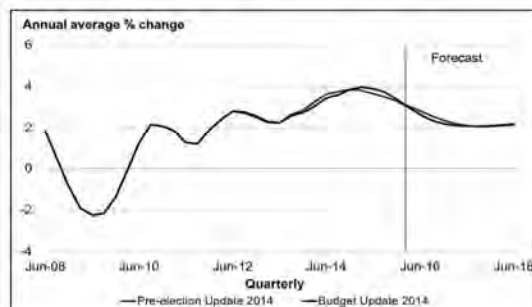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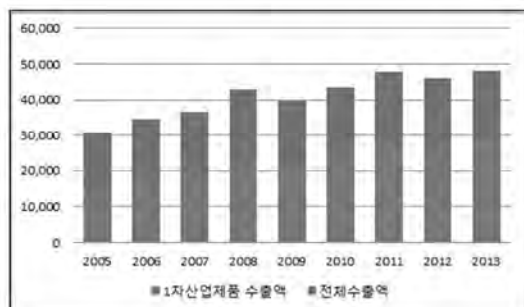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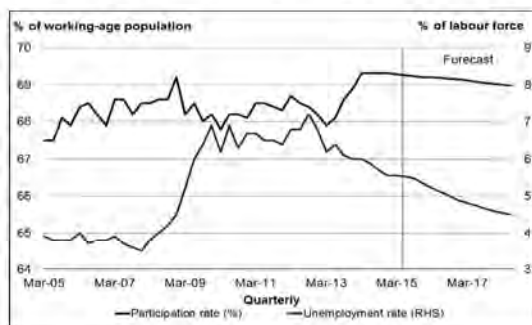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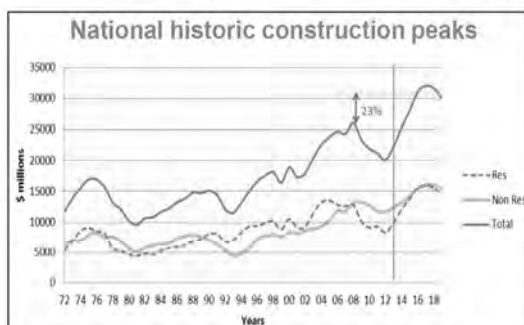




우리 기업 활용방안

● Rock Star Economy 적극 활용 필요 (관세절감 효과 미미 예상)

– 성장 3대 요인 대상 공략 : 건설 수요 상승, 내수 소비 확대, 1차 산업 제품 수출 증가



◎ 건설 관련 제품

- 공동주택 확대 따라 신 주거문화용 제품 : 디지털 도어락, 인터콤 등
- 건설 자재 제품 : 철 구조물 자재 (파이프, 빔 등), 스키퍼 등
- 건축 내외장재 제품 : 방수필름, 싱크대, 커튼, 포인트 벽지 등
- 건설 중장비 부품 : 소모성 부품, 어태치류 등

◎ 내수소비 관련 제품

- 온라인 시장 어필 가능한 독특한 기능제품 : 셀카봉, 고압 샤워기, 단열 벽박이 등
- 저렴하면서 디자인 기능 가미된 제품 : Home & Living 소품, 문구류 등
- 아시아 이민자 확대 따른 한류제품 : 의류, 미용제품, 먹거리 류
- 자동차 관련 제품 : 부품류, 액세서리, 소모품 류

◎ 1차 산업 관련 제품

- 농,목,축업 관련 제품 : 농기계, 농약, 농자재, 비료 등
- 식품 가공 관련 제품 : 포장재, 포장기계, 합성수지, 골판지 등
- 임업 관련 제품 : 중장비 부품 및 어태치류 등

◎ 먹거리 분야(농목축, 식가공) - 원자재 활용형 투자

- 100% Pure NZ 이미지 활용 : 안전마케팅, 고가가격 전략 추진 가능
- 일본 기업이 적극 식품기업을 인수 중이며, 중국도 농장 인수에 적극 진출
- * 성공사례 : 오투기 시골엑기스 공장 (광우병 Free 국가)

◎ 테스트 베드로서의 투자 - 선진국시장 진출 위한 완승 기지영 투자

- 작은 영토, 다양한 민족, 낮은 정부 규제 : 다양한 신제품, 신기술 적용 가능
- * ITS 입찰시 MS, HP 등 대기업 대거 응찰, S전자 모바일 기기 웰스 분야 적용
- 영어권 문화, 선진국형 수주 및 마케팅 활동을 습득하기 위한 최적의 시작점
- * 건설 프로젝트 수주 (중동, 동남아와 다른 프로세스 이해 필요)

◎ 향의적 기술분야 (바이오, IT 등) - M&A 형 투자

- 독향적 아이디어의 제조업 또는 향의적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M&A형 투자
- * 성공 사례 : Powerbyproxi (무선충전기술보유) 국내S사 400만불 투자, 원천기술확보
- 미국 SV의 많은 VC도 잠재적 기술 확보를 위해 뉴질랜드 주목 중

① 대형 인프라 개발 위한 중앙 정부발주 프로젝트

- Christchurch 지진복구 프로젝트 (중 규모 400억달러)
- National Infra Report (향후 10년 중앙정부 발주 예상) : 중 260건, 465억 달러
- * RoNS (Road of National Significance) Project - 7개 대형 고속도로 프로젝트 등

② 오클랜드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 정부발주 프로젝트

- Auckland Unitary Plan (오클랜드 개발계획) 등 중 2천8백건, 346억 달러
- * Harbour Cross (47억달러), City Rail Link (24억달러), LED 교개 프로젝트 등

❖ 정부조달 진출위한 제언

- ✓ 발주가 나온 후 대응하기 보다는
- ✓ 발주예상 프로젝트에 대해 신공법, 친환경 등의 아이디어 제시를 통해 발주처와 사전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리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함
- ✓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PPP 적극 도입 단계, Financing 능력 배양 필요

2015 무역관 Action Plan

① 한-뉴 FTA 활용도 제고

- KOTRA-KPMG NZ 공동 FTA 활용 설명회 개최 (2분기, AKL)

② 상품분야

- 뉴질랜드 유통망 현황 및 진출전략 조사 (1분기)
- Fieldays (남반구 최대 농업박람회) 한국관 참가 (6월 9일~13일, Hamilton)

③ 투자분야

- 창조경제 협력 사업 (한-뉴 기업간 기술 협력 파트너십 프로그램) 추진 (연중)

④ 정부조달분야

- 뉴질랜드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시장 현황 및 진출전략 조사 (2분기)
-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서울) 및 조사단 파견 (AKL, Chch 등) 추진 (3분기)

⑤ 인력이동

- 4대 유망분야 (목축, 원예, 영상/SW) 교육과정 연계 현지 취업 프로그램 개발 (연중)

kotra | Global Business Platform

김락곤 관장 : daniel@kotra.or.kr

PROGRAM

2

한중 FTA 이해와 활용전략

세션1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한중 FTA
핵심내용 소개

산업부 동아시아 FTA 추진단 김재준 과장

한-중 FTA 협상결과

2015.1.7(수)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

1. FTA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국가간 경쟁 치열

거대경제권간 FTA 체결 움직임이 활발



2. 우리의 통상 정책 추진전략 및 성과 (~2012년)

동시다발적 FTA 추진 → FTA 허브국가로 부상

- 2003년 FTA 로드맵 작성 후 52개국(12건)과 FTA 타결 (발효 9건 47개국)
 - * [발효] 칠레('04.4), 싱가포르('06.3), EFTA('06.9), ASEAN('07.6), 인도('10.1), EU('11.7), 페루('11.8), 미국('12.3), 터키('13.5)
 - * [타결] 콜롬비아('13.2), 호주('13.12), 캐나다('14.3), 중국('14.11), 뉴질랜드('14.11)
- 세계 10대 교역국 중 유일하게 미국과 EU와 FTA 모두 체결



2

3. 우리의 지역경제통합 핵심축(Linchpin) 전략 (2013년)



미 국 (Pivot to Asia)

- TPP로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확대 노력



중 국 (미국과 다른 길)

- 한중일 FTA, RCEP 등 미국이 배제된 통합논의 주도



일 본 (FTA 고립 탈피)

- 아태 경제통합 논의에 적극적
→ TPP, 일-EU FTA 추진중



ASEAN (ASEAN중심)

- RCEP 추진중

3

4. 한·중 FTA 성과

4-1. 추진 경과

30개월간 긴 협상(12.5~14.11) 거쳐 최근 한·중 FTA가 실질적 타결

- 1단계 '12.5월 협상 개시 이후 '13.9월 모델리티(협상지침) 협상 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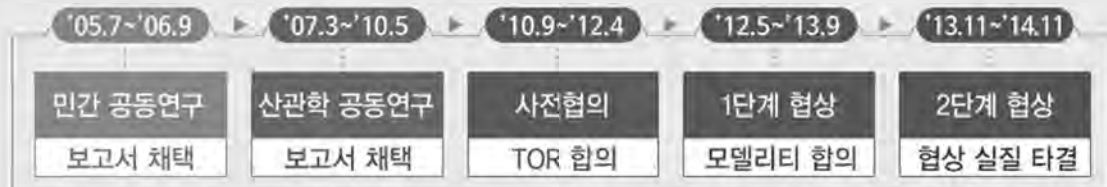
* 모델리티 주요 내용

- 상품 자유화율 : 품목수 90%, 수입액 85% 이상에 대해 (최대 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
- 서비스는 WTO 서비스협정(GATS)보다, 투자는 한·중/한·중·일 투자협정보다 각각 높은 수준을 지향
- 규범 : 지재권, 경쟁, 투명성 등 분야의 협정문 주요 요소 합의

- 2단계 '13.11월부터 '14.11월까지 2단계 협정문 및 양허 협상 진행



(실질적 타결) '14.11.10일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



4-2. 협상개요

협정문 구성 한·중 FTA 협정문은 서문 및 총 22개 챕터(부속서 포함)로 구성

상품 관련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 칙
상품	서비스	지재권	최초규정 및 정의
원산지(PSR 포함)	금융*	경쟁	예외
통관 및 무역원활화	통신*	투명성	분쟁해결
무역구제	자연인의 이동	환경	제도
위생·검역	투자	전자상거래*	최종조항
무역기술장벽		경제협력	

* 중국이 최초로 FTA에서 별도 챕터 채택(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상품 시장 개방 20년 이내 양국의 90% 이상 교역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 즉시철폐 : **韓** 419억불 ↔ **中** 734억불
 - (韓) 품목수 50%, 수입액 52% ↔ (中) 품목수 20%, 수입액 44%
- 10년내 관세철폐 : **韓** 623억불 ↔ **中** 1,105억불
 - (韓) 품목수 79%, 수입액 77% ↔ (中) 품목수 71%, 수입액 66%
- 20년내 관세철폐 : **韓** 736억불 ↔ **中** 1,417억불
 - (韓) 품목수 92%, 수입액 91% ↔ (中) 품목수 91%, 수입액 85%



- * 한-미 FTA : (韓) 218억불, (美) 283억불 즉시철폐/(韓) 273억불, (美) 409억불 10년내 철폐
- * 한-EU FTA : (韓) 182억불, (EU) 318억불 즉시철폐/(韓) 272억불, (EU) 415억불 10년내 철폐

4-3. 주요 성과: ① FTA 네트워크 완성 및 지역경제통합 주도

협상성과 세계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

- 미국, 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를 모두 체결함으로써 FTA 시장규모를 73.2%로 확대 (세계 5위에서 3위로 도약)
 - * FTA 시장규모 순위 : ①칠레(85.1%), ②페루(78.0%), ④멕시코(63.6%), ⑤코스타리카(63.5%)
-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62.4%로 제고
 - *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 중국의 비중 21.3%, 전체 수출 중 중국의 비중 26.1%



기대효과 글로벌 FTA 허브로서 투자유치 확대 및 향후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 마련

- 한·미/한·EU FTA 활용을 희망하는 중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 확대와 중국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미국·EU·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의 對韓 투자 증대 및 일자리 창출
- 한·중 FTA는 한중일 FTA, RCEP, TPP 등 아태 지역 경제협력 활성화 움직임 속에서 우리나라가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로 작용

8

4-4. 주요 성과: ②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 확보

협상성과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 확보

- 對中 수출 연간 734억불 상당의 물품 →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
對中 수출 연간 1,105억불 상당의 물품 → 발효 10년내 관세 모두 철폐
- 기존 주력 소재 제품에 더하여, 패션, 영유아용품, 의료기기, 고급 생활 가전 등 중소기업 상품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
 - * 현재는 비주력 내수 중심의 제품이라든가, 향후 주력 수출 품목으로 발전 가능성
→ 정부의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정책' 등과 연계하여 추진
- 對中 수출 절대액이 큰 만큼, 자유화 최종 달성(발효 후 20년 경과)시 중국의 관세 철폐액은 연간 54.5억불 (한·미 FTA 9.3억불, 한·EU FTA 13.8억불)



기대효과 중국 소비시장 확대 추세에 맞추어 對中 주력 수출 품목을 기존 부품, 소재 등 중간재 중심에서 소비재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

- 한·중 FTA 체결로 10조불 이상(韓 1.3조불 + 中 9.2조불, 2013년 기준) 규모의 거대 지역 경제공동체 탄생



7

4-5. 주요 성과: ③ 우리 농수산물 보호 및 중국 농수산물시장 진출기반

협상성과

우리 농수축산 개방에 대한 국내 우려를 최대한 반영하고, 중국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통한 우리 농수축산물 진출 기회 확보

- **우리 농수축산 보호** 對中 수입 농축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
 - 특히,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협정제외)을 비롯하여 주요 농수축산물(고추, 마늘, 사과,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
 - * 한국의 FTA 중 농수축산물 관세철폐율 비교(품목수기준/수입액기준, %)



- **중국 농수산물시장 개방** 품목수 기준 농산물 91%, 수산물 99% 중국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보

기대효과

국내 생산 주요 농수축산물 개방을 차단하여 우리 농수축산물의 對中 민감성을 보호

- '05년 이후 연평균 12.7%씩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농식품 시장 진출기회를 확보

8

4-6. 주요 성과: ④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

협상성과

WTO보다 높은 수준의 중국 서비스 시장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유통, 건설, 엔터테인먼트, 환경 등) 개방

분야	반영 내용
법률	▶ 중국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의 중국 로펌과의 제휴 허용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 한정)
건축/엔지니어링	▶ 중국내 설립된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 인정
유통	▶ 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한국 유통기업의 책 판매 허용
건설	▶ 중국내 설립된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 인정
환경	▶ 하수처리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순 한국기업 설립 허용
엔터테인먼트	▶ 49% 지분 한국기업 허용

-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원칙적 자유화)으로 전환

* 본 협정 발효 후 2년 내 후속 협상을 개시하여, 2년 내 마무리

기대효과

중국의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의 제도적 기반 마련

- 후속협상을 통한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 기회를 확보



9

4-7. 주요 성과: ⑤ 중국 비관세장벽의 완화/해소

협상성과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및 중국 비관세장벽의 완화/해소

- 우리 기업의 실질적 애로사항 해소
 - 在中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 對중국 시험인증 애로 완화 방안
 - * (예) 국제공인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 기간 및 비용축소 협력 등
- 중국 비관세장벽의 완화/해소
 - 원산지, 통관 관련 비관세장벽 완화/해소
 - * (예)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48시간내 통관 원칙, 세관 집행의 일관성 증진, 특혜관세 사후 신청, 특송화물 서류 최소화, 시험 샘플 통관 원활화 등
 -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예) 비관세조치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확보, 비관세조치 해결 작업반 설치, 비관세조치 증개인 통한 해결 절차 도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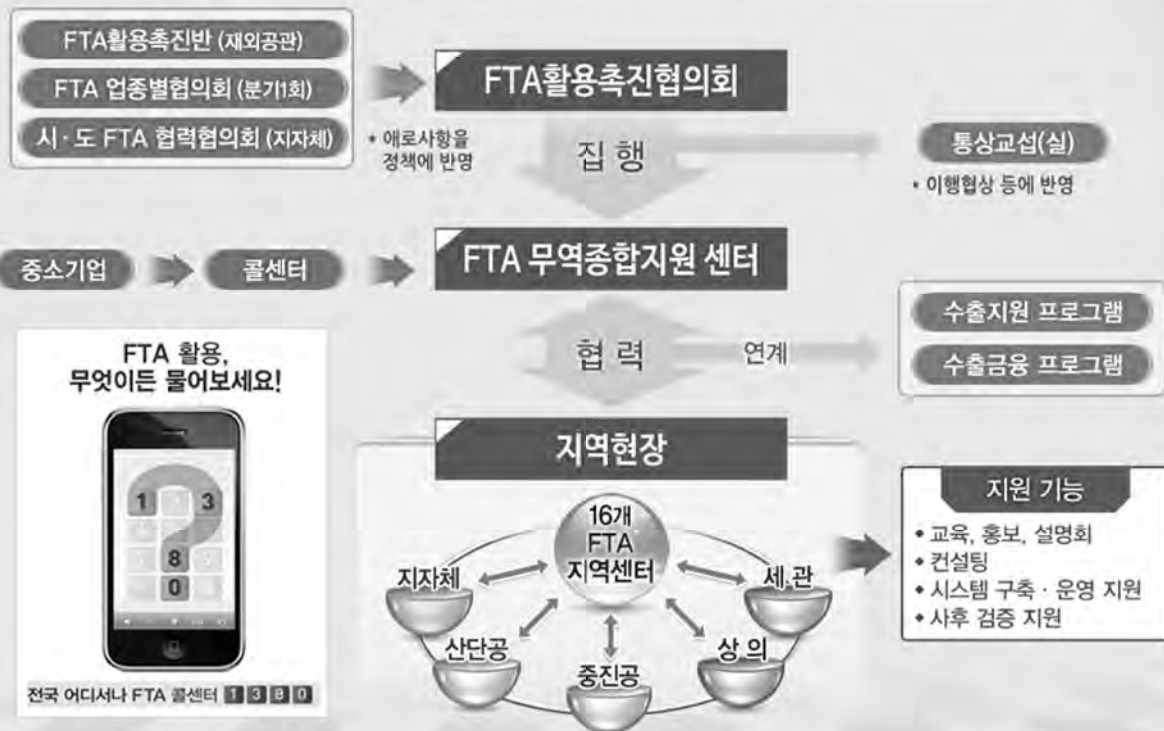


기대효과 중국내 우리 기업의 애로 해소 및 비관세장벽 완화/해소를 통해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

10

5. FTA 활용: 정부 지원 정책

수요자 중심의 현장맞춤형 FTA 활용 지원시스템 가동



11

참고 한-중 FTA 결과 안내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발간('14.12.3)

• 산업부(www.motie.go.kr), FTA 포털(www.fta.go.kr) 팝업 등재



개별 품목 관세양허 및 원산지기준 안내 중

업 종	산업부 담당과	연락처
섬 유	섬유세라믹과	044-203-4294, 4297
철 강	철강화학과	044-203-4286, 4282
전자전기	전자전기와	044-203-4342, 4349
석유화학	철강화학과	044-203-4284, 4288
자동차	자동차항공과	044-203-4322, 4328
생활용품	디자인생활산업과	044-203-4374, 4375
기 계	기계로봇과	044-203-4316, 4319
기타(상품일반)	FTA상품과	044-203-5797, 5798
원산지기준 (PSR)	FTA무역규범과	044-203-5827, 5828

* 전체 품목 관세 양허표는 중국과의 합의에 따라 가서명 이후에 협정문과 함께 공개 예정

12

한-중 FTA !!

거대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농수산물 개방 최소화, 정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감사합니다 !!

세션1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

한중 FTA와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

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 연구위원

한중 FTA 이해와 활용전략

한중 FTA와 중국 비즈니스 환경 변화

2015. 1. 7

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

jmansoo@kif.re.kr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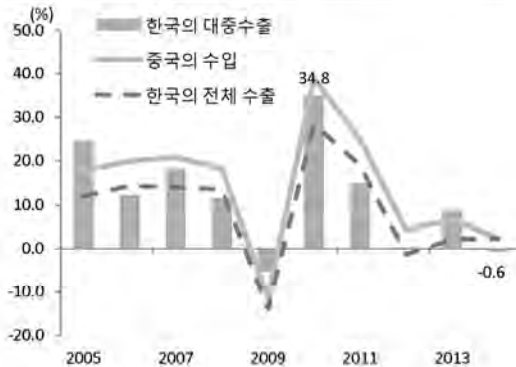
- I. China Peak
- II. 중국의 New Normal
- III. 한중 FTA
- IV. Biz 전략 : 내수시장, 투자
- V. 결론 : 근본적인 변화

I. China Peak

◆ 대중수출이 연간 20% 이상 증가하던 시기는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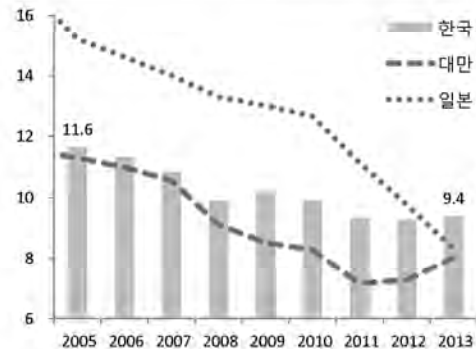
- 2014년 11월까지 한국의 대중수출은 -0.6%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님.
- 2000년~2013년간 중국의 성장률이 8% 이하였던 11개 분기에 대중수출 증가율은 평균 2.8%에 그침.

대중 수출 증가율(연간)



주 : 2014년 한국은 11월 누계, 중국은 10월 누계 기준
자료 : KITA

한, 일, 대만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자료 : CEIC

kif

1

<참고> 한국의 대중수출 부진은 지속될 가능성

◆ 대중수출 부진의 3가지 요인 : 성장둔화, 구조적 변화, 반사이익 소멸

(1) 중국의 성장 둔화가 대중수출 부진의 일차적 원인

- 한국의 대중수출 증가율은 2012년 0.1%, 2013년 8.6%, 2014년 -0.6%(11월까지)로 부진이 지속
- 2012년 이후 중국의 성장 및 수출이 둔화되고 수출용 중간재 수입도 둔화된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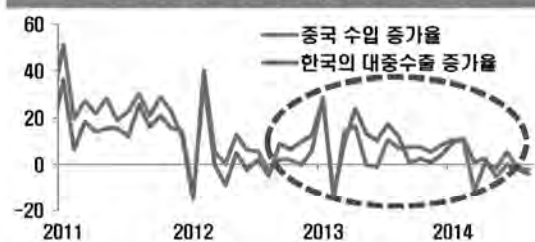
(2) 구조적으로도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가 향후 대중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

- 한국은 경쟁국에 비해 내수용 수출의 비중이 낮음.
- 중국 내수용 수출(일반무역)의 비중 : 한국 33.7%, 독일 77.8%, 미국 67.7%, 일본 49.9%(2012년)
-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석유제품 등에서 중국의 자급률이 급상승하여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감소

(3) 중일 외교관계 악화의 반사이익이 소멸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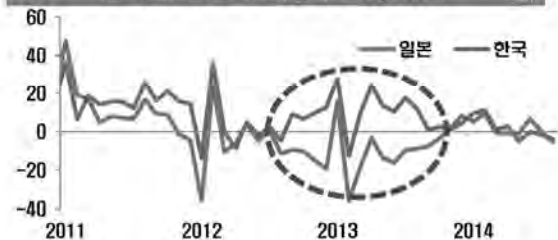
- 한국은 2012년 9월 일본의 센카쿠 열도 국유화로 촉발된 중일관계 악화의 반사이익을 누려왔음.
- 2014년 들어 중일관계 악화의 반사이익은 소멸되기 시작한 반면, 향후 엔저의 효과가 발휘될 전망
- 한국과 일본의 대중수출 상위 100개 품목(HS6단위) 중 54개 품목이 중복되며 이들 중복품목은 한국 대중수출 총액의 75%에 해당

한국의 대중수출과 중국의 수입 증가율 (%)



자료 : CEIC

한국과 일본의 대중수출 증가율 (%)



자료 : CEIC

kif

2

I. China peak

◆ 대중투자 붐도 꺼져가고 있음.

- 중국에 대한 신규투자 기업 수가 2006년의 1/3수준으로 위축 (2,400 → 800)
- 특히 중소기업이 중국을 투자대상지로 활용하던 시대는 사실상 종료
- 중국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수도 2011년 419만에 달한 이후 감소 중



자료 : 한국 수출입은행



자료 : 중국 국가여유국

kif

3

I. China peak

◆ 한중 FTA와 원-위안 직거래... , 더 이상 카드는 없음.

- 2014년은 한중 FTA 타결과 원-위안 직거래 체제 출범으로 실물과 금융 양 분야에서 정부간 경제협력의 peak에 도달
- 이로써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쓸 수 있는 획기적인 카드는 더 이상 없음.

실물 : 한중 FTA

2014. 11. APEC 정상회의
- 중국이 제조업 강국과 맺은 첫 번째 FTA

금융: 원-위안 직거래

2014. 7. 한중 정상회의
- 금융분야 협력 및 역외 위안 화 허브 경쟁의 출발점



kif

4

II. New Normal

◆ 중국은 리커노믹스에서 뉴 노멀로 진화

- 향후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 키워드임.
- 원래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저성장, 저소비를 설명하는 하의 개념으로 미국에서 먼저 사용되었으나, 2014년 5월 시진핑 주석이 허난성을 방문할 당시 新常态라는 표현으로 중국에 적용



[리커창 → 시진핑, 정책 → 상태, 불확실성 → 확실성, 내용은 계승/확대]

k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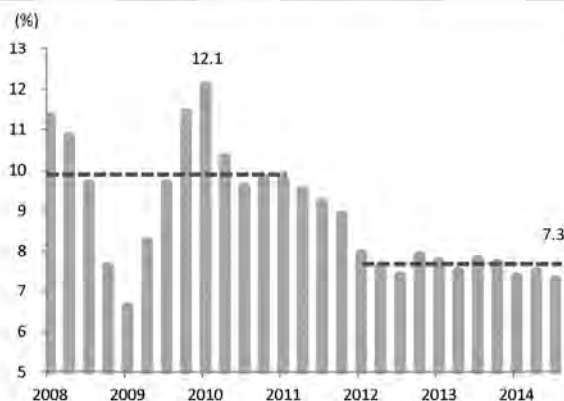
5

II. New Normal

◆ 7% 대에 안착한 성장률에 대해, 앞으로 추가하락도 용인하겠다는 입장

- “성장은 고용을 위한 것이다” 라는 슬로건 아래 성장보다 고용에 더 관심
- 성장률 둔화(10%대 → 7%대)에도 불구하고 신규고용은 증가하고 실업률은 안정적인.
- 이에따라 적정 잠재성장률 수준이라고 얘기되는 5~6% 대의 성장을 용인하는 분위기임.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



자료 : CEIC

뉴노멀 시대 중국의 성장률에 대한 전망

전문가	성장률 전망
장쥔궈(张军扩) DRC 부주임	당분간은 중고속성장을 유지, 잠재성장률 6~8% 예상
송리(宋立) NDRC 경제연구소 부소장	도농간 이원구조 때문에 급격한 성장을 하락은 없음.
장잔빈(张占斌) 국가행정학원	과도한 고속성장도 저속성장도 없을 것
웨이상진(魏尚进) ADB 수석 연구원	생산가능인구의 하락으로 10년 후 잠재성장률 5.7%
차이팡(蔡昉) 사회과학원 부원장	13차 5개년 기간 잠재성장률 6.2%로 예상

자료 :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 매일경제일보[第一财经日报] 정리

kif

6

〈참고〉 중국 정부의 성장 둔화 용인 가능성

◆ 구조조정 과정에서도 안정적인 고용사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중국 정부가 성장 둔화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음.

■ 성장을 둔화에도 불구하고 실업률, 신규취업자, 구인/구직배율 등 고용지표는 안정적인.

— 중국 도시등록실업률은 2010년 이후 4.1%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시 신규취업자 수도 2013년 1,310만명으로 사상최고 수준임.

— 구인배율은 2009년 초 0.86 수준에서 2013년 말 1.1 수준으로 오히려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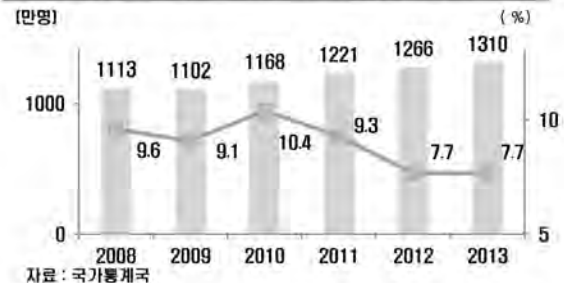
— 서비스 고용증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 고용사정 안정의 원인이라고 평가됨.

■ 최근의 양호한 고용상황은 중국정부가 구조개혁에 주력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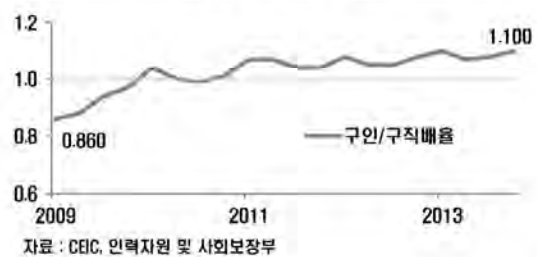
—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면 정치사회적 위기가 나타날 것이라는 이른바 “자전거 경제론” 이 기각됨.

— 리커창 총리는 2014년 3월 정부업무보고에서 “안정적 성장은 무엇보다 취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힘으로써, 거꾸로 고용만 양호하다면 성장률의 추가하락도 용인할 수 있음을 시사

성장률(우)과 도시 신규취업자 수(좌)



구인/구직배율



kif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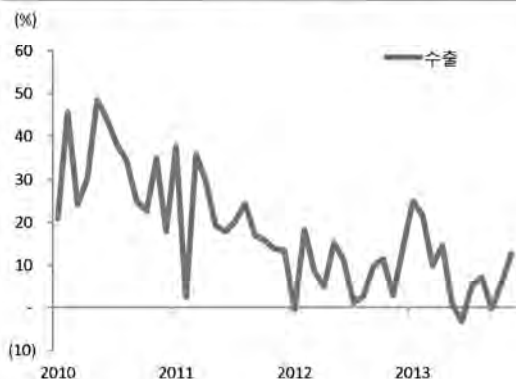
II. New Normal

◆ 내수 중심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상은 내수도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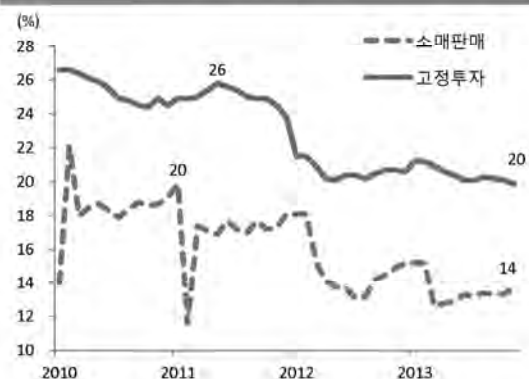
■ 내수소비 중심으로의 성장전략 전환은 실제로는 매우 장기적인 과정

— 당장은 수출, 투자, 소비의 동반 둔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소득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기업의 투자를 자극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임.

중국의 수출 증가율(월별)



투자과 소비 증가율(월별)



ki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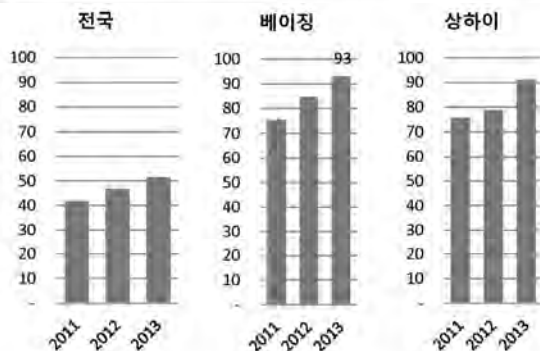
8

II. New Normal

◆ 임금인상(투자환경) Vs. 2만불 중국(시장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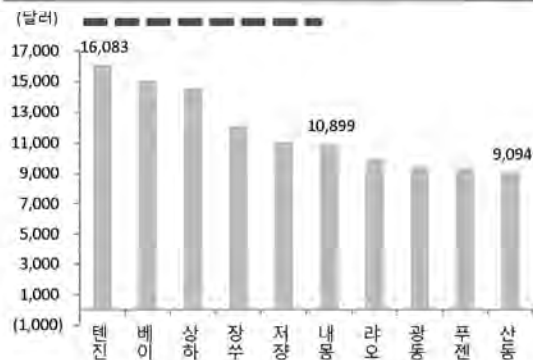
- 적극적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소득(소비기반)을 확충하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투자환경 악화
- 7%대 성장 아래서 2013년 임금상승률 전국 10.8%, 상하이 15.6% + 각종 사회보장 비용
- 2014년 연해지역은 대부분 10,000달러 소득에 도달하였고, 향후 5년 내 5~6개 지역이 2만불 도달

지역별 임금 상승



단위: 전위안
자료: CEIC

지역별 일인당 GDP (2013년)



자료: CEIC

kif

9

II. New Normal

◆ 뉴 노멀 아래서 각 분야별 제도변화

- 뉴 노멀 아래서 각 분야의 제도변화의 내용과 방향이 이미 대체로 가시화되어 있음.

영역	Old 투자-수출 중심	New 내수 소비 중심	현상
금융	- 낮은 대출금리 - 성장지원	- 금리자유화 - 거시안정	- 예금금리 자유화 준비 [예금보험] - 인프라/부동산 투자 붐의 악화
환율/외환	고환율	시장환율 (Russia)	자본시장 점진 개방→변동성 확대 [2013.1. "QFII 10배 확대기대" 귀슈칭]
노사관계	통제 [노조조직률]	임금인상 [단체협약 적용율]	단체협약 적용율 80% [by 2015] [2013.2.3. 소득분배 의견 국무원]
도시화	도농분리/ 농민공	도농통합 및 시민화	농민공에 대한 임금 및 사회보장 비용 [2013년 농민공 양로/의료보험 가입률 15.7%, 17.6%]
산업/기업	자유진입/경쟁시장	기업퇴출 강조 대기업 육성	9개 중점산업 구조조정[2013.1] 설비과잉 해소를 위한 의견[2013.10] 대기업 급성장

kif

10

III. 한중 FTA

◆ China Peak 와 New Normal의 돌파구?

▪ 한중 FTA : 수출 분업 시대의 지리적 인접성 → 내수시장 개척 시대의 제도적 인접성

• 상품 : 품목수 90%, 수입액 85%, 최대 20년

- ✓ 시장 개방효과의 극대화보다 중소기업, 농수산업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
- ✓ 중국 산업의 빠른 고도화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
- ✓ 수출용 생산기지로서의 중국보다는 최종 수요처로서 중국시장 접근에 유리
- ✓ 중국 내수시장에서 독일, 미국, 일본 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 서비스 : 2년 후 Negative 방식으로 후속 협상

- ✓ 숨어있는 성과
- ✓ 중국 내부적 요구 및 외부의 압력(중미 BIT)에 따른 변화를 적기에 수혜
- ✓ 새로운 투자와 취업의 기회가 될 수 있음.

IV. Biz 전략 : 내수시장

◆ 중간재, 소비재, 서비스... 타겟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

▪ 막연한 내수시장 공략이 아니라, 그 공략의 타겟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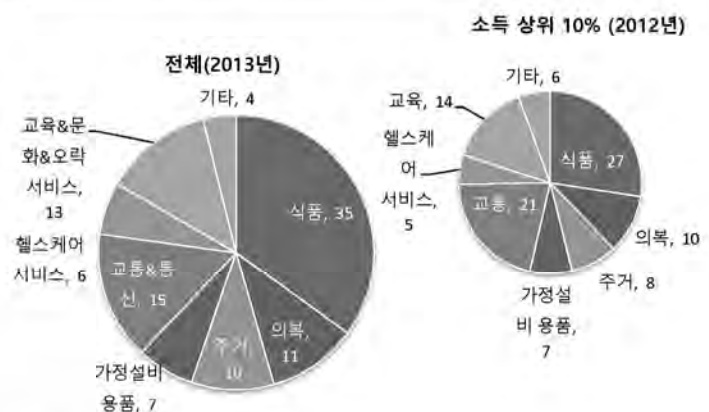
- 핵심은 중간재 수출의 내수용 전환 (소비재 수출이 100% 증가해도 대중수출 3% 증가)
- 중국 소비시장은 필수적인 의식주(56%)와 각종 서비스(34%)로 90%가 구성되어 있음.

한국의 대중수출품 구성 [%]



주: 2014년은 7월까지 누계
자료: 국제무역연구원, 2014.8

중국 도시지역 소비지출 구성 [%]



자료: CEC

IV. Biz 전략 : 내수시장

◆ 중간재, 소비재, 서비스... 분야별 접근 전략이 필요

- 이미 가진 것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

내수시장의 분야별 성격에 따른 접근 전략

시장	시장의 성격	접근 경로
중간재	❖ 기업간 시장(제품의 품질/가격에 민감) ❖ 최종 조립업체가 내수/수출 결정 ❖ 중국 제품의 수입대체 진행 중	- 기존 분업구조 자체가 접근 경로 - 수출기업 :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유지 - 동반진출 기업 : 마케팅 확대 - 장비의존형 → 기술/숙련의존형
소비재	❖ 개인 시장(제품 이미지가 중요) ❖ 더 나은 제품, 혹은 다른 제품 ❖ 브랜드나 유통망이 중요 ❖ 중국 제품이 세계적 경쟁력	- 글로벌 기업 : 자체 브랜드, 유통망 - 수출기업 : 채널 개척이 핵심 [타오바오, 직구, 홈쇼핑...] - 소비 트렌드 선점, 테마형성, 단기
서비스	❖ 기본적으로 내수 산업 ❖ 사람이 공급(소통 능력 중요) ❖ IT 산업 수요 성장 중 ❖ 공공/생산형 서비스는 규제산업	- 소비형 : 취업과 연결하여 진출 [숙련, 감각, 트렌드 등 차별화] - IT : 중관존 → 실리콘 밸리 - 공공/생산형 : 한중 FTA 통한 개방

IV. Biz 전략 : 내수시장

◆ 변화의 bottle neck을 찾아야

- 2만불 사회 진입, 임금/가계소득 증가, 산업고도화 추진 등이 각 분야에서 병목을 형성할 수 있으며, 그러한 병목을 예측하고 발견하는 것이 중요함.
- 과거 한국이 누린 중국 특수 역시 중국의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병목을 포착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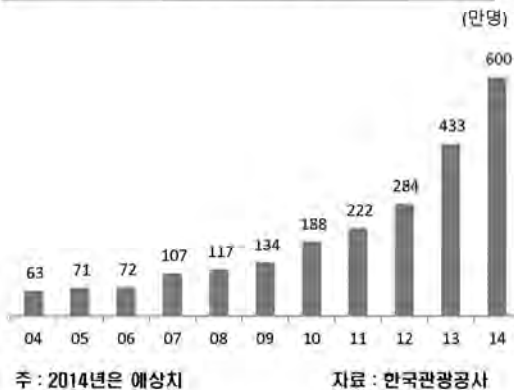
변화	병목	수요(특수)	
WTO 가입(2001) 수출주도 성장	중간재, 원자재 글로벌 시장과의 연결 능력	대중 중간재 수출 수출가공기지로 활용	과거
4조 위안 경기부양 및 인프라 투자 붐(2009~)	원자재, 자본재	대중 자본재 수출	
New Normal 산업고도화, 질적 성장	고급 자본재 및 중간재 생산기술 환경보호	자본재 수출 장치산업 대중 투자 친환경설비/소재	미래
2만불 중국	새로운 욕구 만족	소비의 다양성	

IV. Biz 전략 : 내수시장

◆ 중국인 방문자를 통한 중국 중산층 내수소비 직접 연결

- 600만 중국인 방문객은 2만불 중국의 소비시장과 직접 연결되는 최적의 통로임.
- 중국인 해외방문은 연 3,300만 명 수준(2013년, 홍콩, 마카오 포함시 9,818만)으로 아직 시작단계
[2013년 한국의 인구대비 출국자수 비율 29%, 선진국 40%]
- 한국 방문의 성격에 유의 : 관광, 쇼핑 ? 소비의 다양화 !

중국인 방문자 수



'유지'와 '유치' 공공재

잠재력 : 한국은 상해 이북 중상류층에게 제2의 홍콩(연간 4,030만), 주말 소비 여행지
문제 : 공유지의 비극, 전략과 규제 필요
[명동이 왕푸징이 되면 ?]
[문산전략, 특성화 전략]

활용 : 기업

자체활용 : 소비를 구매에서 체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
마케팅 활용 : 소비재 중국 시장개척의 통로로 활용
[ex 정계산 관광 프로그램과 아웃도어]

IV. Biz 전략 : 투자

◆ 기업의 성격에 따라 중국 투자 전략도 다름.

- 글로벌 기업, 가치사슬형 기업, 독립 중소기업, IT 기업 등

기업 성격

Global

기술력, 브랜드, 자금력

협력사

납품형, 안정적인 수요처

독립 중소기업

전통 중소기업, IT 기업

문제, 도전

알아서

따라서 + 고객 탐색

전통 : out-leave-in
IT : 기업의 상품화

IV. Biz 전략 : 투자

◆ 수출형 독립 중소기업 : Out - leave - in 전략

- 이미 누가 Next China의 가치사슬을 선점하느냐를 놓고 거대한 승부가 진행 중
- 일본(기존 동남아 네트워크 + China plus one 전략) Vs. 중국 제조업 기업의 해외투자
- 새로운 가치사슬 형성지로 나가서, 가격경쟁력을 얻어서, 중국 시장에 팔아야



kif

17

IV. Biz 전략 : 투자

◆ IT 기업 : 기업과 능력을 제값 받고 팔아야

- 중국 거대기업들의 M&A가 활발한 IT 분야에서는 가진 것을 지키는 전략보다는 제값 받고 파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임.
- 기업 가치의 packaging이 되지 않으면, 인력과 기술 유출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



Key points

- 기술 : 보호(IPR)받거나, 체화하거나(intangible)
- 인력 : 충성도 없는 인력은 자산이 아님 (profit sharing scheme)
- 시장 : 기존 글로벌 고객 방어
중국시장의 가치 정확히 평가

kif

18

V. 결론

◆ 근본적인 변화 Vs. 근본적인 기회

- 과거 중국 위협의 핵심이 “저렴한 노동력” 이었다면, 그 위협이 5년 후에는 사라진다 ?
- 한국 옆에 “제조업이 강한 미국” 이 생긴다?



세션2 열리는 시장, 커지는 시장(업종별 전망)

농산물
분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선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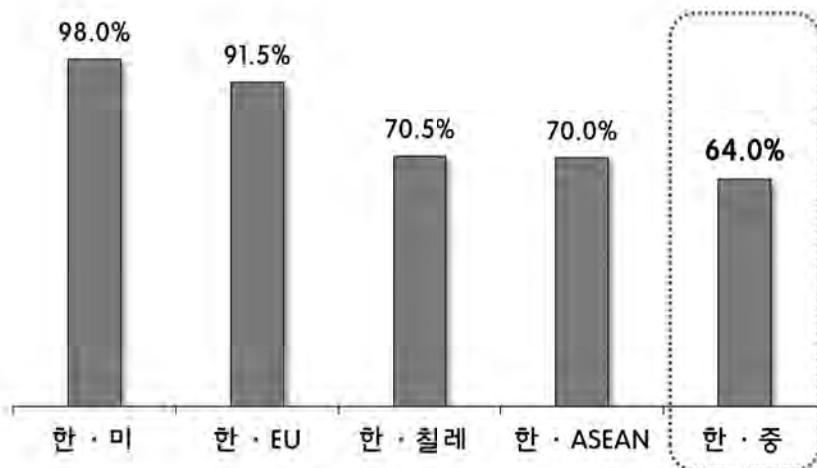
한·중 FTA와 중국 농산물시장 진출 전략

2015년 1월 7일

어명근 선임연구위원

한·중 FTA 양허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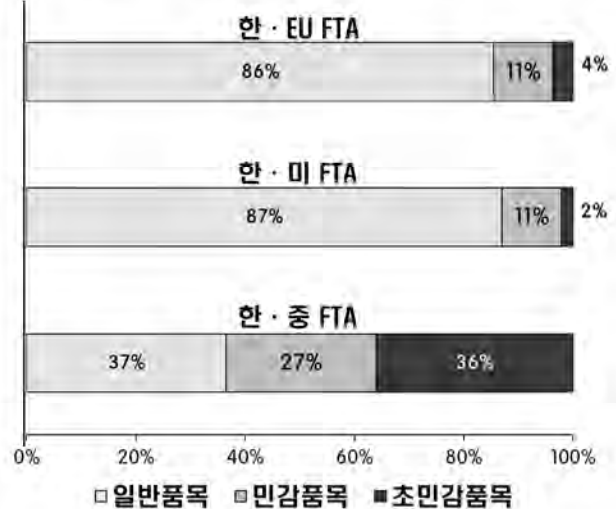
[한·중 FTA 농산물 자유화율] 품목수 기준 64%, 수입액 기준 42%
역대 FTA 최저 수준



한·중 FTA 양허안 개요

전체 농산물(1,611개) 중 초민감품목 581개(36.1%),
민감품목 441개(27.4%), 일반품목 589개(36.6%)로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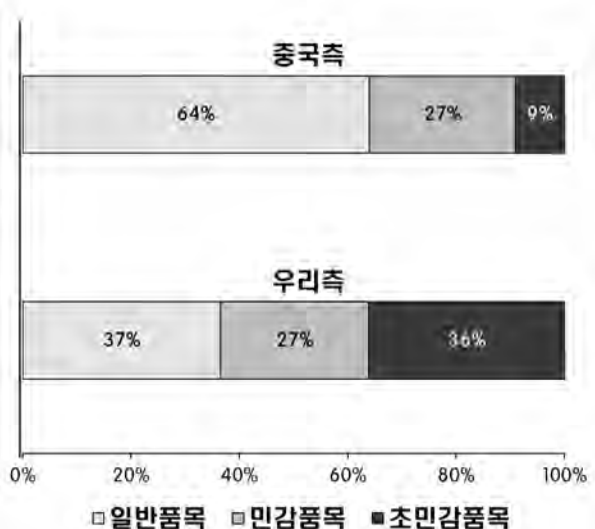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즉시 철폐	216 (13.4)	15년 철폐	202 (12.5)	TRQ	7 (0.4)
5년 철폐	209 (13.0)	20년 철폐	239 (14.8)	부분감축	26 (1.6)
10년 철폐	164 (10.2)			양허 제외	548 (34.0)
소계	589 (36.6)	소계	441 (27.4)	소계	581 (36.1)



한·중 FTA 양허안 개요

[중국측 자유화율]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38%
향후 수출 가능성 제고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	
즉시 철폐	221 (19.5)	15년 철폐	203 (17.9)	부분감축	1 (0.1)
5년 철폐	65 (5.7)	20년 철폐	101 (8.9)	양허 제외	101 (8.9)
10년 철폐	439 (38.8)				
소계	725 (64.1)	소계	304 (26.9)	소계	102 (9.0)



우리나라 양허안의 주요 내용과 특징

주요 신선농산물이 대부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된 '낮은 수준의 FTA'

- 주요 농축산물 85개 가운데 78개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관세철폐 양허유형이 11개로 미국(22개)이나 EU(21개)에 비해 단순화

- 일반품목은 즉시철폐와 5년 철폐, 10년 철폐, 민감품목은 15년과 20년 철폐 (3가지), 초민감품목은 부분감축(2가지)과 TRQ 조건부 현행관세 유지 및 양허제외
- 주요품목들이 양허제외됨으로써 나머지 품목들은 양허 유형이 비교적 단순

중국의 관심품목 일부는 TRQ 증량이나 부분감축으로 시장접근 기회 제공

- TRQ 증량 7개 품목, 5년간 부분감축 11개, 10년간 부분감축 15개

한·중 FTA 시장개방 효과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 대부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 제한적

 국산 자급률 낮고, 중국산 수입 많은 대두, 참깨, 맥아, 팥 등
TRQ 제공 조건부 현행세율 유지로 직접 피해 최소화

- 2013년 국내 자급률: 대두(콩나물콩) 12%, 참깨(13.7%), 팥(19.7%)
- TRQ 물량: 대두 10천톤, 참깨 24, 고구마전분 5, 팥 3, 기타사료 38, 맥아 5천톤

 김치와 혼합조미료 등 일부 가공농산물은 관세율 소폭 인하,
수입증대 효과 미미할 전망

- 김치: 20% → 19.8%
- 혼합조미료, 기타 소스류: 45% → 40.5%

중국의 농식품 시장규모와 수입비중



중국의 농식품 시장 규모 빠르게 성장

- 2013년 중국의 농식품 시장 규모는 약 6.2조 위안(한화 1,070조 원)
- 2000년 이후 연평균 성장률 11.1%



중국 농식품 시장의 주요 특징

- 식품안전성 관심 증대
- 식생활 서구화로 유제품, 육류, 열대과일류 수입 증가
- 도농간 식품시장 성장률 격차 2배(2000-2013)
 - 도농 소비패턴 차이: 곡물 이외 채소, 과일, 육류 등 도시가 더 많음.
- 온라인 구매 급증

중국의 농식품 시장규모와 수입비중

<중국의 농식품 시장 규모>

단위: 억 위안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도 시	9,049	16,383	32,181	38,037	43,000	46,148
농 촌	6,633	8,663	12,085	13,836	14,924	15,715
전 체	15,682	25,046	44,266	51,873	57,924	61,863

중국의 농식품 시장규모와 수입비중



한국 농식품의 중국 농식품 수입시장 점유율 1% 수준

- 중국의 농식품 수입액: 113억 달러(2000) → 1,189억 달러('13)
- 연평균 19.8% 증가
- 한국 농식품 중국 수출액: 1.7억 달러 → 13.2억 달러
- 연평균 17.1% 성장
- 중국 수입농식품 시장점유율 1.1% 수준

단위: 억 달러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연평균 증가율
농식품 시장규모	1,896	3,058	6,539	8,031	9,176	9,989	13.6
농식품 수입액	113	288	726	949	1,124	1,189	19.8
(비중)	5.9	9.4	11.1	11.8	12.3	11.9	
한국농식품 수입액	1.7	3.4	7.9	13.8	12.8	13.2	17.1
(비중)	1.5	1.2	1.1	1.5	1.1	1.1	

한·중 FTA 시장개방 효과



FTA 체결 따른 중국시장 농식품 수출증대 효과 단기적으로 미약

〈중국의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양허 내역〉

2011-2013 평균

품목명	수출액(천 달러)	중국관세율	양허안
조제분유	39,773	15	양허제외
- 인삼음료	757	35	20년 철폐
유자(조제가공)	18,891	20	20년 철폐
귤련(필터담배)	17,337	25	양허제외
생우유	4,451	15	양허제외
쇠고기(냉동)	3,515	12	15년 철폐
고추장	2,950	21	20년 철폐
소시지	1,899	15	10년 철폐
연유	1,828	10	양허제외
팽이버섯	1,796	13	10년 철폐
꿀(인조꿀)	1,720	30	양허제외
토마토(케첩)	1,533	15	10년 철폐
たく주	1,389	40	20년 철폐
간장	1,383	28	20년 철폐
우유조제품(유아용분유)	1,085	15	양허제외
된장	860	21	20년 철폐
홍차	775	15	10년 철폐
기타 감귤류(주스, 통조림, 기타조제품)	747	18(주스), 20(통조림, 기타)	15년철폐 (주스, 통조림) / 20년

한·중 FTA 시장개방 효과



신규 수출유망 품목의 수출성장세 유지 전망

- 최근 수출증가율 높은 품목의 관세철폐로 수출 증대 가능

(표 계속)

품목명	수출액(천 \$)	중국관세율	양허안
인삼류	38,961	20	15년/양허제외
- 홍삼/ 백삼/ 홍삼분/ 수삼	31,705/ 711/ 701/ 674	20	15년 철폐 / 양허제외(건삼)
- 홍삼조제품	1,930	20	양허제외
김치	83	25	20년 철폐
딸기(냉동, 기타조제품)	40	30(냉동) / 15(기타조제)	20년 철폐(냉동) / 10년 철폐(기타조제)
마늘(기타)	557	13	10년 철폐
새송이버섯	43	13	10년 철폐
돼지고기(햄)	670	15	10년 철폐
탈지분유	23	10	양허제외
전지분유	101	10	양허제외
치즈	238	12 / 15(블루바인)	15년 철폐
발효유	286	10	양허제외

자료: oT, 농수산물무역정보

중국시장 진출 전략



미국, EU, 일본 등 거대경제권 아무도 중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FTA 협상 타결은 매우 중대한 의미



한·중 FTA는 관세보다 동식물 검역의 중요성 높아

- 동식물 방역법상 신선 육류와 과실류 수입 규제
- 중국 측 "검역의 지역화(Regionalization) 노력 명시"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
- WTO/SPS 협정상 지역화 적용 조항 준수 수준(산동성 양빛 사례)



FTA를 활용한 중국시장 농식품 수출 증대 전략 수립 및 시행 필요

- 수출농가와 기업체 대상 "품목별 원산지규정(PSR)" 교육, 홍보 강화
- 물류비 지원 위주의 농산물 수출지원정책을 FTA 특혜관세 적용 위한 원산지 증명 발급 지원(One-stop 서비스) 등으로 확대, 전환
- 수출용 가공농식품에 국산 원재료 사용 확대 지원



중국 특유의 수입 농식품 유통구조 활용한 수출마케팅

- 대형마트는 대부분 대리상(Vender) 통해 농 식품 수입
- 대리상이 위험분산(Risk Hedging) 기능
 - 대금결제(대리상 즉시 지급, 대형마트 월 단위 수금)
 - 반품 및 재고 처리(할인 처분)
 - 시장선호와 소비자 니즈 전달(Feed-back) 기능
- 중국의 대형수입업체나 도매상보다 대리상이 마케팅과 접근 용이



제품 전략(Product)은 고급화, 안전성, 편의성 중시

- 고급화: 위신과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 문화와 선물용구매
- 안전성: 자국의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신과 한국의 이미지 활용
- 편의성: 소포장과 즉석식품 등 핵가족, 청년층 공략

감사합니다

세션2 열리는 시장, 커지는 시장(업종별 전망)

공산품
분야

KOTRA 정환우 조사담당관



한중 FTA 제조업분야 영향과 활용전략

정 환 우

KOTRA 중국조사담당관

2015. 1. 7



순서

1

• 한중 무역구조의 특징과 한중 FTA

2

• 업종별 점검 : 영향과 진출 시사점

3

•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안

한중 무역의 특징 : 무역형태

- 한국 대중수출의 절반 가량은 가공무역
- 중국 전체 가공무역 비중 감소하는 반면, 대한민국 가공무역은 증가
- 가공무역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 : 한국→대만→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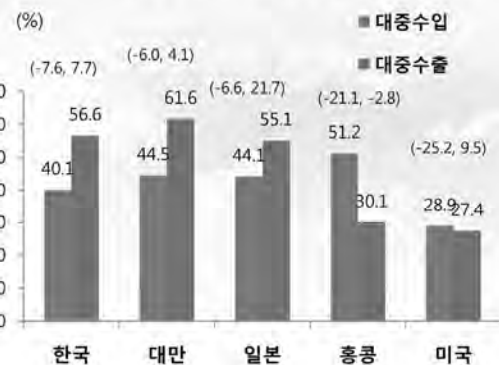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에서 가공무역의 비중 변화>



자료 : 중국해관정보센터

<중국의 주요국별 가공무역 수출입 구조 비교('07, '12)>

* ()안은 '07년 대비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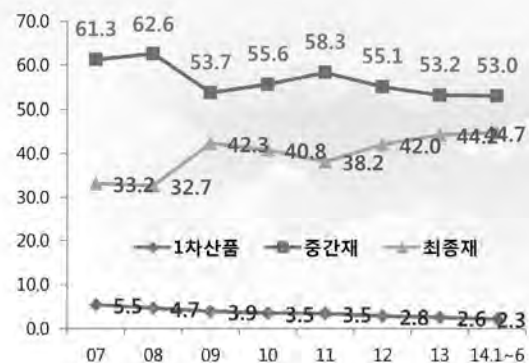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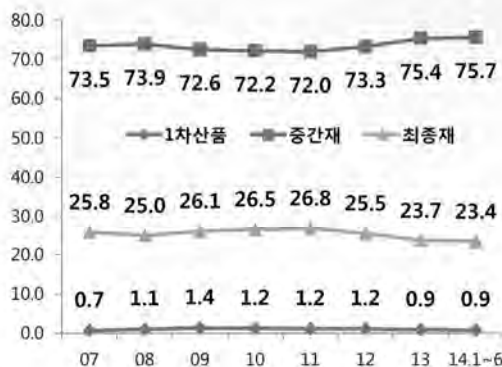


3

한중 무역의 특징 : 가공단계

- 중국의 대한민국 수입에서 중간재 75.7%('14년 상반기)이며 계속 확대중
- 중간재 중에서 부품·부분품 비중 급속 확대중
- 중국의 대한민국 수출에서 최종재 비중 증가, 중간재 비중 하락
- 최종재 중에서 자본재 비중 급속 증가, 소비재 완만하게 증가(15%('14년 상반기))

<중국의 대한민국 가공단계별 수입(좌) 및 수출(우) 구조>



4

순서

1

- 한중 무역구조의 특징과 한중 FTA

2

- 업종별 점검 : 영향과 진출 시사점

3

-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안

5

섬유·의류 : 수출입 현황

- (무역) 무역규모 적으며, 대중 흑자, 관세율 비슷
- (산업) 한국 기술 우위, 단 중국 추격 신속하며 대규모

<중국의 대한국 섬유원료(사) 무역 현황>

분야	HS코드	품목명	대한국 수입					대한국 수출					무역수지
			수입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수출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가공 원자재	540761	Woven fabric >85% non-textured polyester filaments	1.37	0.07	1	9.5		0.36	0.04	22	8		-1.01
가공 원자재	550320	Staple fibres of polyesters, not carded or combed	1.17	0.06	4	4.5		0.04	0.00	43	8		-1.13
가공 원자재	551219	Woven fabrics, containing >=85% of polyester staple fibres, o/t unbl or bl	0.86	0.05	-5	10		0.28	0.03	38	5		-0.58
가공 원자재	540742	Woven fabrics, >=85% of nylon/other polyamides filaments, dyed, nes	0.67	0.04	0	9.5		0.02	0.00	26	8		-0.65
가공 원자재	520523	Cotton yarn, >=85%, single, combed, 232.56 >dtex >=192.31, not put up	0.53	0.03	105	3.5		0.47	0.05	18	8		-0.06

<중국의 대한국 직물 무역 현황>

분야	HS코드	품목명	대한국 수입					대한국 수출					무역수지
			수입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수출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가공 원자재	590320	Textile fabrics	1.78	0.10	7	8.5		0.65	0.07	12	5		-1.13
가공 원자재	600632	Dyed fabrics, knit or crochet, synthetic fibre	1.68	0.09	-2	8.5		0.58	0.06	36	10		-1.10
가공 원자재	600410	Knitted, crocheted fabrics, width of >30 cm	0.91	0.05	9	8.8		0.07	0.01	-7	10		-0.84
가공 원자재	590390	Textile fabrics impregnated	0.63	0.03	-6	8.5		0.15	0.02	11	10		-0.48
부품(운송의자본재용)	591190	Textile products for technical uses, nes	0.53	0.03	23	8		0.13	0.01	26	8		-0.40

6

섬유·의류 : 수출입 현황

- (무역) 대규모 대중적자, 한국 관세율이 더 높음, 중국 현지생산 체제
- (산업) 한국 기술·디자인·브랜드 우위, 한국 고급제품 경쟁력
- 단, 중국 추격중

<중국의 대한국 의류 무역 현황>

분야	HS코드	품목명	대한민국 수입					대한민국 수출					무역수지
			수입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수출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반내구소비재	611030	Pullovers, cardigans and similar articles of man-made fibres, knitted	0.12	0.01	19	10.9		2.41	0.26	21	13		2.29
반내구소비재	620443	Womens/girls dresses, of synthetic fibres, not knitted	0.08	0.00	36	12.3		0.18	0.02	10	8.1		0.11
비내구소비재	621790	Parts of garments or of clothing accessories of textile material, not knitted	0.07	0.00	13	12.6		0.02	0.00	-5	13		-0.05
반내구소비재	620433	Womens/girls jackets, of synthetic fibres, not knitted	0.06	0.00	23	12.3		0.41	0.05	5	6.5		0.35
반내구소비재	611011	Jerseys, pullovers, cardigans, waistcoats and similar articles, of wool	0.06	0.00	19	9.3		0.24	0.03	29	6.5		0.18
반내구소비재	620462	Womens/girls trousers and shorts, of cotton, not knitted	0.06	0.00	3	14.4		1.70	0.19	5	7.8		1.64
반내구소비재	620211	Womens/girls overcoats and similar articles of wool or fine animal hair, not knitted	0.04	0.00	31	11.7		0.42	0.05	17	6.5		0.37
반내구소비재	620463	Womens/girls trousers and shorts, of synthetic fibres, not knitted	0.04	0.00	27	12.3		0.50	0.06	8	6.5		0.46
반내구소비재	611020	Pullovers, cardigans and similar articles of cotton, knitted	0.04	0.00	3	11		1.61	0.18	-2	6.5		1.57
비내구소비재	611595	Full-length or knee-length stockings, socks and other hosiery, incl. f	0.04	0.00	12	14		0.27	0.03	32	13		0.24

7

섬유·의류 : 영향평가와 대응시사점

<영향평가>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산업·무역특성	종합
섬유사	- 高 보호 - 고부가가치 섬유제품·의류 개방 ↑	- KOTITI 인증 불인정 → 상호인증 필요 - 통관지연 - 빈발 → 통관장벽 개선	- 가공무역 수출 84.8% - 섬유사 적자, 직물 흑자, 섬유제품 (의류·액세서리) 적자 - 기술격차 근접 - 원사→직물→가공→제품간 SC 연계 시 전체 산업 위험	- 고보호 - 고부가가치 제품기회 ↑ - 한중간 분업속 추격 지속
직물				
의류				

<대응시사점>

Biz 유형	시사점
수출	기술격차 지속, 내수시장·틈새시장 개척
현지경영	디자인·브랜드 육성, 유통 강화
공통	GVC(한-중-베트남 등) 확대·활성화, 역외가공 활용, 국내 고부가가치 제품 R&D·생산 강화, 중소기업 활용지원 강화

8

철강 : 수출입 현황

- (무역) 대규모 대중적자, 한국 무관세, 한국 고부가가치 철강제품 대중 흑자
- (산업) 한국 기술 우위, 중국 추격중

분야	HS코드	품목명	대한민국 수입					대한민국 수출					무역수지
			수입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수출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52.44	2.86				93.09	10.21				40.65
가공 원자재	721049	Flat rolled prod./i/nas,plated or coated zinc	5.91	0.32	-28	4		5.21	0.57	72	0		-0.7
가공 원자재	720917	Cold rolled iron/steel, coils	5.79	0.32	-2	21		0.90	0.10	97	0		-4.9
가공 원자재	721030	Flat rolled i/nas, electrolytically zinc coated	3.06	0.17	0	8		0.12	0.01	42	0		-2.9
가공 원자재	732690	Articles, iron or steel, nes	1.93	0.11	7	8.2		2.14	0.23	-23	5.6		0.2
가공 원자재	720916	Cold rolled iron/steel, coils	1.93	0.11	8	4.2		1.75	0.19	93	0		-0.2
가공 원자재	720918	Cold rolled iron/steel, coils	1.90	0.10	-4	4.2		0.18	0.02	34	0		-1.7
가공 원자재	721069	Flat rolled i/nas, coated aluminium	1.68	0.09	8	8		0.00	0.00		0		-1.7
가공 원자재	720851	Hot roll iron/steel, not coil	1.42	0.08	14	6		0.03	0.00	-79	0		-1.4
가공 원자재	721070	Flat rolled prod./i/nas,painted, varnished, coated	1.37	0.08	-14	4		7.36	0.81	25	0		6.0
가공 원자재	731815	Bolts o screws nes	1.30	0.07	10	4		0.57	0.06	18	4		-0.7
가공 원자재	720890	Flat rolled prod, i/nas, not further worked	1.24	0.07	-2	6		0.00	0.00	-88	0		-1.2
가공 원자재	721934	Flat rolled prod, stainless steel,	1.13	0.06	14	10		0.82	0.09	24	0		-0.3
가공 원자재	721913	Flat rolled prod, stainless steel	1.09	0.06	-8	4		1.90	0.21	54	0		0.8
가공 원자재	730890	Structures&parts of structures,i/s	1.07	0.06	0	4		10.95	1.20	13	0		9.9
가공 원자재	720827	Hot roll steel, coil,	1.06	0.06	8	5		0.00	0.00	-61	0		-1.1
가공 원자재	722550	Flat rolled prod.as.o/t stainless,cold rolled	1.00	0.05	14	3		0.00	0.00	128	0		-1.0
가공 원자재	731816	Nuts, iron or steel, nes	0.94	0.05	23	8		0.48	0.05	14	8		-0.5
가공 원자재	722511	Flat-rolled alloy steel	0.86	0.05	-27	21		0.15	0.02	317	0		-0.7
가공 원자재	730630	Tubes,pipe & hollow profiles,iron or nas	0.68	0.04	16	3		0.09	0.01	19	0		-0.6
가공 원자재	731210	Stranded wire,ropes&cables of iron or steel	0.61	0.03	-2	4		1.35	0.15	10	0		0.7
가공 원자재	722592	Flat rolled alloy-steel, zinc coated nes	0.48	0.03	671	7		0.00	0.00	145	0		-0.5

9

철강 : 영향 평가와 대응시사점

<영향평가>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산업 · 무역특성	종합
철강 철강 제품	- 고부가제품 원료 즉철 - 세번변경 기준 유리	- 中, 보조금 - 中, 투자허가·지분제한 - 中, 수입제한	- 中, 3~6% 韓, 무관세 - 가공무역 비중 低 - 中, 가격경쟁력 高 韓, 품질·기술경쟁력 보유, 단 격차 축소	-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 기회 ↑ - 한중간 분업속 추격 지속

<대응시사점>

Biz 유형	시사점
수출 · 현지경영	적정 분업체제 및 Value-chain 구축 운용
공 통	中 투자제한 완화, 수입제한, 덤핑 및 반덤핑에 대비 * 中의 보조금 문제에 대비

10

전기제품 : 수출입 현황

- (무역) 한국 무역적자, 중국 관세율 높고 다양, 중국 비관세장벽
- (산업) B2B·B2G 업종, 중국진출 글로벌기업 경쟁력 높음

분야	HS코드	품목명	대한민국 수입					대한민국 수출					무역수지
			수입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수출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자본재	850110	Electric motors not exce 37.5 W	0.8	0.04	19	8.2	15	1.5	0.16	1	8		0.6
자본재	850120	Universal AC/DC motors exce 37.5 W	0.0	0.00	-29	12	15	0.0	0.00	-48	8		0.0
자본재	850131	DC motors, generators, not exce 750 W	0.9	0.05	28	11	15	0.5	0.05	7	8		-0.4
자본재	850132	DC motors,DC generators, > 750 > 75KW	0.0	0.00	-13	10	15	0.2	0.02	122	8		0.2
자본재	850133	DC motors,generators, > 75 > 375KW	0.0	0.00	10	5	15	0.0	0.00		8		0.0
자본재	850134	DC motors, DC generators, exce 375 KW	0.0	0.00	126	12	15	0.0	0.00		8		0.0
자본재	850140	AC motors, single-phase, nes	0.1	0.00	13	12	15	0.9	0.10	22	6.8		0.8
자본재	850151	AC motors, multi-phase, not exce 750 W	0.1	0.01	18	5	15	0.1	0.01	0	8		0.0
자본재	850152	AC motors,multi-phase, >750 W > 75 KW	0.1	0.00	22	10	15	0.3	0.03	30	8		0.2
자본재	850153	AC motors, multi-phase, exceeding 75 KW	0.1	0.01	3	7.2	15	0.2	0.02	26	8		0.1
자본재	850161	AC generators (alternators), not > 75 KVA	0.0	0.00	18	5	15	0.0	0.00	23	8		0.0
자본재	850162	AC generators, >75 KVA not > 375 KVA	0.0	0.00	-11	12	15	0.0	0.00	28	8		0.0
자본재	850163	AC generators, > 375 KVA but > 750 KVA	0.0	0.00		12	15	0.0	0.00	77	4		0.0
자본재	850164	AC generators, exceeding 750 KVA	0.0	0.00	-27	7.3	15	0.3	0.04	293	0		0.3
자본재	850211	Generatg sets,diesel engines, not > 75 KVA	0.0	0.00	-53	10	15	0.0	0.00	25	8		0.0
자본재	850212	Generatg sets,diesel >75KVA not <375KVA	0.0	0.00	-18	10	15	0.0	0.00	55	8		0.0
자본재	850213	Generatg sets,diesel engines, exce 375 KVA	0.6	0.04	-25	7	15	0.1	0.01	5	2		-0.6

11

전기제품 : 영향평가와 대응시사점

<영향평가>

업종/품목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산업·무역특성	종합
회전기기 전선·절연물 정지형변환기 개폐·보호장치 전기응용기기	- 고수준 보호 (관세: 中, 10% 전후; 韓, 8% 전후)	中, 보호 강력 (국유기업)	- 中, 가격경쟁력 高, 합작생산 증가 - 韓, 품질·기술경쟁력 보유, 단격차 축소 - B2B, B2G 업종	- 고수준 보호로 큰 충격 없을 듯 - 중, 시장진출 장벽해소는 과제

<대응시사점>

Biz 유형	시사점
수출·현지경영	- NTB 완화하여 중국 내수시장 개척 - 분업체제 및 Value-chain 구축 운용 - 한국-중국-글로벌시장
공통	- 중국의 국유기업 보호에 대비(중전기) - 중국산 저가 범용제품 수입급증 대비 TBT 강화

12

전자 : 수출입 현황

- (무역) 한국 대규모 무역흑자(최대 수출품), 낮은 관세율(ITC),
- (산업) 수평적 아키텍처 업종, 품목마다 다르나 대체로 한국 경쟁력 우위(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폰 등 각자 상이)

분야	HS코드	품목명	대한민국 수입					대한민국 수출					무역수지
			수입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수출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부품	854231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967.21	52.83				379.74	41.65				-587.48
부품	854232	Integrated circuits as memories	220.03	12.02	31	0		5.83	0.64	4	0		-214.20
자본재	901380	Optical devices, nes, this Chapter	183.34	10.01	16	0		29.60	3.25	10	0		-153.73
부품	851770	Parts of telephone sets	181.04	9.89	6	6.1		22.38	2.45	18	4.1		-158.66
부품	854239	IC(excl. processors, controllers,	102.91	5.62	45	1		72.59	7.96	26	0.7		-30.32
부품	853400	Printed circuits	65.06	3.55	12	0		2.69	0.30	5	0		-62.37
자본재	847170	Computer data storage units	33.69	1.84	20	0		10.19	1.12	20	0		-23.49
자본재	852580	Television cameras ...	24.64	1.35	46	0		2.14	0.23	23	0		-22.50
부품	854190	Parts mounted piezo-electric crystals...	21.53	1.18	87	49.9		7.11	0.78	18	4		-14.42
자본재	852990	Parts use headings 85.25 to 85.28	17.13	0.94	37	0		0.36	0.04	-4	0		-16.76
부품	850780	Electric accumulators, nes	16.11	0.83	16	2.6		6.07	0.67	-7	5		-10.04
부품	854140	Photosensitive semiconduct device	13.36	0.73	-3	9		2.75	0.30	-7	6.2		-10.60
가공 원자재	853690	Electrical app for switchg/protec elec cir cuits,not > 1,000 V,nes	10.17	0.53	34	0		9.50	1.04	29	0		-0.67
부품	854233	IC as amplifiers	8.15	0.43	16	0		2.96	0.32	17	1.3		-5.19
자본재	853224	Electrical capacitors, fixed, ceramic diele ctric, multilayer, nes	6.30	0.34	5	0		1.91	0.21	4	0		-4.38
			5.20	0.28	1	0		1.90	0.21	20	0		-3.31

13

전자 : 영향평가와 대응시사점

<영향평가>

업종/품목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산업 · 무역특성	종합
반도체 디스플레이 핸드폰(부품) 인쇄회로	관세 감소 효과 미미 (높은 가공무역 비중, 반도체, 다이오드 등 당초 0%)	투자제한 (유도)	- 원 관세 부담 低 - 가공무역 多 - 한국 경쟁력 高 - GVC 활성화 업종	- FTA 수혜 기대 → 내수개척 + GVC 활성화 계기

<대응시사점>

Biz 유형	시 사 점
수출 · 현지경영 공 통	- GVC(가공무역) 활성화 - 내수진출전략 최적 재구성 전략 - 원산지증명 간접증명 방식 추진 필요, 지적재산권 보호

14

석유화학 : 수출입 현황



- (무역) 한국 대규모 무역흑자, 관세율 비슷, 최근 대중수출 부진
- (산업) 한국 기술 우위, 단 중국의 생산·기술 추격 급속

<중국의 대한민국 석유제품 무역 현황>

분야	HS코드	품목명	대한민국 수입					대한민국 수출					무역수지
			수입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수출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가공 원자재	270900	Petroleum oils, crude	0.0	0.00		0		0.00	0.00		1.5	즉철	0.00
석유제품	271011	Light petroleum oils	14.9	0.81	23		즉철	2.08	0.23	-7	3.3	15	-12.79
석유제품	271019	Other petroleum oils	64.7	3.54	19	4.6	15	10.09	1.11	55	6.6	즉철	-54.65
미가공 원자재	271091	Waste oils containing PCBs etc	0.0	0.00		6		0.00	0.00		5		0.00
미가공 원자재	271099	Other waste oils	0.0	0.00		6		0.00	0.00		5		0.00

<중국의 대한민국 석유화학제품 무역 현황>

분야	HS코드	품목명	대한민국 수입					대한민국 수출					무역수지
			수입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수출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가공 원자재	290243	P-xylene	42.85	2.34	57	2	제외	1.75	0.19	-3	1.5		-41.10
가공 원자재	290250	Styrene	19.66	1.07	13	1.4		0.10	0.01	56	0		-19.56
가공 원자재	291736	TPA	19.40	1.06	-5	6.2	제외	0.03	0.00	60	4.8		-19.37
가공 원자재	290122	Propene (propylene)	16.16	0.88	40	1		0.00	0.00		0		-16.16
가공 원자재	290121	Ethylene	13.14	0.72	38	2	10	0.00	0.00		0		-13.14
가공 원자재	290220	Benzene	5.72	0.31	37	2		0.00	0.00		1.5		-5.72
가공 원자재	290230	Toluene	5.68	0.31	25	2		0.02	0.00	-6	1.5		-5.66
가공 원자재	290531	Ethylene glycol (ethanediol)	5.07	0.28	12	5.5	제외	0.02	0.00	262	3		-5.05
가공 원자재	292610	Acrylonitrile	4.01	0.22	29	3		0.00	0.00		6.5		-4.01
가공 원자재	290723	4,4'-isopropylidenediphenol (bisphenol A, diphenylolpropane)	2.81	0.15	9	5.5		0.00	0.00	-67	5.5		-2.81
가공 원자재	290124	Buta-1, 3-diene and isoprene	2.19	0.12	20	2		0.10	0.01	-11	0		-2.10

15

석유·석유화학 : 영향평가와 대응시사점



<영향평가>

업종/품목	관세	비관세장벽	산업·무역특성	종합
석유제품	일부 완화	반덤핑조치 빈번	- 원자재(유가) 단가가 중요요인 - 중국 급속 생산확충 - 장치산업	- 관세철폐 효과 제한적 - FTA 효과와 관계없이 대중 Biz여건 악화
석유제품				

<대응시사점>

Biz 유형	시 사 점
수출·현지경영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 확대
공 통	중국의 반덤핑 조치에 대응

16

자동차 수출입 현황

분야	HS코드	품목명	대한민국 수입					대한민국 수출					무역수지
			수입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수출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산업용 운송장비	870210	Diesel buses, seating capa > 9 persons	0.00	0.00	-18	20.8		0.05	0.01	29	5.0		0.05
산업용 운송장비	870290	Buses seat capa, more 9 persons nes	0.00	0.00		25.0		0.00	0.00	72	5.0		0.00
산업용 운송장비	870310	Snowmobiles, golf cars and similar	0.0	0.00	-23	25		0.0	0.00	24	8		0.0
승용차	870321	Automobiles not more than 1000 cc	0.0	0.00	-75	22.5		0.0	0.00		8		0.0
승용차	870322	Automobiles, > 1000 cc to 1500 cc	0.0	0.00	-28	22.5		0.0	0.00	34	8		0.0
승용차	870323	Automobiles, > 1500 cc to 3000 cc	15.8	0.66	15	22.5	제외	0.0	0.00	6	8	제외	-15.8
승용차	870324	Automobiles, > 3000 cc	0.5	0.03	-20	22.5	제외	0.0	0.00		8	제외	-0.5
승용차	870331	Automobiles, diesel, not more 1500 cc	0.0	0.00		25	제외	0.0	0.00		8	제외	0.0
승용차	870332	Automobiles, diesel, 1500 cc to 2500 cc	1.9	0.10	75	22.5	제외	0.0	0.00		8	제외	-1.9
승용차	870333	Automobiles, diesel, more than 2500 cc	0.1	0.00	108	22.5	제외	0.0	0.00		8	제외	-0.1
승용차	870390	Automobiles nes including gas turbine	0.0	0.00		22.5	제외	0.0	0.00	1	8	제외	0.0
산업용 운송장비	870410	Dump trucks, for off-highway use	0.0	0.00		6		0.0	0.00	-7	0		0.0
산업용 운송장비	870421	Diesel trucks, not > 5 tonnes	0.0	0.00		25		0.0	0.00	73	10		0.0
산업용 운송장비	870422	Diesel, trucks, 5- not exc 20 tonnes	0.0	0.00		18		0.0	0.00	15	10		0.0
산업용 운송장비	870423	Diesel, trucks, GVW, exceeding 20	0.0	0.00		10.8		0.0	0.00		5		0.0
산업용 운송장비	870431	Gas trucks, not > 5 tonnes	0.0	0.00		25		0.0	0.00		10		0.0
산업용 운송장비	870432	Gas trucks, GVW, exceeding 5 tonnes	0.0	0.00		20		0.0	0.00		10		0.0
산업용 운송장비	870490	Trucks nes	0.0	0.00		25		0.0	0.00		10		0.0
산업용 운송장비	870510	Mobile cranes	0.0	0.00		11.7		0.0	0.00		8		0.0
산업용 운송장비	870520	Mobile drilling derricks	0.0	0.00		12		0.0	0.00		8		0.0
산업용 운송장비	870530	Fire fighting vehicles	0.0	0.00		3		0.0	0.00		8		0.0
산업용 운송장비	870540	Mobile concrete mixers	0.0	0.00		13.5		0.0	0.00		8		0.0
산업용 운송장비	870590	Special purpose motor vehicles nes	0.0	0.00	-13	10.3		0.0	0.00	-34	8		0.0
산업용 운송장비	870600	Chassis fitted, for 87.01 to 87.05	0.0	0.00	-3	13		0.0	0.00		8		0.0
산업용 운송장비	870710	Bodies for passenger carrying vehicles	0.0	0.00	-47	10		0.0	0.00	8	8		0.0

17

자동차부품 수출입 현황

분야	HS코드	품목명	대한민국 수입					대한민국 수출					무역수지
			수입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수출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부품(운송장비용)	840733	Engines, spark-igni>250cc to 1000 cc	0.00	0.00		10.0		0.00	0.00		8.0		0.00
부품(운송장비용)	840734	Engines, spark-ignition more 1000 cc	1.37	0.07	23	7.0		0.45	0.05	27	8.0		-0.92
부품(운송장비용)	840820	Engines, diesel, vehicles of Chapter 87	0.12	0.01	-29	10.3		0.06	0.01	193	8.0		-0.06
부품(운송장비용)	840991	Parts, spark-ignition type engines nes	3.81	0.21	18	3.6		0.92	0.10	10	8.0		-2.89
부품(운송장비용)	840999	Parts, diesel & semi-diesel engines	1.37	0.07	17	4.1		0.76	0.08	-4	3.8		-0.61
부품(운송장비용)	870790	Bodies for tractors, buses, trucks...	0.00	0.00	-56	9.0		0.00	0.00	-2	8.0		0.00
부품(운송장비용)	870810	Bumpers and parts	0.29	0.02	16	9.6		0.22	0.02	22	0.0		-0.06
부품(운송장비용)	870821	Safety seat belts	0.03	0.00	5	10.0		0.00	0.00	-58	0.0		-0.03
부품(운송장비용)	870829	Parts and accessories of bodies nes	9.18	0.50	17	9.0		1.23	0.13	4	0.0		-7.96
부품(운송장비용)	870830	Brakes and parts, for tractors	1.29	0.07	9	8.1		1.16	0.13	22	0.0		-0.13
부품(운송장비용)	870840	Transmissions	11.83	0.65	20	8.3		2.00	0.22	34	0.0		-9.83
부품(운송장비용)	870850	Drive axles with differential	0.72	0.04	35	8.8		0.57	0.06	49	0.0		-0.15
부품(운송장비용)	870870	Wheels including parts, accessories	0.18	0.01	7	9.0		1.14	0.13	7	0.0		0.96
부품(운송장비용)	870880	Shock absorbers	1.07	0.06	38	9.0		0.70	0.08	22			-0.37
부품(운송장비용)	870891	Radiators	0.35	0.02	82	10.0		0.18	0.02	19	0.0		-0.17
부품(운송장비용)	870892	Mufflers and exhaust pipes	0.36	0.02	2	10.0		0.05	0.01	0	0.0		-0.31
부품(운송장비용)	870893	Clutches and parts	2.22	0.12	34	8.9		0.65	0.07	30	0.0		-1.57
부품(운송장비용)	870894	Steering wheels, columns, boxes	3.16	0.17	51	8.6		1.25	0.14	23			-1.91
부품(운송장비용)	870895	Safety airbags and parts, for tractors	0.39	0.02	5	9.0		1.50	0.17	19	0.0		1.11
부품(운송장비용)	870899	Motor vehicle parts nes	2.56	0.14	16	13.3		1.41	0.15	12	0.0		-1.15

18

자동차 · 자동차부품 : 영향평가와 대응시사점

kotra
Korea Trade Commission
Promotion Agency

<영향평가>

업종/품목	관세장벽	비관세장벽	산업 · 무역 특성	종합
승용차	- 불변 (한국 8%; 중국 25%, 10%) - 일부 완화	- 투자 제한 - TBT	- 현지생산형 업종 - 한국의 중국 내 경쟁력 제고 중	- 큰 변화 없을 전망 - 투자제한 완화 중요 - 일부 상용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 기대
상용차				
자동차부품				

<대응시사점>

Biz 유형	시 사 점
수출 · 현지경영	- 중국 내수개척 - GVC 최적화 · 활성화
공 통	비관세장벽(투자, TBT) 완화

19

기계 수출입 현황

kotra
Korea Trade Commission
Promotion Agency

<중국의 대한민국 일반기계 무역 현황>

분야	HS코드	품목명	대한민국 수입					대한민국 수출					무역수지
			수입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수출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부품	840810	Marine propulsion engines, diesel	4.12	0.23	-22	2.5		0.03	0.00	21	8		-4.09
부품	840991	Parts for spark-ignition type engines nes	3.81	0.21	18	3.6		0.92	0.10	10	8		-2.89
자본재	841430	Compressors of refrigerating equipment	2.05	0.11	15	6.3		1.84	0.20	23	6.4		-0.21
부품	840999	Parts for diesel and semi-diesel engines	1.37	0.07	17	4.1		0.76	0.08	-4	3.8		-0.61
부품	840734	Engines, spark-ignition >1000 cc	1.37	0.07	23	7		0.45	0.05	27	8		-0.92
자본재	841410	Vacuum pumps	1.19	0.06	29	5		0.09	0.01	41	6.3		-1.10
자본재	841989	Machinery,mat by change of temp nes	1.06	0.06	31	0		0.51	0.06	55	8		-0.55
자본재	841360	Rotary positive displacement pumps nes	0.95	0.05	48	5.8		0.21	0.02	3	7.6		-0.74
부품	841590	Parts of air conditioning machines	0.94	0.05	17	6		1.18	0.13	12	4		0.24
자본재	841950	Heat exchange units, non-domestic, non-electric	0.84	0.05	14	9.5		0.39	0.04	24	8		-0.46
부품	841490	Parts of vacuum pumps, compressors, fans	0.79	0.04	24	4.8		0.79	0.09	18	6.4		0.00

<중국의 대한민국 건설기계 무역 현황>

분야	HS코드	품목명	대한민국 수입					대한민국 수출					무역수지
			수입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수출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자본재	842952	Shovels, excavators, 360 revolving superstructure	3.17	0.17	7	7.4		0.05	0.01	4	0		-3.12
부품	843149	Parts of cranes,work-trucks,shovels ...	2.93	0.16	-18	4.5		1.63	0.18	23	0		-1.30
부품	843139	Parts of lifting, handling, loading machinery nes	0.46	0.03	60	2.5		0.14	0.02	8	0		-0.33
자본재	843050	Construction equipment, self-propelled nes	0.26	0.01	51	5		0.02	0.00	-13	0		-0.24
부품	843120	Parts of fork-lift fitted with lifting equipment	-0.24	0.01	24	4.2		0.48	0.05	23	8		0.24
부품	843131	Parts of lifts, skip hoist or escalators	0.17	0.01	35	2		0.45	0.05	1	0		0.28
부품	843143	Parts of boring or sinking machinery	0.01	0.00	17	3		1.42	0.16	14	0		1.41
부품	843110	Parts of machinery of heading No. 84.25	0.01	0.00	-21	3		0.24	0.03	-1	0		0.23
부품	843141	Buckets, shovels, grabs of excavating machinery	0.01	0.00	-27	5.4		0.05	0.01	22	0		0.04
자본재	843041	Boring or sinking machinery nes	0.00	0.00	-9	5		0.00	0.00	133	0		0.00
자본재	843069	Construction equipment, not selfpropelled nes	0.00	0.00	41	6		0.06	0.01	-9	0		0.06

20

기계 수출입 현황



<중국의 대한국 공작기계 무역 현황>

분야	HS코드	품목명	대한민국 수입					대한민국 수출					무역수지
			수입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수출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자본재	845710	Machining centres, for working metal	2.57	0.14	16	7.2		0.03	0.00	-10	8		-2.54
자본재	846210	Forging or die-stamping mach & hammers metal	0.98	0.05	11	7.6		0.10	0.01	99	8		-0.88
자본재	845811	Horizontal lathes numerically controlled for metal	0.46	0.03	-1	9.7		0.06	0.01	11	8		-0.40
자본재	845610	Mach-tls f work	0.38	0.02	26	0		0.21	0.02	37	8		-0.17
자본재	845891	Lathes nes numerically controlled metal	0.25	0.01	-9	5		0.00	0.00	-51	8		-0.24
자본재	846299	Presses nes for working metal	0.24	0.01	12	9.5		0.03	0.00	80	8		-0.21
자본재	846390	Mach-tls f wrkg met/sinterd met nes w/o	0.20	0.01	58	10		0.01	0.00	19	8		-0.19
자본재	846291	Hydraulic presses for working metal	0.17	0.01	27	9.2		0.03	0.00	-9	8		-0.15
자본재	846150	Sawing or cutting-off machines by removing metal	0.17	0.01	23	12		0.02	0.00	6	8		-0.15
자본재	846221	Bendg foldg stgltg or flattng mach r/c for workg met	0.16	0.01	8	9.7		0.01	0.00	65	8		-0.16
자본재	845730	Multi-station transfer machines for working metal	0.15	0.01	14	5		0.00	0.00		8		-0.15

<중국의 대한국 기계요소 무역 현황>

분야	HS코드	품목명	대한민국 수입					대한민국 수출					무역수지
			수입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수출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자본재	848630	Machines for manufacture of flat panel displays	8.30	0.45	40	0		0.20	0.02	434	7.3		-8.10
자본재	848640	Machines specified in Note 9 (C) to chapter 84	3.75	0.20	33	3.1		0.40	0.04	48	3.5		-3.35
부품	848690	Parts for machines and of a kind used solely	2.79	0.15	45	2.1		0.58	0.06	65	3.5		-2.21
부품	848180	Taps, cocks, valves and similar appliances, nes	1.82	0.10	17	4.6		2.15	0.24	12	4		0.33
자본재	848620	Machines for the semiconductor devices or	1.78	0.10	14	0		0.18	0.02	38	1.5		-1.60
부품	848190	Parts of taps, cocks, valves or similar appliances	1.74	0.10	42	6		1.28	0.14	14	7.4		-0.46
부품	848390	Parts of power transmission equipment	1.67	0.09	22	8		0.78	0.09	21	5.5		-0.88
부품	848310	Transmission shafts and cranks	1.50	0.08	15	5.2		0.34	0.04	-6	6.3		-1.16
부품	848120	Valves for oleohydraulic transmissions	1.41	0.08	9	5		0.08	0.01	46	6.2		-1.33
부품	848210	Bearings, ball	0.79	0.04	21	7.6		0.96	0.10	18	10.5		0.16
부품	848340	Gears&gearmg,ball screws,gear boxes converters	0.67	0.04	-4	4.7		0.28	0.03	9	6.8		-0.39

21

기계 : 영향평가와 대응시사점



<영향평가>

업종/품목	관세	비관세장벽	산업·무역특성	종합
일반, 운반하역, 건설, 공작, 기계요소	▪ 다양	▪ 완화	- 경쟁력 다양 - 교역·투자 구조 다양 - 하나 국내 비중 큼 - 중소기업 비중 大	- 대체로 유리 - 기계요소 등 우려

<대응시사점>

Biz 유형	시 사 점
수출·현지경영	- 브랜드·디자인 경쟁력 제고 - GVC 최적화·활성화
공 통	비관세장벽(투자, TBT) 완화

22

생활용품(내구소비재) : 수출입 현황

분야	HS코드	품목명	대한민국 수입					대한민국 수출					무역수지
			수입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수출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내구소비재	850940	Food grinders, mixers; Juice extractors	0.80	0.04	334.0	6.0	20	0.29	0.03	30.0	8.0		-0.52
내구소비재	840810	Combined refrigerator-freezers ...	0.70	0.04	8.0	13.3		0.05	0.01	42.0	8.0		-0.66
내구소비재	852991	Radio navigational aid apparatus	0.64	0.03	31.0	2.0		0.32	0.03	71.0	8.0		-0.32
내구소비재	740999	Articles of copper, nes	0.43	0.02	-5.0	11.8		0.13	0.01	16.0	8.0		-0.30
내구소비재	852910	Aerials&aerial reflectors	0.36	0.02	38.0	1.5		0.27	0.03	14.0	6.7		-0.09
내구소비재	570300	Carpets of nylon, polyamides	0.25	0.01	13.0	10.0		0.27	0.03	24.0	10.0		0.02
내구소비재	482990	Paper and paper articles, nes	0.13	0.01	2.0	7.5		0.10	0.01	8.0	0.0		-0.02
내구소비재	851690	Ovens,cookers,cook q plates...	0.11	0.01	52.0	10.8	10	0.64	0.07	26.0	8.0		0.53
내구소비재	851679	Electro-thermic appliances	0.09	0.00	52.0	24.0		0.48	0.05	37.0	8.0		0.40
내구소비재	902213	X-rays apparatus, dental use, nes	0.08	0.00	32.0	4.0		0.00	0.00	63.0	8.0		-0.08
내구소비재	852729	Radio rece nt. motor vehicl.nes	0.07	0.00	392.0	8.0		0.00	0.00		8.0		-0.07
내구소비재	902214	X-rays apparatus, medical/surgical use	0.06	0.00	69.0	4.0		0.01	0.00	5.0	8.0		-0.05
내구소비재	850811	Vacuum cleaners, incl. dry cleaners	0.05	0.00	273.0	8.2	10	0.20	0.02	11.0	7.2		0.15
내구소비재	851699	Electric space heating apparatus	0.04	0.00	30.0	10.0		0.25	0.03	-2.0	7.2		0.21
내구소비재	570330	Carpets of other man-made textile	0.04	0.00	147.0	10.0		0.06	0.01	8.0	10.0		0.02
내구소비재	845011	Automatic washing machines	0.03	0.00	-27.0	8.7		0.21	0.02	65.0	8.0		0.19
내구소비재	844511	Fans, table,roof etc with elec mtr	0.02	0.00	-7.0	13.1		1.10	0.12	14.0	7.6		1.07
내구소비재	850819	Vacuum cleaners,	0.02	0.00	118.0	0.0	10	0.05	0.01	9.0	7.6		0.03
내구소비재	902190	Orthopedic&other appliances	0.02	0.00	46.0	2.0		0.01	0.00	24.0	0.0		-0.01
내구소비재	940171	Seats w metal frames	0.02	0.00	33.0	0.0		1.38	0.15	48.0	0.0		1.36
내구소비재	711319	Articles of jewellery	0.02	0.00	6.0	23.8	10	0.11	0.01	-24.0	5.6	즉철	0.09
내구소비재	920991	Parts and accessories for pianos	0.02	0.00	21.0	17.5	10	0.02	0.00	-18.0	4.0	즉철	0.01
내구소비재	940399	Furniture of cane, osier...	0.01	0.00	107.0	0.0		0.26	0.03	6.0	0.0		0.25
내구소비재	910400	Instrument panel clocks...	0.01	0.00	-8.0	10.0		0.00	0.00	2.0	8.0		-0.01
내구소비재	841821	Refrigerators, household type	0.01	0.00	60.0	9.3		0.13	0.01	0.0	8.0		0.12
내구소비재	850890	Electro-mechanical domestic appliances	0.01	0.00	75.0	21.7		0.42	0.05	49.0	8.0		0.41
내구소비재	940390	Furniture parts nes	0.01	0.00	44.0	0.0		0.43	0.05	14.0	8.0		0.42
내구소비재	590490	Floor coverings ...	0.01	0.00	526.0	14.0		0.00	0.00		8.0		-0.01
내구소비재	570300	Carpets, other textile floor coverings	0.01	0.00	11.0	12.7		0.15	0.02	20.0	10.0		0.14
내구소비재	940370	Furniture, plastic, nes	0.01	0.00	-11.0	0.0		0.11	0.01	42.0	0.0		0.10
내구소비재	902139	Artificial parts of the body...	0.01	0.00	115.0	4.0		0.01	0.00	0.0	0.0		0.00

23

생활용품(반내구소비재) : 수출입 현황

분야	HS코드	품목명	대한민국 수입					대한민국 수출					무역수지
			수입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수출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내용	
반내구소비재	392690	Articles of plastics	4.02	0.22	11.0	9.1		1.42	0.16	29.0	7.6		-2.60
반내구소비재	853710	Boards,panels, numerical panels, <=1000 V	2.66	0.15	17.0	3.2		1.72	0.19	28.0	8.0		-0.94
반내구소비재	420500	Articles of leather, nes	0.26	0.01	2.0	10.9		0.48	0.05	-12.0	5.3		0.22
반내구소비재	640610	Uppers and parts thereof, other than stiffeners	0.24	0.01	1.0	13.2		1.17	0.13	7.0	4.0		0.92
반내구소비재	640699	Parts of footwear nes	0.20	0.01	-10.0			0.11	0.01	36.0	5.6		-0.10
반내구소비재	761519	Table, kitchen, household goods nes, aluminium	0.19	0.01	54.0			0.12	0.01	42.0	7.3		-0.07
반내구소비재	630790	Made up articles, of textile materials, nes	0.18	0.01	6.0	14.0		0.73	0.08	25.0	10.0		0.55
반내구소비재	420231	Articles carried in pocket or handbag, leather	0.12	0.01	59.0	6.9		0.18	0.02	9.0	5.6		0.05
반내구소비재	611030	Pullovers, cardigans, of man-made fibres, knitted	0.12	0.01	19.0	10.9		2.41	0.26	21.0	13.0		2.29
반내구소비재	940540	Electric lamps and lighting fittings, nes	0.10	0.01	0.0	15.0		1.49	0.16	40.0	4.8		1.39
반내구소비재	392410	Tableware and kitchenware of plastics	0.08	0.00	-3.0	10.0		0.40	0.04	28.0	4.0		0.31
반내구소비재	701349	Glassware for table or kitchen purposes	0.08	0.00	57.0	10.0		0.15	0.02	11.0	8.0		0.07
반내구소비재	620443	Womens dresses, synthetic fibres, not knitted	0.08	0.00	36.0	12.3		0.18	0.02	10.0	8.1		0.11
반내구소비재	630710	Floor-cloth,dish-cloths,dusters,of tex mat	0.07	0.00	26.0	11.9		0.11	0.01	7.0	10.0		0.04
반내구소비재	640620	Outer soles and heels, rubber or plastics	0.07	0.00	-9.0	15.0		0.22	0.02	29.0	7.2		0.15
반내구소비재	961210	Typewriter or similar ribbons ...	0.06	0.00	3.0	10.5		0.02	0.00	86.0	8.0		-0.05
반내구소비재	620433	Womens jackets, synthetic fibres, not knitted	0.06	0.00	23.0	12.3		0.41	0.05	5.0	6.5		0.35
반내구소비재	611011	Jerseys, pullovers, cardigans, ...	0.06	0.00	19.0	9.3		0.24	0.03	29.0	6.5		0.18
반내구소비재	620462	Womens trousers and shorts, cotton, not knitted	0.06	0.00	3.0	14.4		1.70	0.19	5.0	7.8		1.64

24

생활용품(비내구소비재) : 수출입 현황

분야	HS코드	품목명	대한국 수입					대한국 수출					무역 수지
			수입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 내용	수출액	구성비	증가율	관세율	양허 내용	
비내구소비재	900190	Prisms, mirrors & other optical elements	8.62	0.47	1.0	4.8		0.91	0.10	13.0	8.0		-7.71
비내구소비재	481840	Sanitary articles of paper,	1.54	0.08	31.0			0.46	0.05	48.0	0.0		-1.08
비내구소비재	330499	Beauty or make-up preparations nes	1.26	0.07	39.0	6.0		0.08	0.01	0.0	8.0		-1.19
비내구소비재	350610	Glues/adhesives, not exceedg 1 kg	0.58	0.03	42.0	9.2		0.04	0.00	16.0	6.5		-0.54
비내구소비재	300420	Antibiotics nes, in dosage	0.46	0.03	2.0	4.8		0.01	0.00	-48.0	4.7		-0.45
비내구소비재	380891	Insecticides	0.27	0.01	137.0	4.6		0.03	0.00	-21.0	3.3		-0.24
비내구소비재	300490	Medicaments nes, in dosage	0.16	0.01	25.0	2.6		2.18	0.24	46.0	5.4		2.02
비내구소비재	340590	Polishes, creams and similar ... nes	0.16	0.01	141.0	8.5		0.01	0.00	92.0	6.5		-0.15
비내구소비재	340220	Surface-active prep, washing, for retail	0.13	0.01	20.0	8.5		0.16	0.02	56.0	6.5		0.03
비내구소비재	853929	Filament lamps, ... nes	0.10	0.01	16.0	8.9		0.07	0.01	29.0	5.6		-0.04
비내구소비재	401610	Articles of cellular rubber	0.10	0.01	13.0	11.5		0.04	0.00	23.0	5.6		-0.06
비내구소비재	380892	Fungicides	0.10	0.01	33.0	6.6		0.03	0.00	-9.0	4.3		-0.07
비내구소비재	340119	Soap&orign surf prep,shapd,nas	0.09	0.00	43.0	10.0		0.06	0.01	96.0	6.5		-0.03
비내구소비재	240220	Cigarettes containing tobacco	0.08	0.00	17.0	25.0		0.12	0.01	67.0	40.0		0.04
비내구소비재	621790	Parts of garments or of clothg accessories nes, of tex mat, not knitted	0.07	0.00	13.0	12.6		0.02	0.00	-5.0	13.0		-0.05
비내구소비재	330590	Hair preparations, nes	0.06	0.00	44.0	8.5		0.02	0.00	17.0	8.0		-0.04
비내구소비재	340130	Organic surface-active products for washing skin,	0.06	0.00	57.0	10.0		0.05	0.01	0.0	6.5		-0.01
비내구소비재	490700	Unusd postage, revenue stamps, cheque fo rms, banknotes, bond certifi, etc	0.06	0.00	46.0	3.0		0.00	0.00	-8.0	0.0		-0.06
비내구소비재	330510	Hair shampoos	0.06	0.00	34.0	5.4		0.01	0.00	11.0	8.0		-0.05
비내구소비재	850650	Lithium primary cells and batteries	0.05	0.00	-5.0	14.0		0.02	0.00	32.0	8.0		-0.03
비내구소비재	490890	Transfers (decalcomanias), nes	0.05	0.00	20.0	7.5		0.08	0.01	196.0	3.3		0.04

25

생활용품(소비재) : 영향평가와 대응시사점

<영향평가>

업종/품목	관세	비관세장 벽	산업·무역특성	종합
내구소비재				
반내구소비재	완화	완화 - 후속관리	- 완제품 무역 - 가공무역 포함 - 韓, 브랜드디자인 경쟁력 高 - 중소기업 多	- 수출 확대 - 국내 투자 촉진
비내구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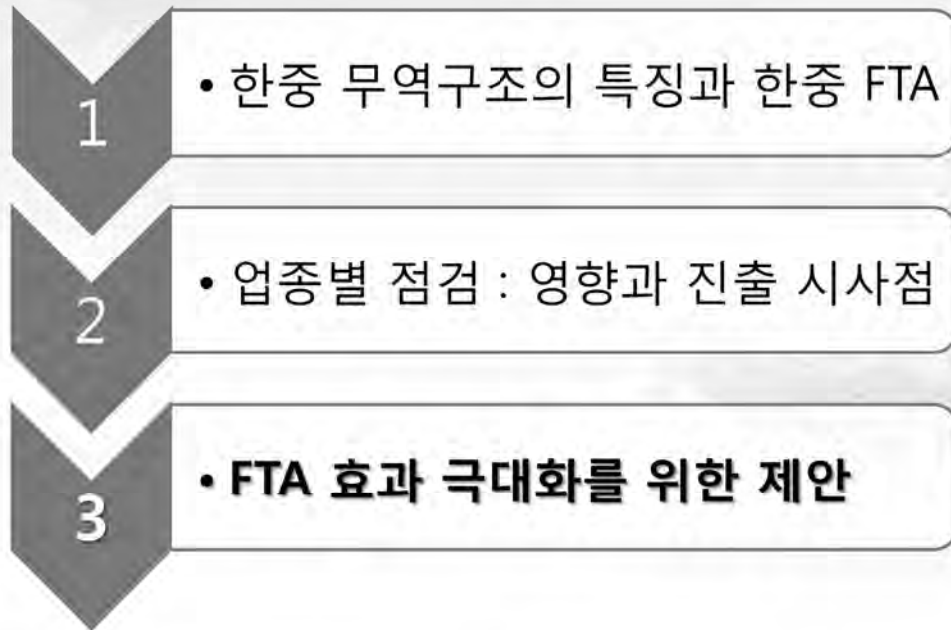
- 내구소비재(BEC61): 카페트, 보석류, 가전제품, 가구, 시계, 악기, 음향기기, 의료기기, 의자, 골동품 등
- 반내구소비재(BEC62): 주방용품, 트렁크, 가방류, 장갑, 가죽제품, 매트, 의류, 유아용품, 침구류, 커튼, 텐트, 신발류, 모자, 우산, 기념품, 컵, 식기류, 게임기, 카드, 머리장식품
- 비내구소비재(BEC63): 생화, 애완견먹이, 담배, 의약품, 화장품, 비누, 광택제, 양초, 살충제, 고무장갑, 화장지, 신문지, 지도, 직물, 내복, 스타킹, 양말, 타이, 손수건, 면도기, 필기류, 스키, 건전지 등

<대응시사점>

Biz 유형	시 사 점
수출· 현지경영	- 브랜드·디자인 경쟁력 제고 - GVC 최적화·활성화
공 통	비관세장벽(투자, TBT) 완화

26

순서



27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안

구 분		현 재	FTA 이후 변화	전 략
내수	상품	● (소비재) 고관세 ● 高 비관세장벽	● 관세 감면/철폐 ● 비관세장벽 완화	● 브랜드·마케팅 제고 ● 수출 포트폴리오 재구성 ● 신시장 개척 - 수출상품화, 신시장 개척 ● 서비스진출 확대
	서비스·투자	● 서비스·투자 개방 저수준	● 투자 개방 확대 ● 현지 Biz 내국민대우 확대	
	시장변화	● 소비환경 : 서비스화, 고급화, 다양화, '한류' ● 경쟁환경 : 글로벌기업 경쟁 격화, 중국기업 대두		
한중 중분 (밸류 체인)	상품	● (중간재) 저관세, 가공무역(무관세혜택) 단, 불투명·비일관적, 가공무역 제한 확대	● 통관·무역원활화 ● 관세 감면/철폐→가공무역 여건 실질적 개선 ● 양국의 FTA 네트워크 연계활용 가능	● 쌍방향 투자 확대 - FDI↔ODI ● R&D-생산공간 재배치 및 확대 → 'Cross-border cluster' 강화·다변화
	서비스·투자	● 서비스·투자 개방 저수준	● 쌍방향 투자 활성화 ● 투자 진입&이전 원활화	
	시장변화	● 중국의 GVCs내 지위 제고 ● 한-중 GVCs의 확산 : 동남아 등		

28

THANK YOU

세션2 열리는 시장, 커지는 시장(업종별 전망)

서비스
시장

법무법인 태평양 오기형 변호사

2015 달라지는 FTA 환경과 우리기업 대응전략 설명회
▶한-중 FTA 이해와 활용방안 ◀



한-중 FTA 시대 중국 서비스 시장 진출 전망

2015.1.7

법무법인 태평양
오기형 변호사

1. 후속 협상 전망

- ▶ 현 단계에서는 **Positive** 방식으로 분야별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향후 2년간 추가협상을 통해 **Negative** 방식으로 서비스시장의 개방을 확대키로 함
- ▶ 조만간 한·중 양국의 서비스시장에서 전면적인 개방과 경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 시장확대와 경쟁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준비 필요

2. 인적 자원 시장 전망

- ▶ 서비스시장의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의 자유로운 이동보장 및 상대국에서의 체류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 ▶ 이번에 파견인원의 최초 체류기간이 2년으로 합의됨
 - 장기간 체류나 영주권 부여기준에 대한 점진적인 개선 방법 필요
- ▶ 부동산투자 영주권부여제도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어야 함

3. 법률서비스 시장 전망

- ▶ 한중 FTA 이후 우리나라와 중국에서의 서비스 수요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회계서비스시장의 경우 이미 협력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이 중요
- ▶ 중국법률시장은 홍콩 및 대만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개방됨
 - 특히 홍콩과 체결된 CEPA에 근거하여, 홍콩법률사무소와 중국 법률사무소의 합작 등이 허용됨
- ▶ 상해자유무역지구에서는 2014년 초부터 중국법률사무소와 외국법률사무소의 합작사무소 설치를 기 허용
 - 한중 FTA는 현재 이러한 제도적 개방을 확인하는 수준이며, 후속 협상을 통해 한미 FTA 수준으로의 개방 확대 기대

4. 엔터테인먼트 시장 전망

- ▶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산업이 중국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중국이 한국의 유관인력을 채용하거나 관련기업을 인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흐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 **문화콘텐츠 산업은 중국 사회질서유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중국 정부가 외국서비스제공자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규제하므로, 실질적인 규제 해소 능력 필요**
- ▶ **한국기업의 독자적 제작 또는 중국기업과 합작한 문화콘텐츠가 중국에서 내국민대우를 받아 유통되도록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함**
- ▶ **CEPA의 사례를 참고로, Qualified Service Provider의 자격을 갖춘 상대방 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 허용 방안 모색 필요**

5. 금융 서비스 시장 전망

- ▶ **한·중 양국 모두 외국자본의 금융시장 진출에 대한 규제제도 보유**
 - 한국은 외국인에 대해 상당한 수준으로 금융서비스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시장개방 과정에서 상호주의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실질적인 개방의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한·중간 직거래에 필요한 결제방식에 대해 양국 정부의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원 필요**

6. 통신 서비스 시장 전망

- ▶ 통신시설이 국가 기관망에 속하고 또한 통신의 사회적 영향이 크므로, 통신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매우 엄격함
- ▶ 서비스시장의 개방 차원에서는 중국도 인터넷 판매 등 각종 부가통신서비스 등에 대한 한국 사업자 참여 허용의 여지가 많아 후속협상의 결과 기대



감 사 합 니 다

세션3 우리기업, 무엇을 준비하나?

한중 FTA 비관세장벽
체크포인트

산업연구원 고준성 선임연구위원

한중FTA 비관세장벽(NTBs) 체크포인트

고 준 성

산업연구원(KIET) 국제산업협력실
선임연구위원 / 법학박사(국제경제법)

1

목 차

- I. 비관세장벽의 의의
- II. GATT/WTO 체제하에서의 비관세조치 대응 및 한계
- III. 무역장벽유형별 사례 및 동향
- IV.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 IV-1.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 V.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체크포인트

2

I. 비관세장벽 의의

1. 무역장벽의 개념 : 관세장벽 + 비관세장벽

- GATT 초기의 무역장벽 : 고율의 관세 및 수량제한
 - 1947년 GATT(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1948.1.1. 당시만 하여도 국제 무역의 가장 큰 장애로 고율의 관세와 수량제한이 문제
 - 따라서 GATT에서는 처음부터 이들 두가지 무역장벽의 완화 및 제거에 모든 관심과 노력을 집중
 - 수량제한의 경우 GATT 제11조에서 수량제한의 일반적 철폐를 규정
 - 관세의 경우 8차례의 다자간무역협상을 통해 점진적이나 가시적인 성과

3

I. 비관세장벽 의의

2. 비관세장벽의 대두 및 인식 : 1970년대 이후

- 1971년 국제통화위기 및 1974년 오일쇼크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 등으로 국제경제환경이 악화되면서 국제무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이로 인해 각국 정부는 비관세조치 (non-tariff measures) 의존도가 점차 커지게 되었고 국제무역에 있어 새로운 문제로서 대두되기 시작
- 비관세조치의 확산이 중요한 장애로 인식되기에 이름
-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한 비관세조치를 가리켜 흔히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s : NTBs)으로 통칭하기 시작

4

3. 비관세장벽의 개념

● 비관세장벽은 관세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하기 때문에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관세 이외의 자유로운 교역활동을 저해하는 국내 규제를 가리킴

- 세부 개념

-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국가의 제반 법령, 제도상 규정 및 조치, 당국에 의한 법령이나 자유무역을 방해하는 제반 관행 일체를 의미
- 수입과 관련된 규제조치가 대부분이나 수출에 대한 규제조치도 포함하며, 국제통상규범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수출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국내 규제도 포함

5

4. 비관세장벽의 대두 배경 및 요인

● 비관세장벽을 초래하는 내재적 요인

- 국내산업 육성 및 보호에 대한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 국가간 산업발전 격차, 국가간의 법제도 및 운영 차이 등
- 나아가 인간의 건강과 환경의 보호 또는 소상공인의 보호나 공정한 경쟁 및 시장질서의 유지 등 다양한 정책 목적에 대한 수요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적 성격의 조치 도입을 수반하기 마련인데 그러한 국내규제 가운데 정당한 정책 목적을 벗어나 수입상품에 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도입 될 가능성이 상존

● 국제통상법상 비관세장벽 개념과 기준이 확립되어있지 않음

- 국내규제 형태를 갖는 비관세장벽을 둘러싼 WTO 회원국들간의 통상 분쟁, 마찰의 가능성은 증가하기 마련

1

4. 비관세장벽 형태 및 분류

● 수입 또는 수출 연관 기준

- 대다수의 비관세조치는 수입 상품에 대한 것이나 수출 상품에 대한 규제 조치도 드물게 부과됨
- 수출에 대한 규제조치는 원료 및 곡물 등에 주로 부과되고 있음
· 대표사례 : 최근 중국의 희토류 자원에 대한 수출규제

● 기술규제 관련성 기준

- 기술조치에 해당하는 장벽과 비기술조치에 해당하는 장벽으로 분류
 - 비기술조치 장벽 : 통관절차, 원산지규정, 선적전 검사, 수입규제조치(수입쿼터·수입허가 및 기타 수량제한조치), (수출입) 금융조치, 다양한 국내규제(환경규제, 반경쟁조치, 유통제한, 가격제한조치, 사후 판매서비스 제한 등),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 보조금,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등과 관련된 제한 조치나 관행이 해당
 - 기술조치 장벽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s)과 위생 및 검역조치(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가 해당

II. GATT/WTO체제하 비관세조치 대응 및 한계

1. GATT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 GATT 제11조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의 수입에 대해 또는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로의 상품 수출에 대해 쿼터, 수입 또는 수출허가, 기타 조치 중 관세, 조세 또는 과징금 이외의 어떠한 금지나 제한도 당사자에 의해 설정되거나 유지되어서는 아니 된다

II. GATT/WTO체제하 비관세조치 대응 및 한계

- GATT 제11조의 주된 규율 대상은 수입 제한이기는 하나 수출에 대해서도 적용됨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사례 : 중국의 희토류(rare earth) 수출 제한의 적법성
- 다만 GATT 제11조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가 존재함을 유의해야 함
 - GATT 제11조 2항 (a) : 수출계약 당사자에게 불가결한 상품의 중대한 부족을 방지 또는 완화하기 위한 일시적인 수출 금지 또는 제한
 - 동조 2항 (c) : 동종 국내상품의 일시적인 과잉상태 제거 등을 위한 정부조치에 필요한 수입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의 제한
 -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 : 공공도덕, 인간 및 동식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제한
 - GATT 제21조 안보를 위한 제한, GATT 제19조 일시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9

II. GATT/WTO체제하 비관세조치 대응 및 한계

2. WTO 비관세조치에의 대응

- GATT 제11조에서는 비관세조치의 사용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도입하였으나, 비관세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정의나 구체적인 형태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다만,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과징금 이외의 수출입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유지할 수 없다고만 규정

10

II. GATT/WTO체제하 비관세조치 대응 및 한계

● 제8차 다자간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관련 조항

-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협정(TBT협정)
농산물의 교역과 관련 위생 및 검역조치협정(SPS협정),
선적전 검사협정, 원산지규정협정, 관세평가협정, 수입허가절차협정 채택
→ 비관세조치의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 그 외에 보호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무역구제조치의 남용 방지를
위하여 반덤핑조치협정,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세이프가드협정을 채택,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국제적 통제를 강화

11

II. GATT/WTO체제하 비관세조치 대응 및 한계

3. GATT/WTO체제하에서 비관세조치 대응의 한계

- UR협상 결과 채택된 제반 부속협정을 통해 회원국의 비관세조치
도입 및 운영에 있어 투명성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여전히
규범상 문제 및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
- 회원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하여 우회적인 방안을 마련하기에
비관세장벽에 관한 규제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관련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됨

12

II. GATT/WTO체제하 비관세조치 대응 및 한계

- WTO 협정은 회원국의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규범 도입이나 개정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존재
-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무역정책검토제도(TPRM)를 통해 개별 회원국의 비관세조치 관련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개별 회원국 중에는 독자적인 모니터링제도를 통해 다른 회원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법적 대응(WTO제소 등)이나 외교적 대응(통상협상)을 하게 됨
- ▶ 가령, 미국의 경우, 해마다 “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연례 국별평가 보고서”(비관세장벽 전반 대상) 이외에 무역기술장벽(TBT)보고서, 위생 및 검역조치에 대한 보고서, Special 301조 보고서(지적재산권 위반 대상)를 작성, 공표해 오고 있음

13

III. 비관세장벽 유형별 사례 및 현황

III-1 통관절차

1. 복잡하거나 불합리한 통관절차
2. 통관관련 규정 미비 및 과도한 수수료 및 벌금 부과
3. 투명성 결여
 - ▶ 통관 관련 통일규정 미비 및 관련 법령의 잦은 개정과 충분한 사전 고지 부족
4. 불합리한 관세평가제도 및 관세환급 지연 등

14

III. 비관세장벽 유형별 사례 및 현황

III-2. 원산지규정 관련 사례

1.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한 원산지규정 적용 사례

- ▶ 원산지규정에 대한 세관의 불투명하고 예측성이 결여된 해석으로 통관 보류, 통관 지연, 추가 비용(창고 보관료, 반송료, 인건비 등) 발생
- ▶ 섬유 및 신발류 등에 대해 통상적인 원산지증명서 외에 추가 증빙서류 요구

2. 우리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규정 애로 해결 사례

- ▶ 우리 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우즈베키스탄)

15

III. 비관세장벽 유형별 사례 및 현황

III-3. 다양한 국내규제

- 국가는 필요한 규제를 도입할 주권적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에 따른 각종 규제가 수입 상품의 교역을 저해할 수 있음
- 가령, 환경규제, 반(反)경쟁조치, 유통제한이나 가격제한조치 또는 사후 판매 서비스 제한 등이 해당됨
- 특히 환경규제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증가함

16

III-3. 다양한 국내규제 : 환경규제

● 환경관련 통상장벽의 일반적인 유형

: 특정 제품 및 성분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 환경기준, 환경마크제도, 제품부과금 등

- ▶ 구체적으로 환경 위해의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물질에 대한 수출입의 제한이나 금지, 환경유해제품과 물질의 사용 및 판매금지, 유해폐기물의 이동 및 교역의 제한, 금지 등이 해당
- ▶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표준, 제품 테스트, 라벨링, 인증·승인 등에 대한 요건 및 절차 등 관련 기술규정이나 표준이 자국의 내용과 상이할 경우 무역장벽으로 작용
- ▶ 환경마크제도 : 제품의 제조, 사용, 폐기 등 전체 주기에 걸쳐 환경친화상품에 환경마크를 부착하는 자발적 제도이지만 수입국이 선진국인 경우 마크 부여기준이 높고 소비자의 환경친화상품에 대한 구매 유도 효과가 크므로 간접적 무역효과를 초래
- ▶ 선진국들은 환경보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높은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필요 이상 기준을 제정하거나 일방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환경관련 통상장벽을 형성하며 환경보전과 무역촉진 간의 마찰을 유발할 수 있음

18

III-4. 무역기술장벽

● 무역기술장벽의 의의

- ▶ 기술규제라 하면 개별 국가의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절차*를 가리킴.
기술규제가 수입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의 하나로서 작용하는 경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 또는 '무역기술장벽'이 됨

* **적합성평가절차**는 특정 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규격이나 기술요건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함으로써 인간과 동식물의 생활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품질이나 순도, 기술적 효율성 및 적합성을 충족하는지를 보장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나아가 안전이나 기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행되는 일련의 절차

- ▶ 오늘날 기술규제와 관련된 무역장벽은 다자간 무역체제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무역장벽으로서 관세가 크게 인하됨에 따라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음

18

III-4. 2. 무역기술장벽의 유형

기술장벽의 유형		기술장벽의 내용
기술규정 표준관련	차별적 기준 적용	- 수입산과 국내산간에 있어 기술규정 및 표준 관련 기준 및 적용에 있어 차별
	상이한 표준 적용	- 국가, 지자체, 지역공동체 회원국간 상이한 기술규제법규 및 집행
	과도한 기술요건	- 다른 국가들보다 엄격한 기술요건 설정 - 까다로운 규격 및 인증마크 취득절차
	투명성 결여	- 빈번한 기술규정의 개정 및 외국 생산자들이 적응하는데 충분한 사전공지 기간을 주지 않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신규 또는 개정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대한 상세한 정보 취득이 어려운 경우
적합성평가 절차 관련	중복검사	- 이미 인증을 획득하였으나 인정하지 않고 중복검사 요구 - 인증제도의 이원화
	심사기간 비준수 및 과다 지체	- 인증 획득을 위한 절차 단계별 심사기간 비준수 - 담당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검사 지체
	과다비용 소요	- 과도한 검사비용 - 과다한 표본조사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 발생
	투명성 결여	- 판정 기준이 불분명하여 검사원의 자의적인 판정 가능성 - 경쟁관계에 있는 자국의 민간업체에 의한 검사
라벨링 관련 등		- 라벨링 요구 사항 과다(국내조달비율의 표시 요구, 자국어 표기 의무 등)

자료: 2013 외국의 통상환경: 분야별 통상환경(산업통상자원부) 등 참조

19

III-5. SPS 규제

- 식품의 안전 및 공중보건과 관련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는 국가 간 무역이 확대 될수록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음. WTO 위생 및 식물 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통해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조치)를 취할 회원국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WTO협정에서 다음의 네 가지 목적을 위한 모든 조치가 SPS 조치에 해당됨
 - ▶ 식품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독성물질, 발병의 원인이 되는 유기체로부터 인간과 동물을 보호
 - ▶ 동물이나 식물로부터 전염되는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보호
 - ▶ 급성질병 또는 다른 질병으로부터 동식물을 보호
 - ▶ 전염병 및 다른 질병의 진입 및 확산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국가의 영토를 보호
- 따라서 위생 및 검역조치를 둘러싼 상품 교역에의 저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0

III-5. SPS 규제

- 인도는 식품에 대한 까다로운 유효기간 기준이 있으며, 수입 당시 식품의 유효기간은 본래 제품 수명의 60% 이상이 남아있어야 함. 제품 수명은 제조일과 유효기간 만료일을 토대로 산출하는데 이러한 규정은 인도 국내산 제품과 비교하여 수입산 제품에 대한 차별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
- 미국으로의 신선 농·임산물 수입 허용심사절차가 복잡하여 해당상품 수출의 어려움이 있음. 신선 농·임산물 수입허용 심사절차가 5년 이상 소요
- 일본 검역당국은 수입 농·임산물에 대해 병해충 감염여부를 검역하고 있는 바, 동 검역 과정에서 병해충이 발견되면 훈증 소독 조치 후 통관시키고 있으며, 검역소별 1일 검사 한도를 설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는데 이는 신선 농·임산물의 통관지역에 따른 피해를 가져옴
 - ▶ 우리나라 신선 농·임산물 수출 시 문제가 되는 주요 병해충에 대한 일본의 검역규정으로 인하여 해당 병해충 발견 시, 훈증 소독 조치를 위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함
 - ▶ 또한 검역소별 1일 검사한도를 설정하는 조치는 WTO등 국제규범에 위반소지가 있고, 1일 검사한도 때문에 신선 농·임산물의 품질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함

III-6. 수입규제

- 수입규제 유형별 사례
 - ▶ 수입 재생타이어 및 중고자동차에 대해 안전상의 이유로 수입 대상국별로 차별적 운용
 - ▶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수렵한 동물가죽 및 그 가죽제품에 대해 일방적인 수입 금지 품목 지정
 - ▶ 철강재 등과 관련,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감시제도(import licensing) 운영
- 해결사례 : 유제품 대중국 수출금지 해제(중국)

IV.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중국의 제조업분야 비관세장벽에 대한 5개 조사 결과에 기초한 장벽 유형별 애로 수준 종합 평가(1)

◎: 영향 매우 심각, ○: 영향 상당, △: 영향 보통, -: 영향 미미 또는 무응답

비관세장벽 애로 영향 조사대상(조사기관)	15개 제조업분야 국내기업 (업종별 제조업협회 등)	중국 4대성·지역 진출 한국기업 (한인상공회 등)	일본의 대중 수출기업 (일본 업종별 협회 등)	미국 수출 업자 (USTR)	중국진출 한국기업 (KIET)	애로수준 종합 평가 ⁶⁾ ()는 순위
비관세장벽 유형별 애로 사항						
통관절차 관련						
통관절차 일관성 결여·복잡	△(5) ¹⁾	◎(71%) ²⁾	○ ³⁾	○ ⁴⁾	-	16(3)
통관규정 과도 적용 (기밀서류 포함 과도한 통관 서류)	◎(13)	◎(77%)	○	-	-	16(3)
통관서류 오류시 과도 제재; 갑작스런 관세 추정; 수출입신고가 사후 수정에 대한 경직적 대응	△(2)	○(63%)	○,○	-	-	12(8)
관세분류의 지역별 세관(원)간 불일치와 자의성 소지	△(4)	-	○,○	◎	◎	20(2)

IV.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중국의 제조업분야 비관세장벽에 대한 5개 조사 결과에 기초한 장벽 유형별 애로 수준 종합 평가(2)

◎: 영향 매우 심각, ○: 영향 상당, △: 영향 보통, -: 영향 미미 또는 무응답

세관 및 항구별 통관절차 상이 세관원에 따라 관세평가액 차이 관세평가 기준 불합리 투명성 결여	-(0)	○(49%)	○,○	○	-	14(6)
통관 지연(세관 근무일·시간 짧음)	◎(11)	◎(89%)	○	○	◎ ⁵⁾	26(1)
샘플 통관절차 과도(전량 샘플조사; 비매품 화장품; 샘플 반입 용도 제 한 등)	○(6)	○(49%)	○,○,○	-	-	16(3)
선박하역 지체 및 불편(이용 허용 항만 지정; 자동차 통관항 제한)	○(6)	○(57%)	○	-	-	12(8)
통관관련 법령 빈번 개정 및 사전 고지 미흡	○(8)	○(59%)	-	-	◎	14(6)
세관수수료·항만이용료 과다	○(6)	○(37%)	-	○	-	12(8)
관세·증치세환급 및 면세 절차 과도, 불투명	△(2)	○(53%)	○	-	-	10(12)
관세분류 사전통지제 결함	-	-	○	-	-	4(17)
통관 개봉검사 부주의	-	-	○	-	-	4(17)
반품 통관절차 복잡	-	-	○	-	-	4(17)

IV.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중국의 제조업분야 비관세장벽에 대한 5개 조사 결과에 기초한 장벽 유형별 애로 수준 종합 평가(3)

◎: 영향 매우 심각, ○: 영향 상당, △: 영향 보통, -: 영향 미미 또는 무응답

비관세장벽 애로 영향 조사대상(조사기관)	국내기업 (15개 업종별 제조업 협회 등)	중국 4대성· 지역 소재 한국기업 (한인 상공회 등)	일본의 대중 수출기업 (일본 업종별 협회 등)	미국 수출업자 (USTR)	중국진출 한국기업 (KIET)	애로수준 종합평가 (3)
원산지규정으로 인한 애로	○(8)	○(40%)	-		△	10(12)
기타 수입규제 애로						
대외 결제 규제	△(3)	△(26%)	-	-	-	4(17)
국영무역제도 무역권	○(7)	△(27%)	-	-	-	6(16)
보조금 성격 지원 (국유기업 특혜금융 ; 수출증치세 환급 및 감면프로그램 등)	△(5)	-	-	◎	-	8(15)
수입상품 분급관리제도	△(2)	△(14%)		-	-	4(17)

25

IV. 중국의 비관세장벽 현황

중국의 제조업분야 비관세장벽에 대한 5개 조사 결과에 기초한 장벽 유형별 애로 수준 종합 평가(4)

◎: 영향 매우 심각, ○: 영향 상당, △: 영향 보통, -: 영향 미미 또는 무응답

비관세장벽 애로 영향 조사대상(조사기관)	국내기업 (15개 업종별 제조 업협회 등)	중국 4대성· 지역소재 한국기업 (한인상공회 등)	일본의 대중 수출 기업 (일본 업종별 협회 등)	미국 수출 업자 (USTR)	중국 진출 한국 기업 (KIET)	애로 수준 종합 평가 (4)
수입허가정책 (중고기계의 수입 규제 및 금지; 섬유기계 수출입 허가 등)	△(2)	-	○,○,○	-	-	10(12)
원자재(희토류 등) 수출규제	-(0)	-		-	○	4(17)
영업성 분공사의 통관업무 규제	-	-	○	-	-	4(17)
중국 관료사회의 나쁜 관행 (통관시 흥바오, 환시, 근무태만 등) 및 자질 부족	△(2)	-	-	○	◎	12(8)
세관과 검역당국간 협조 부재	-	-	○	-	-	4(17)
WTO 불합치 국경무역	-	-		△	-	2(26)
중국의 기타결 FTA 시행 불투명	-	-	○	-	-	4(17)

26

IV-1. 중국의 기술장벽 현황

◎: 영향 매우 심각, ○: 영향 상당, △: 영향 보통, -: 영향 미미 또는 무응답

기술장벽 애로 영향 조사대상(조사기관) 기술장벽 유형별 애로 사항	중국주재 한국기관 조사결과	일본 무역투자 비즈니스협회 조사결과	중국진출 한국기업 면담 결과	중국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결과 (불만율)	애로 수준 종합 평가
CCC 절차단계별 심사기간 비준수	○	-	○	-	○
기술규제 내용 불명확 및 투명성 결여	○ (화장품 인허가 세부지침)	○ (CCC기재사항) ○ (공장검사규정) ○ (중국GB구입 애로)	○ (표준요구사항) ○ (상검관련)	-	◎
기술규제의 빈번한 개정	-	○ (CCC제도) ○ (화장품성분규제)	-	26%	○
CCC등 기술규제 대상 품목 과도 확대	-	○ (IT보안제품 추가)	-	40%	○
CCC 인증심사 중 기업비밀 유출 우려	○	-	○	-	○

27

IV-1. 중국의 기술장벽 현황

기술장벽 애로 영향 조사대상(조사기관) 기술장벽 유형별 애로 사항	중국주재 한국기관 조사 결과	일본 무역투자 비즈니스협회 조사 결과	중국진출 한국기업 면담 결과	중국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결과 (불만율)	애로 수준 종합 평가
인증절차시 중복 서류 요구 및 수정비용 부과	-	-	-	34%	○
필요 이상의 시험이나 검사 요구	○ (중복검사)	-	-	23%	△
검사 비용 과다	○ (화장품 위생 안전성검사)	-	○ (상검비용 과다) × (CCC비용 적정)	26%	제도별 편차
검사 시간 장기화	○ (의약품 중국 약전적용)	-	-	26%	△
성별 상이한 인증절차-집행	-	○ (RoHS지침 지방 감독시) ○ (중국국내검사 기관간 상호인정 부재)	-	24%	◎
중국 적합성평가기관에만 인증권한 부여 애로	-	-	-	26%	△

28

IV-1. 중국의 기술장벽 현황

기술장벽 애로 영향 조사대상(조사기관) 기술장벽 유형별 애로 사항	중국주재 한국기관 조사 결과	일본무역투자 비즈니스협회 조사 결과	중국진출 한국기업 면담 결과	중국진출 한국기업 설문조사 결과 (불만율)	애로 수준 종합 평가
기계전자제품에 대한 품질안전허가증 제도 보다 까다롭게 운영	-	-	-	30%	△
수입품에 대한 라벨링 요건 강화, 중국어 표기 요구	-	○ (라벨의 중국어 표기 요구)	-	23%	△
품질보증서의 짧은 유효기간	-	-	-	21%	△
기술규제 운영시 내자 및 외자기업간 차별	-	-	○ (상검관련)	-	△
상용 암호기능 탑재기기 경우 당국 허가 요구	-	○ (중국기업은 인식안함)	-	-	△
중국판 RoHS 대응	-	-	× (수준 낮아 대 응애로 없음)	-	—
화학물질 규제리스트 불투명	-	○	-	-	△

29

V.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체크포인트

- ▶ 국가별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비관세장벽은 그 건수가 적지 않음. 이와 같이 수집된 비관세장벽은 조사자 입장에서 수집된 것일 뿐 모든 사례가 FTA 협상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 ▶ 이를 위해 (i) 먼저 수집된 국별 비관세조치 사례에 대해서는 건 별로 해당 비관세조치가 WTO 협정을 포함한 국제(통상)규범에 저촉되는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ii) 이들 조치가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iii) 해당 장벽이 온전히 수출기업의 애로 내지 불편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함

V.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체크포인트

<표> 비관세조치 사례별 국제규범 저촉에 기초한 유형 분류 및 기준과 대응 방향

구분	기준 및 대응 방향
유형 1 (WTO 제소 대상)	· WTO 협정을 포함 국제규범에 저촉 가능성이 높거나 다른 회원국의 협정상 이익을 침해하는 국가의 제도 및 관행 : 비관세조치가 WTO 제반 협정 중 하나에 저촉되거나 다른 회원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해당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통한 해결을 추구할 필요
유형 2 (FTA 협상 대상)	· WTO 협정을 포함한 국제규범 저촉 가능성이 있고,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제도 및 관행 · 국제규범 저촉 문제는 아니지만 FTA 협상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제도 및 관행 · 비관세조치가 WTO 제반 협정에의 저촉 가능성이 있는 회색조치로서 다른 국가나 국제 실행 등에 비추어볼 때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이고 또는 불투명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는 경우 · 국제규범 위반 문제가 아니나 FTA협상(TBT 또는 투명성 챕터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경우 ⇒ 해당 비관세조치와 가장 연관성이 큰 FTA 규범 챕터나 조문을 통해 완화하거나 폐지하도록 FTA 규범 또는 양허 협상을 통한 해결을 추구할 필요
유형 3 (양자 협의대상)	· 국제규범 위반 대상이 아니어서 FTA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 곤란하나 개선이 요구되는 제도 및 관행 ▶ 비관세조치 사례가 해당 국가의 법·제도에 기초한 것이지만 그 운영 과정에 있어 담당 공무원의 부패 요구 관행이나 자의적 집행 등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됨 ▶ 가령, 통관절차상 급행료 관행 등이 이에 해당하는 바, 이는 기업의 심각한 애로 내지 불편 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는 FTA 협상 의제로서 다루기 곤란하며 양자간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한 개선을 추구할 필요

11

V.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체크포인트

<표> 비관세조치 사례별 국내산업 및 기업에의 영향 정도 분류

영향 정도	유형 구분
상 (영향심각)	(심각한 영향 및 영향 우려) ① 비관세조치로 인해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산업 및 해당 기업이 심각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당 비관세조치 철폐(개선)시 기대 효과가 큰 경우
중 (영향 보통)	(보통의 영향 및 영향 우려) ① 비관세조치로 인해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산업 및 해당 기업이 보통의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해당 비관세조치 철폐(개선)시 기대 효과가 보통인 경우
하 (영향미미)	(영향이 무시할 수준이거나 없는 경우) ① 비관세조치로 인해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 산업 및 해당 기업에의 영향이 무시할 수준이거나 없는 경우 ② 당해 비관세조치 철폐(개선)시 기대 효과가 거의 없는 경우

V.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Matrix점검방법

<표> 국제규범 위반 등에 기초한 대응방향과 산업(기업)에의 영향
Matrix 평가에 따른 비관세장벽 대응방안

- ⌘: FTA 등 협상의제 상정하여 반영 추구 ○: FTA 등 통상 협상의제 상정 검토
- △상: WTO 제소 통한 해결 추구 △중: WTO 제소 검토
- ▲상: 양자협의 통한 개선 추구 ▲중: 양자협의 통한 개선 검토 X: 검토 불필요

	상 (영향 심각)	중 (영향 보통)	하 (영향 미미)
유형 1 (WTO 제소대상)	△상 (WTO 제소 통한 해결 추구)	△중 (WTO 제소 검토)	X (검토 불필요)
유형 2 (FTA 협상 대상)	⌘ (통상 협상의제 상정, 반영 추구)	○ (통상 협상의제 상정 검토)	X (검토 불필요)
유형 3 (양자협의 대상)	▲상 (양자협의 통한 개선 추구)	▲중 (양자협의 통한 개선 검토)	X (검토 불필요)

세션3 우리기업, 무엇을 준비하나?

한중 FTA 관세분야
(원산지증명, 통관) 이해

관세법인 신한 최대규 관세사

한·중 FTA에 대한 이해

2015. 01. 07

신한관세법인
최대규 관세사

Agenda

- I. 한 · 중 FTA의 의미와 내용
- II. 한 · 중 FTA 관세분야 규정
- III. 한 · 중 FTA와 타 FTA 비교 및 검증현황
- IV. 한 · 중 FTA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



I. 한·중 FTA의 의미와 내용

- 1.1. 한·중 FTA 타결과 한국의 FTA 현황
- 1.2. 우리기업의 FTA 활용 현황
- 2.1. 한·중 FTA 양허내용
- 2.2. 한·중 FTA 유망품목
- 2.3. 한·중 FTA 교역성장률
- 2.4. 한·중 FTA 관세절감 효과
- 2.5. 한·중 FTA 현황 및 향후 일정

I. 한·중 FTA의 의미와 내용

1.1. 한·중 FTA 타결과 한국의 FTA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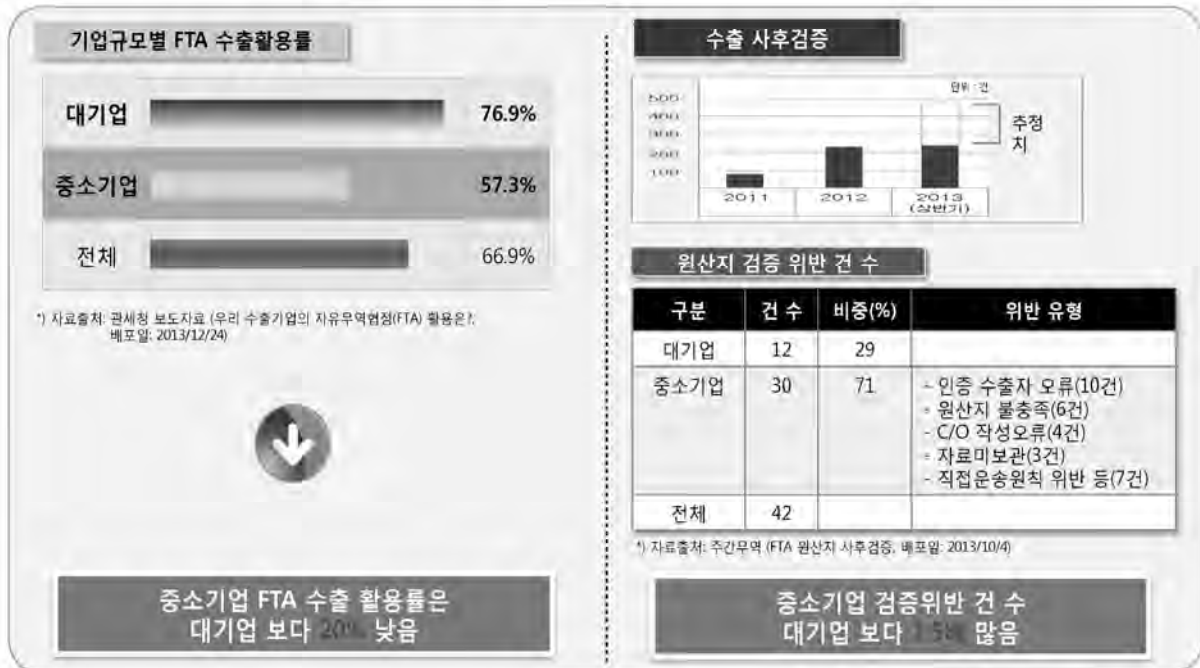
- 우리나라는 현재 총 49개 국가와 11개의 협정을 발효 중에 있으며, 콜롬비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등의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 타결국가: 콜롬비아(2012.06.25) 중국(2014.11.10), 뉴질랜드(2014.11.15), 베트남 (2014.12.10)

1.2. 우리기업의 FTA 활용 현황

- FTA 활용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중소기업은 현실적인 제한으로 활용도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2.1. 한·중 FTA 양허 내용

품목군	한국 양허품목	중국 양허품목
일반 NT	즉시 철폐 (5,823개, 414.9억불) 원유, 나프타, 음향기기, 반도체제조장비, 의약품 등	(1,258개, 733.4억불) 제트유, L형강, 스텐레스열연강판(3mm미만) 등
	5년내 (1,113개, 30.3억불) 제트유, 플라스틱 제품, 금속절삭기계, 의료기기 등	(1,589개, 58.2억불) 항공기 부품, 유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제조장비 등
	10년내 (1,900개, 165.7억불) 차체부분품,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LCD 패널 등	(1,849개, 311.6억불) 에틸렌, 프로필렌 충격흡수장치, 냉연강판(0.5-1mm), 도금강판(클래드), 냉장고, 에어컨, 밥솥, 믹서, 여성 코트 및 자켓, 유아복, 헤어핀, 기타 운동기구, LCD 패널 등
민감 ST	15년내 (579개, 76.9억불) 휘발유, 타이어 등	(840개, 218.4억불)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기유, 프레스금형기계 TV카메라 부품, 안경렌즈 등
	20년내 (12개, 26.8억불) 축전기, 기어박스, 편직제 의류 등	(369개, 92.2억불) ABS수지, 도로, 차량용 축전기, 브레이크, 가정용 정수기, 콘택트렌즈 등
초민감	부분 감축 (37개, 17.6억불) 안전유리, 알루미늄박, 면직물, 신발부분품 등	(128개, 99.9억불) 리튬이온축전기, 자동기어변속장치, 차체부분품, 선박용 엔진, 음향기기부품, 스킨케어 화장품, 삼푸, 린스 등
HST	양허 제외 (210개, 28억불) 초산에틸, 판유리, 자동차, 면사, 모사, 편직제의류, 베어링 등	(509개, 147.3억불) 파라자일렌(PX), 텔레프탈산(TPA), 에틸렌글리콜(EG), 자동차,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냉연강판(합금강), 굴삭기, 레이저프린터 등

◆ 제조업 분야 주요 내용

1) 향후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 품목 대폭 개방
→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고부가가치 소비재 개방 및 철강, 석유화학, 주력 소재도 일부 개방

2) 국내 경쟁력 취약 업종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 초산에틸, 판유리, 섬유(면사, 모사, 편직제의류), 베어링 등은 양허 제외하고 안전유리, 알루미늄박 등을 부분 감축

2.2. 한·중 FTA 유망품목

- 중국바이어들은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해 화장품을 1위로 꼽았으며, 이어 생활용품, 가공식품, 전자 순으로 답했다.
- 화장품, 생활용품의 경우 관세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3% 수준인 대중국 소비재 수출비중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이낸셜뉴스
The financial news

인쇄하기

뒤로

KOTRA조사... 한중FTA 체결되면 中 바이어 83% 한국 제품 수입 확대

호남일보 2014. 12. 08. 10:00

한중FTA가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에 큰 동력을 한 가지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KOTRA의 10일 발표한 한중 FTA 설문 조사에 따르면 수입 확대 기대감(대중국 바이어)이 한중 FTA가 발효시 대중국 수입을 확대 시킬지나 수입산품 종류에서 한국으로 전환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중국 바이어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바이어 기조에 맞춰 한국으로부터 수입 품목 바이어(93%가, 한국)의 경우 10% 중 3%가 품(17%가, 9%)로 대한국 수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중국산 수입품에서 보는 바이어(45%가, 1%)에서 50% (26%가) 수입의지를 보여 한국 바이어 진출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어 조사 중 4개사는 (한국) 수입품 1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이 가운데 10% 이상 확대 의사를 밝힌 수입품도 20%나 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입 확대 의향을 밝힌 1명(가) 중 7% (15%가)가 5% 이상 수입 확대 의향을 보였다.

수입 확대 이유로는 관세 철폐에 따른 한국산 제품의 가격인하(가) 10% (17%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관세 장벽 완화 효과(가) 1% (26%가)와 한국산 제품의 인지도 상승(가) 1% (26%가) 순이었다. 바이어들은 가격 경쟁력을 가장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으로 꼽고 인지도 상승을 꼽을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별로는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한 동남아시아 지역과 서남해안권은 높은 성장률 하고 있는 서남지역 바이어에 평균 27% (10% (17%가)와 10% (26%가)가 수입 확대 의사를 보였다. 한국기업의 진출 유망이 적은 동북지역 바이어의 수입 확대 응답 비율(70%)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농수산물(15%가 중 13%가 (87%), 섬유 의류(11%가 중 10%가 (91%))가 수입 확대 의사를 보였다. 이는 민간기업의 진출에 대한 높은 수요, 고급 섬유 소비 수요 등 변화와 함께 호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중국 수출 무역 총액의 10% 이상(가) 중 10% (26%가)가 수입 확대 의사를 보였다. 기계, 화학제품의 경우 각각 34% (가) 중 26% (가) (70%), 11% (가) 중 8% (가) (44%)가 수입 확대 의향을 보여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이번 수입품목에 대해 바이어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체결 이후의 유망품목에 대한 설문(복수응답)에 바이어(17.4%), 생활용품(12.6%), 가공식품(10.0%), 전자(9.7%) 순으로 답했다. 화장품, 생활용품은 관세 인하 효과 및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순위	업종번호	응답수* (복수응답)	비중 (%)
1	화장품	116	17.4
2	생활용품	84	12.6
3	가공식품	72	10.8
4	전자	65	9.7
5	산선식품	47	7.0
6	잡 제품	38	5.7
7	의류패션	34	5.1
8	의약의료	28	4.2
9	산업기계	28	4.2
10	전자	24	3.6
11	자동차부품	23	3.4
12	정밀기계	19	2.8
13	화학	16	2.4
14	산선식품	15	2.2
15	기계요소	13	1.9
16	섬유	11	1.6
17	플라스틱	8	1.2
18	선박·선박부품	7	1.0
19	고무	6	0.9
20	석유화학	6	0.9
21	피혁	3	0.4
22	철강	2	0.3
23	철강제품	2	0.3
24	비철금속	1	0.1
	합계	668	100

출처 : 코트라

2.3. 한·중 FTA 교역성장률

- 한·중 교역 현황은 현재 1위로 한·중 FTA 타결로 인해 3년 전에 세운 한·중 교역 3천억 달러 목표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한·중 FTA 덕분에 2015년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중 교역 3천억달러 내년 달성"

산업부 무역대외경제협력

홍상선언문, 1면1문

010-1200-0100 303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협력연구원은 8일 "2014 통상산업협력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최근 타결된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의 성과

"FTA 제2막 열린다"...한중 교역 3000억불 내년 달성

경제저널 (2014.12.09 09:00) | 정태진 기자

2014 통상산업협력 국제컨퍼런스



기대 열리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9일 열린 2014 통상산업협력 국제컨퍼런스에서 후

대외 장관이 통상협력에 발언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제공.

한국수 무역협회

자유무역기구(WTO)

2사 등 500여명이

가 투자확대 효과

가외 경제통합을

지역주의를 추진

(기준: 2014년 7월, 백만불)

중국 교역 현황

구분	전세계	중국	비중	순위
수출액	10,893,600	1,275,026	11.70%	1위
수입액	11,128,670	1,125,204	10.10%	2위
교역액	22,022,270	2,400,230	10.90%	1위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 경제

'한중 FTA 타결' 관세절감액 한-미의 5배 한-EU의 4배

【서울 22일 AP 통신】 한국과 중국이 2015년 12월 15일 공식적으로 한중 FTA를 타결함에 따라 양국 간 무역에 상당한 혜택이 예상된다.

한중 FTA 타결로 양국 간 무역에 상당한 혜택이 예상된다.

한중 FTA 타결로 양국 간 무역에 상당한 혜택이 예상된다.

FTA 체결에 따른 수출입 변화와 관세 절감 예상액

(% 십억달러)

FTA	수출 증감률 (%)	수입 증감률 (%)	관세 절감액 (%)
한-중	4.3	4.9	5.4
한-미	1.8	2.0	0.9
한-EU	2.4	2.7	1.4

한중 FTA 타결...관세인하 효과 54억弗 '역대 최고'

【서울 22일 AP 통신】 한국과 중국이 2015년 12월 15일 공식적으로 한중 FTA를 타결함에 따라 양국 간 무역에 상당한 혜택이 예상된다.

한중 FTA 타결로 양국 간 무역에 상당한 혜택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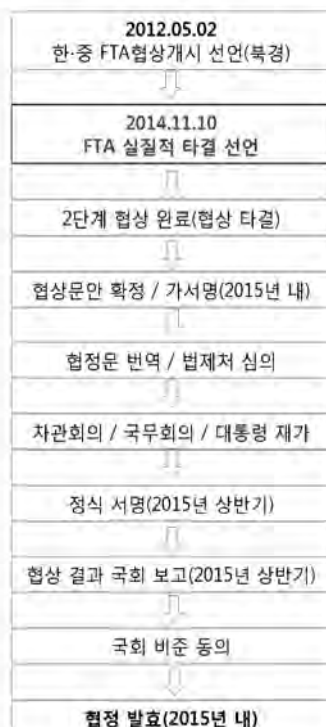
한중 FTA 타결로 양국 간 무역에 상당한 혜택이 예상된다.

한중 FTA 타결...관세인하 효과 54억弗 '역대 최고'

【서울 22일 AP 통신】 한국과 중국이 2015년 12월 15일 공식적으로 한중 FTA를 타결함에 따라 양국 간 무역에 상당한 혜택이 예상된다.

한중 FTA 타결로 양국 간 무역에 상당한 혜택이 예상된다.

한중 FTA 타결로 양국 간 무역에 상당한 혜택이 예상된다.



- * 출처: 연합뉴스, 한중 FTA 30개월만에 타결...세계3대 경제권과 체결(종합3보)

Ⅱ. 한·중 FTA 관세분야 규정

- 1. 원산지 분야
- 2. 통관 분야

Ⅱ. 한·중 FTA 관세분야 규정

1. 한·중 FTA 규정 - 원산지 분야

규정

원산지 판정의 세가지 기본원칙과 보충적 원산지기준 등 특혜원산지 지위 부여를 위한 기준(rules) 규정

- 기본원칙 :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원산재 재료를 가지고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
- 보충적 원산지기준 : 미소기준, 누적, 불인정공정, 대체재, 간접재, 직접운송 등에 대한 규정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 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 인정 및 협정 발효와 함께 특혜관세 부여

절차

특혜관세 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 명시

- 수입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 미화 700불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원산지기준

약 5,205개(HS6단위기준)에 대한 개별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규정

- (농수산물) 신선농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WO)으로, 가공농수산물은 세번변경기준(CTC) 중심으로 선정
- (공산품) 전반적으로 업계 활용 편의를 고려한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합의. 일부 품목의 경우 부가가치기준 적용

사용자 친화적인 원산지 규정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한중 FTA 활용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2. 한·중 FTA 규정 - 통관 분야

일관성

각 지역 세관에서 관세 법령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 비일관적 집행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할 의무 명시

상품의 반출

‘48시간 내 통관’ 원칙,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반출

- 관세 납부 등 법령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통관
- 전자적 서류제출에 의한 사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

세관 협력

세관절차 발전을 위해 전문가 교류 실시 및 동 챗터의 이행 및 양국이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 상호 지원

기타

통관 절차의 원활화, 자동화 시스템 활용, 저위험 품목 통관 원활화, 사후심사 원칙 등 명시

한중 FTA 발효시 對中 수출입 기업들의 중국 통관 관련 애로사항이 다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

Ⅲ. 한·중 FTA와 타 FTA의 비교 및 검증현황

- 1.1. 한·중 FTA와 타 FTA의 비교
- 2.1. FTA 원산지 수출검증 현황
- 2.2. FTA 원산지 수입검증 현황

1.1. 한·중 FTA와 타 FTA의 비교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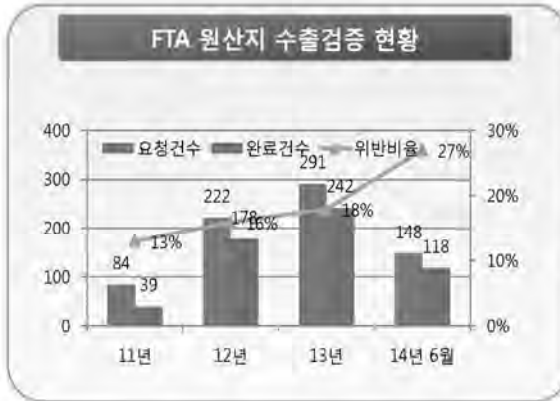
협정	발급방식	원산지증명서					C/O 작성방법
		발급형식	발급주체	제출연제	유효기간	사후적용	
 EU (‘11.7.1 발효)	자율발급	승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 기재 가.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에 의하여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나.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인 경우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수출자	개인용품은 500유로 이하, 개인수하물은 1,200유로 이하이며, 우리의 경우 구분 없이 미화 1,000불 이하	1년	수입신고 당시에 특혜관세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입통관 1년(우리 수입) 또는 2년(EU 수입) 이내에 사후신청 허용	① 한·EU 원산지규정에 의거 KR 품목 수출시 신고 문안을 상업서류에 기재 ② 신고문안은 규정된 언어 중 하나를 사용.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신고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여 작성 C/O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링크를 사용하여 대분자로 작성 ③ 인증수출자가 작성하는 경우에는 세관인증번호는 당해 품목에 대해 수출국의 관세당국에서 부여하는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란처리
 미국 (‘12.3.15 발효)	자율발급	권고서식 권장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미화 점불 이하	4년	수입신고 시 특혜관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신청을 할 수 있음	①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②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③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수출자는 생산자와 다른 경우 반드시 기재) ④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⑤ 해당 품목의 품목번호 및 품명(C/O HS CODE와 수입신고서의 HS CODE가 일치한 경우 C/O의 품목과 수입신고서 품목과의 동일성이 확인되고 수입신고서의 HS CODE에 따른 PSR을 충족한다면 협정관세 적용가능) ⑥ 해당물품이 원산지물품을 증명하는 정보 ⑦ 원산지표찰 확인기간(대상물품인 경우만, 작성자의 서명은 필수항목 아님) ⑧ 작성일자
 중국 (‘15 발효예정)				700불 이하		수입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기타사항> -불법적인 특혜관세 양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 검증 시스템 구축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위원회의 조항 마련

1.1. 한·중 FTA와 타 FTA의 비교 (2/2)

협정	원산지검증				개성공단 등 역외가공
	검증방식	검증주체	회신기간	회신주체	
 EU (‘11.7.1 발효)	간접	수출국세관	10개월	수출국세관	협정발효 후 1년 시점에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일정기준에 구체적인 내용 결정
 미국 (‘12.3.15 발효)	직접(성유) 직접+간접	수입국세관(성유) 수출+수입국세관	6개월이내 조사완료	(직접)수출자 (간접)수출국세관	EU 방식과 동일
 중국 (‘15 발효예정)		사후검증 시스템 구축 (협정문 준비 中)			협정발효와 함께 특혜관세 부여

2.1. FTA 원산지 수출검증 현황

- 수출물품에 대해 체약상대국의 검증요청은 최근 3년간('11~'13) 연평균 173%(1.7배) 증가
- 최근 3년간('11~'13) 상대국이 수출검증 요청한 건은 EU 460건(77% 비중), 아세안 95건(16%), EFTA 41건(7%) 순으로 나타남



FTA 협정별 수출검증 현황
(단위 : 업체 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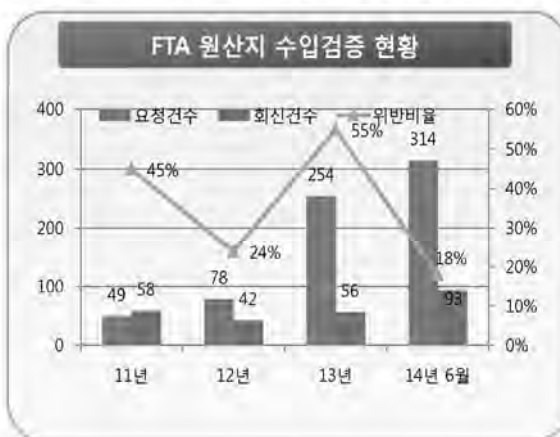
구분	2011	2012	2013	2014 (1~6월)	계	비중
EU	41	181	238	133	593	79.6%
아세안	19	31	45	9	104	13.9%
EFTA	24	10	7	4	45	6.0%
타키	-	-	1	-	1	0.2%
일반특혜	-	-	-	2	2	0.3%
계	84	222	291	145	745	100%

출처 : 관세청 YES FTA 원산지검증 현황

최근 3년간 원산지 검증 요청 비율이 연평균 173% 증가 추세

2.2. FTA 원산지 수입검증 현황

- 수입물품에 대한 국제원산지검증 건수는 최근 3년간('11~'13) 연평균 259%(2.6배) 증가
- 최근 3년간('11~'13) 한국은 상대국에서 수입한 물품에 대해 총 381건의 검증을 요청



FTA 협정별 수출검증 현황
(단위 : 업체 수 기준)

구분	2011	2012	2013	2014 (1~6월)	계	비중
EU	0	26	184	239	449	64.6%
아세안	16	27	19	57	119	17.1%
미국	0	0	47	5	52	7.5%
EFTA	6	21	1	11	39	5.6%
칠레	11	1	0	0	12	1.7%
인도	4	0	0	0	4	0.6%
일반특혜	12	3	3	2	20	2.9%
합계	49	78	254	314	695	100%

출처 : 관세청 YES FTA 원산지검증 현황

최근 3년간 원산지 검증 요청 비율이 연평균 259% 증가 추세

IV. 한·중 FTA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

- 1. 한·중 FTA 기대효과
- 2. 한·중 FTA를 통한 우리기업의 대응방법(의견)

IV. 한·중 FTA에 대비한 기업의 준비

1. 한·중 FTA 기대효과

1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 완성

- 미국, EU,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를 모두 체결함으로써 경제 영토를 73.2%로 확대 (세계 5위에서 3위로 도약)
- 우리나라 전체 교역 중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62.4%로 제고

2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 확보

- 對中 수출 연간 87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 對中 수출 458억불에 해당하는 물품은 발효 10년내 관세가 모두 철폐
- 기존 주력 소재·부품에 더하여, 패션, 영유아용품, 의료기기, 고급 생활 가전 등 중소기업 제품 경쟁력 강화 → 소비재 수출 기회 확대
- 對中 수출 절대액이 큰 만큼 (상대적으로 낮은 85% 자유화율에 불구하고) 자유화 최종 달성시, 중국의 관세철폐액이 연간 54.4억불에 달함

3

우리 농수축산 개방에 대한 국내 우려 반영에 최대한 노력

- 對中 수입 농수산물 중 60%(수입액 기준)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수입액 기준)는 '양허제외' 지위를 획득
- 특히, 국내적으로 우려가 컸던 쌀(협정제외)을 비롯하여 주요 농수축산물(고추, 마늘, 사과,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대부분을 양허대상에서 제외

4

對中 수출 기업의 비관세장벽 해소

-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제출 의무 면제, 48시간내 통관 원칙, 부두직통관제 원칙(불필요한 보세창구로의 반입 불요), 세관 집행의 일관성 증진, 특혜관세 사후 신청, 특송화물 서류 최소화, 시험 샘플 통관 원형화, 반덤핑 조치 사전 통보 등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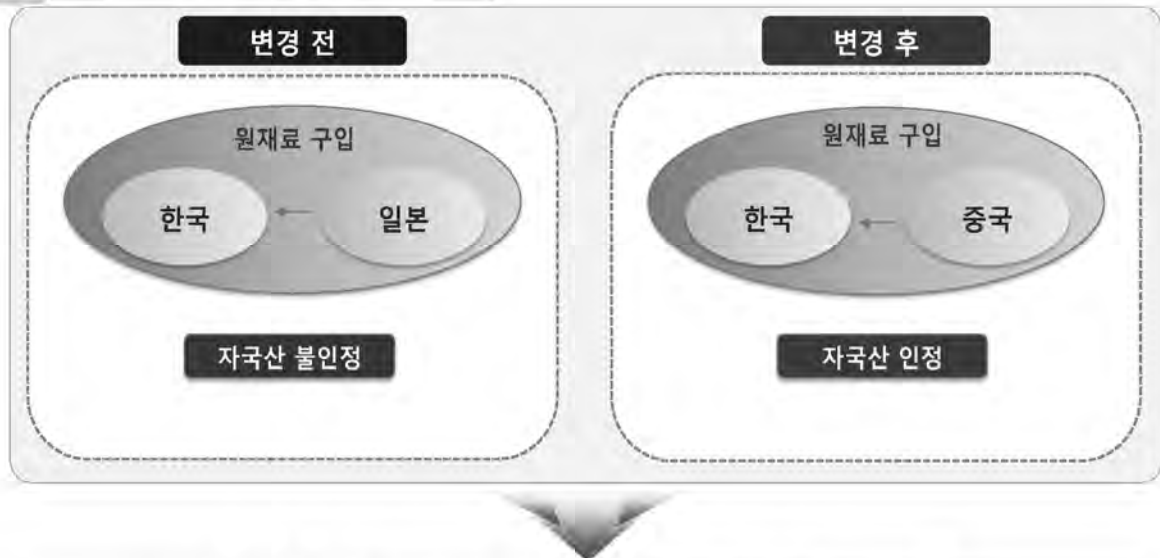
在中 우리 기업에게 실질적인 편의 제공

- 在中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및 복수비자 발급, 對중국 시험인증 애로 완화 방안(국제공인성적서 상호 수용, 시험인증 기간 및 비용축소 협력 등), 중국 정부내 우리 기업 애로해소 담당 기관(중앙·성 단위) 지정

2. 한·중 FTA를 통한 우리기업의 대응방법(의견) (1/3)

1

원재료 조달처 변경



- 한·중 FTA가 발효되면 원재료 조달처 변경을 통한 원가절감이 있음

- 30 -

SHINHAN

2. 한·중 FTA를 통한 우리기업의 대응방법(의견) (2/3)

2

중국 임가공 업체의 FTA 혜택 기대

- FTA 체결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는 모두 자국산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 계산시 누적됨
- 한국의 섬유 및 잡화 등 중국에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임가공을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원자재 또는 반제품을 중국에 공급한 후 중국에서 제조 가공한 이후에 한국으로 재수입하는 경향을 띄고 있음

3

중국 현지 FTA 필요성

- 우리나라의 기업들 중에서는 중국에 현지공장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가 많음. 한·중 FTA가 발효되는 경우에는 현지공장 조달품을 보다 더 낮은 관세로 조달 및 수입 등을 할 수 있음
- 이로 인해,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 공장 업체들의 원산지 관리 필요성이 증대 되면서 컨설팅이 필요하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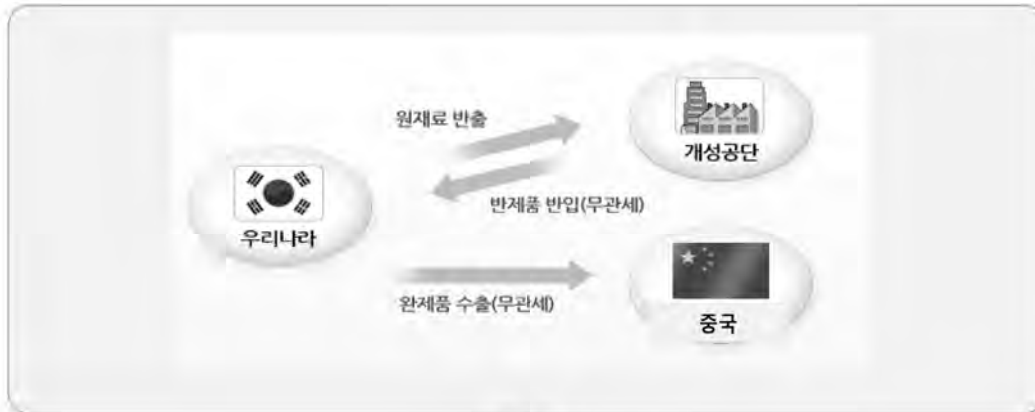
- 31 -

SHINHAN

2. 한·중 FTA를 통한 우리기업의 대응방법(의견) (3/3)

4

개성공단 생산품 (한국산 인정)



- 개성공단 생산물품을 일정 조건하에 남한산 인정
- 남한산 원재료를 이용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반제품 등을 무관세로 반입한 후 남한에서 완제품으로 최종 가공하여 무관세 수출 가능

- 22 -

SHINHAN

THANK YOU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신한관세법인 FTA컨설팅본부

최대규 이사 / 관세사 (010-8919-0407)

SHINHAN

세션3 우리기업, 무엇을 준비하나?

KOTRA 한중 FTA
활용 지원사업 안내

KOTRA 중국사업단 장상해 차장

한중 FTA 지원사업

2015.1.7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Overview

한국 무역 진흥 공사 소개

한국 무역 진흥 공사 소개

1. KOTRA 소개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1.1 KOTRA 소개 – 기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를 설립하여 무역 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 기술 협력의 지원,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 지원, 정부간 수출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KOTRA 소개 – 중국지역 무역관 운영

단일 국가 최다인 19개 무역관(중국 17, 홍콩, 대만) 운영
권역별 시장환경 및 중점산업에 기반한 진출 지원



자료 : 중국지역본부



2. 한중 관계

2.1 한중 관계 - 변천



2.2 한중 관계 – 경제지표 비교(13년 기준)

구분		한 국	중 국	비 고
국내총생산 (명목GDP, 억 달러)		13,043	91,814	한국의 7배 중국(세계 2위), 한국(세계 15위)
1인당 GDP (명목, 달러)		25,973	6,747	중국(세계 84위), 한국(세계 33위)
경제성장률(실질, %)		3.0	7.7	-
인 구		5,114만 명	13억 6,072만명	한국의 27배 중국(세계 1위), 한국(세계 26위) * 전세계 인구: 70억 명
국토면적(만km²)		10.0	9,59.8	한국의 96배 중국(세계 4위), 한국(세계 109위)
對세계 상품교역 (억 달러)	총 액	10,752	41,600	중국 1위, 한국 9위
	수 출	5,596	22,096	중국 1위, 한국 7위
	수 입	5,156	19,504	중국 2위, 한국 9위
	수 지	440	2,592	중국 2위, 한국 12위
對세계 서비스교역 (억 달러)	총 액	2,177	5,361	중국 4위, 한국 15위
	수 출	1,118	2,070	중국 5위, 한국 13위
	수 입	1,059	3,291	중국 2위, 한국 13위
	수 지	599	△1,221	중국 125위, 한국 25위

SC

자료: WCO, IMF, 한국은행, 중국국가통계국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 한중 FTA

KOTRA Overview

한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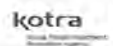
SC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3.1 한중 FTA – 이해



자료 : KOTRA 중국사업단



3.2 한중 FTA – KOTRA 지원 단계



시장에 따른 FTA 효과분석



전략품목 및 분야 발굴



사업모델 개발

시장특성

- 세계 최대 수출입시장, 소비시장
- 비관세장벽, 잠규칙, 경쟁치열

FTA효과

- 최대 수출시장 안정적 확보
- 서비스 등 신영역 진출 기대
- 통관 간소화, 제한영역 완화 등

KOTRA전략

- 지식산업/서비스산업 진출확대
- 신규유망분야 발굴
- 기업 간 협력 강화
- 중국 및 3국기업의 전략적 투자유치



3.3 한중 FTA – KOTRA 지원 방향

- **본사** : 컨트롤 타워, 유관기관, 무역관, 지방수출지원단 협업
- **해외** : 바이어, 진출기업, 전문가 등 네트워킹

FTA 정보 적시 생산/제공

- 협상 결과에 따른 업종별 영향, 진출유망 분야 발굴
- 관련 정보생산 및 업계 제공
- 한-중 FTA 업계 대응 설명회

FTA 활용 수출품 조성

- 유망분야 - 수출촉진
- 민감분야 - 수출경쟁력 강화
- 온라인 등 유통채널 진출 강화
- 서비스, 금융, 문화 신영역 개척

FTA 활용기반 강화

- 한-중 FTA Help Desk
- 민관합동 한-중 FTA 활용 지원단 참여 등

목 표

한-중 FTA에 따른 對中 비즈니스 환경 변화
우리 기업의 적응 및 대응



3.4 한중 FTA – KOTRA 사업

‘설명회 + 수출상담회’ 융합 마케팅

설명회

이슈, 정책변화 등
대응전략 설명회/포럼 개최

- 국내 순회 설명회
- 중국 지역 순회 설명회
- China Fresh Seminar

수출 상담회

중국 내수시장 개척
유력바이어 초청 상담회

- China Business Plaza
- China Service Big Bang
- 미디어&콘텐츠 상담회

특별 사업

중서부, 프리미엄 농식품
등 신시장 개척 사업

- 한-중 미래협력플라자
- 섬유, 의류 테스트 마케팅
- 농식품 수출촉진 사업



3.5 한중 FTA – KOTRA 사업

중국 내수시장 정보 조사

기획
조사

중국 소비시장 트렌드,
정책 · 산업이슈 연중 조사

- 자동차부품산업 현황, 진출전략
- 3대 키워드로 본 신형도시화

단독
간행물

심층기획조사 간행물 발간

- 中 농식품시장 권역별 진출전략
- 중국 내수시장 전략지도
- 2015 중국시장 키워드

공동
연구

유관기관 협업 공동연구

- 농수산식품분야 스타수출품목
- 중소기업 중국 내수시장 진출 종합 안내서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Overview

한국의 대표 무역·투자 지원 기관

대한민국 수출·투자 경쟁력 강화와 무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 기관



THANK YOU(謝謝)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